차 례

서 장 1910년 8월 22일 창덕궁…… 3

제1장 1907년 봄 …… 41

제2장 1926년 여름…… 133

서 장

1910년 8월 22일 창덕궁

1

처서무렵의 마지막더위가 기승을 부리던 그날 오후, 창덕궁 대조전의 흥복헌에서는 조선봉건왕조의 마지막 어전회의가 열리고 있었다.

피피한 관속인양 납덩이같은 침묵이 어전회의장에 무겁게 드리워있었다.

지겹게 뚝딱거리는 시계추소리가 숨막히는 침묵을 더욱 무겁게 하는데 천정에서는 날개긴 선풍기들이 끈덕지게 달려드는 더위를 밀어내느라 맥빠진 비명을 지르며 허덕거리고있었다.

임금의 배석하에 긴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은 조정의 중신들은 땀에 젖은 얼굴을 훔칠념도 못하고 칙명이 떨어지기만을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있었다.

회의가 시작된지도 퍼그나 시간이 흘렀다. 이따금 멀지 않은 별실쪽에서 시끌덤벙한 왜말소리가 독촉하듯 울려나온다. 일본인 황궁경찰서장이 전화통에 대고 시시각각으로 어전회의의 정황을 통감부에 보고하는 소리였다.

허나 조선봉건왕조의 27대임금 순종은 온몸을 맥없이 옥좌에 실은채 허탈에 빠진 모양으로 망연히 앉아있을뿐이였다.

순종의 얼굴은 창백하게 질려있었고 입은 비통하게 꽉 다물려 있었다. 황실의 지고한 권위를 상징하여 후광마냥 등뒤에 두른 일월병풍이며 훈패가 번쩍거리는 요란한 군복차림도 고뇌와 절망, 비탄에 잠긴 순종의 가긍한 모습을 가리우지 못하였다.

어전회의에 오른 의제는 일본이 강요해온 《한일합병》에 관한 안건이였다.

《합병》이라는게 대체 무슨 소린가. 두 나라가 서로 평등한 자격으로 하나가 된다는것이 아닌가.

헌데 일본이 강박하는 《합병》안이란 조선의 왕조를 뿌리채 들어내고 이 땅의 모든것을 통털어 집어삼키겠다는 수작이였다. 그런 짓거리를 두고 《합병》이니, 《병합》이니 강변하며 도장을 누르라 억지다짐을 하니 실로 도척도 낯을 붉힐 횡포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무심한 초목들도 치를 떨거늘 그것은 《합병》이 아니라 강탈이였고 《병합》이 아니라 병탄이였다.

그러고보면 제아무리 무도한 섬오랑캐들이라 해도 뒤가 켕기는 구석은 있었던 모양이다.

저들의 《합병》안을 수락하는 어전회의를 너렁청한 편전에서가 아니라 겹겹이 담으로 둘러막은 깊은 곳에 있다 하여 구중궁궐이라 불리우는 중전(임금의 안해)의 침전(대조전)에서, 그것도 대조전에 딸려있는 흥복헌이라는 자그마한 부속건물에서 슬그머니 열게 하였으니 말이다.

순종의 입에서 억눌린 한숨이 새여나왔다.

천하의 날강도무리였다. 일본에 외교권을 빼앗기고 내정권과 군권마저 속속들이 털리운 나라에서 조정이니, 임금이니 하는것은 한갖 빈 허울에 불과할따름인데 바야흐로 왜적들은 그 허울마저

말짱히 앗아내겠다는것이다.

《합병》안을 재가하라구?

결국 더이상 자기가 이 나라의 군주가 아님을 만인앞에 스스로 선언하라는 소리였고 500여년의 종묘사직앞에서 왕조의 멸망을 고하라는 소리였다.

조상대대로 물려온 삼천리강토가 이제는 일본의 속지로 되여버렸음을, 반만년세월 단군의 피줄을 이어온 이 땅의 백성들이 왜왕의 종으로 굴러떨어졌음을 만천하에 스스로 공포하라는 소리였다.

금시라도 통곡이 터져나올것만 같아 순종은 어금이를 꽉 깨물었다.

못나고 무력한 왕조의 세자로 태여나 외세의 전횡이 란무하는 굴욕의 세월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며 살아온 그였다.

그러한 순종으로서도 500여년 사직의 림종을 자인하는 사망확인서에, 자기의 백성들을 왜국의 노예로 넘기는 종문서에 도장을 찍는다는것은 너무나 곤욕스럽고 가슴떨리는 일이 아닐수 없었다.

결단코 《합병》안을 수락할수 없다는 고함이 목구멍으로 연송 치밀어올랐다.

하건만 순종은 피를 삼키듯 그 고함을 눌러삼키며 고통스러운 침묵만 지키고있었다. 서글프게도 그것이 왜적의 살기찬 칼날아래서 허수아비옥좌를 지키고있던 조선봉건왕조의 마지막임금이 할수 있는 유일한 항거였던것이다.

《상감마마, 재삼 아뢰옵건대 우리 황실과 백성을 영구히 보전할수 있는 길은 오로지 일본과 <합병>하는외에 달리 방법이 없는줄로 아옵니다. 부디 성총으로 헤아려주시기 바라나이다.》

천근만근의 침묵을 깨며 총리대신 리완용이 자리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여쭈는 말이였다.

순종이 고뇌에 흐리멍텅해진 눈길을 천천히 쳐들었다.

초조한 기색이 떠도는 리완용의 반드러운 얼굴을 물끄러미 바라보느라니 어전회의에서 선참으로 일어나 일본제국의 《보호국》으로 남아 렬등취급을 받기보다 차라리 일본과 《대등한 통합》을 이루어 《문명개화》의 길로 나가고 2천만 백성들로 하여금 《세계 1등국민》인 일본제국 국민의 지위를 누리게 하는것이 낫다고 력설하던 그의 말이 다시금 쓰겁게 떠올랐다.

박쥐와 견줘도 짝지지 않을 리완용이였다. 한때는 미국을 입이 닳도록 찬양하며 돌아치더니 아라사(로씨야)가 득세하는 기미를 보이자 약삭바르게 친로파의 거두로 둔갑하여 《아관파천》을 조종한 인물, 갑오개혁을 추진하던 김홍집을 친일파대신으로 몰아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데 앞장섰던 장본인도 바로 저 리완용이 아니였던가.

그러던 인간이 오늘에 와서는 언제 그런 일이 있었더냐싶게 매국대신으로 돌변하여 일본에 외교권을 섬겨바치고도 모자라 나라를 통채로 팔아넘기는데 선봉장으로 나섰으니 간신은 임금도 이긴다는 말을 어찌 그르다 하랴.

괘씸한 생각으로는 방자스레 튀여나온 리완용의 반질반질한 이마에 대고 《완용, 너야말로 불충이 극에 달했도다!》고 한바탕 호통을 치고싶었지만 통감부의 서슬푸른 위세를 등에 업은자인지라 순종은 어찌할 도리가 없어 턱만 부들부들 떨었다.

왕조의 운명이 칠성판에 오른 이때 저런 간흉이 조정의 총리대신으로 틀고앉아있으니 종시 하늘은 이 나라를 버리려는것인가.

순종의 눈길이 한가닥 구원의 반디빛이라도 찾아보려는듯 허둥

거린다. 그러던 그의 눈앞에 이번에는 내부대신 박제순의 시꺼먼 입수염이 어른거렸다.

형언할수 없는 망극지통을 호소나 하려는듯 잔뜩 오만상을 찌프린채 이마를 떨구고있는 박제순을 알아보는 순간 순종은 등덜미로 벌레 같은것이 서물서물 기여오르는듯 한 느낌에 몸을 움츠리고말았다.

저 인간은 왜 저리도 우거지상인가. 회의에서 《합병》안을 찬동한것이 가책이라도 된다는 시늉인가, 아니면 나라가 망해 벼슬을 잃게 되는것이 절통하기 그지없다는 시늉인가.

문득 《을사5조약》이 날조되기 전야에도 박제순이 저렇게 노죽을 부렸었지 하는 생각이 미쳐왔다.

그때 외부대신이였던 박제순은 여러차례나 참정대신 한규설을 찾아와 자못 비장한 낯빛으로 임금과 함께 순직할 각오를 표명하면서 왜인들에게 절대로 빼앗기지 않도록 외부대신의 도장을 련못속에 집어넣어두겠노라고까지 곱씹어 다짐하지 않았던가.

허지만 막상 이등박문의 표독스러운 협박에 부닥치자 대번에 기가 죽어 망국의 문서장에 외부대신의 도장을 누르고 나온 박제순은 련못에 집어넣는다던 도장을 어찌했느냐고 꾸짖는 한규설 앞에서 아무 대꾸도 못한채 얼굴만 붉혔다지 않는가.

그처럼 용렬하고 주대가 없는 위인이니 나라가 망하는 이 마당에서도 필경 속으로는 저 하나의 운명만을 주먹구구하고있을 테지.

비단 박제순뿐이랴. 저 농상공부대신이나 탁지부대신, 법부대신 같은 내각대신들은 물론이고 궁중에서 임금의 지팽이가 되여야 할 궁내부대신이며 시종원경, 시종무관장에 이르기까지 사직의 운명이나 임금이 당하는 치욕따위는 먹다버린 죽사발만치도

여기지 않는 위인들이기에 하나같이 《합병》안을 찬동해나선것이 아니겠는가.

그런가 하면 원로를 대표하여 허연 수염발을 드리우고 앉아있는 중추원 의장 김윤식은 《합병》안에 대한 가부를 물었을 때 어떻게 대답했던가.

《불가불가(不可不可)》

반대한다는 뜻(不可 不可)인지 불가불 찬성한다는 뜻(不可不 可)인지 그 의미를 가리기 힘든 묘한 대답이였다.

리완용의 무리들이 《합병》안을 론의할 때 자문역할을 해주었다고 들었었는데 정작 이 자리에 나서서는 70을 훨씬 넘긴 늙은 몸임에도 떳떳이 소신을 밝히기 저어하는 김윤식의 거동을 보며 순종은 입이 쓰거워나지 않을수 없었다.

문벌가의 후손으로, 조선유학계의 거목으로 행세해온 인물의 지조라는게 고작 저런것이였던가.

하기야 황족을 대표하여 회의에 참석한 황제의 큰아버지 리재면마저 나라를 일본에 넘기는데 동의해나섰으니 굳이 비루한 신하들을 원망할 체면도 없는 순종이였다.

어둠속을 헤매는 새처럼 회의장의 여기저기를 향방없이 방황하던 순종의 눈길이 한쪽벽에 매달려 불안스럽게 데룽거리는 시계추에 가 부딪쳤다.

흡사 그 모양이 껍데기만 남은채 공중에 드리워 건둥거리는 거미를 보는것만 같다. 자신도 저 거미의 신세와 다를바가 뭐랴 하는 설음에 눈앞이 뿌잇해왔다.

한스럽도다. 어이하여 태황제(고종)는 설음이라도 마음놓고 터놓을 변변한 신하 하나 곁에 없는 옥좌를 물려주었단 말인가.

어이하여 이리도 못난 나라를, 남에게 수모당하고 놀림거리가

되여도 하소할데조차 없는 가련하고 루추한 나라를 자식에게 물려주었단 말인가.

태황제인 아버지가 원망스러워 때없이 한숨을 토하군 하는 순종이였다. 그럴 때마다 그리워지는것은 어머니인 명성황후의 모습이였다.

어머니의 반듯한 이마가 어제런듯 눈에 선했다. 당차고 오연한 어머니의 한맺힌 그 눈빛에 자다가도 소스라쳐 일어나군 하였다.

림기응변의 재략과 서리발같은 독기로 조정을 주름잡고 대국들을 업어넘기던 어머니, 뭇사람들의 손가락질을 무릅쓰며 부녀자의 몸으로 정사에 참견하고 척신들을 끌어들인것도 다름아닌 일족과 하나밖에 없는 자식의 안위를 위해서가 아니였던가.

아, 막막한 이 시각 그 어머니가 곁에 있었더라면 무맥하고 외로운 아들을 위로라도 해줄수 있으련만…

어머니를 그려보는 순종의 멍한 눈빛이 서러움에 젖어들고있었다.

그때였다. 답답하게 침묵만 지키는 순종을 지켜보며 마른침을 삼키던 궁내부대신 민병석이 간이 달아 못 견디겠던지 벌떡 일어났다.

《상감마마, 성려를 더시옵소서. 이미 소신들이 루루이 아뢰온 바이지만 <한일합병>은 전승자가 패전자를 압제하는 형식이 아니옵니다. 외국에 있어서의 합병의 례를 본다면 법국(프랑스)은 마도(마다가스까르)를 <합병>한 뒤 마도왕을 외진 섬으로 류배보냈사옵고 미국은 하와이를 <합병>한 뒤 하와이국왕을 한낱 백성으로 전락시켰사옵니다. 하오나 일본은 금번의 <합병>안에서 우리 황실의 지위와 안녕을 철석같이 담보하였사오니 <합병>후 피합병국의 원수를 릉멸하는것과 같은 일은 절대 있을수 없는줄로 아

옵니다. 상감마마, 황실의 백년안태를 위해 <합병>안을 재가하심이 마땅한줄 아뢰옵니다.》

그런즉 《합병》안을 재가하지 않으면 마도왕이나 하와이왕의 신세가 된다는 소린가?!…

궁내부대신의 뒤를 이어 앙바틈한 몸집의 시종원경 윤덕영도 나비수염을 파들거리며 일어섰다.

《상감마마, 통감부에서 벌써 수차에 걸쳐 하회를 물어왔사옵니다. 저어… 사내통감(데라우찌 마사다께)은 이등공(이또 히로부미)과 달리 만사를 일도량단으로 처리하는 무사출신인지라 만일 이 회의에서 <합병>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통감의 심기를 해쳐 화를 불러오지 않을가 심히 념려되옵니다. 상감마마, 속히 결단을 내려주시옵소서.》

민병석은 민씨척족의 중견이고 윤덕영은 중전의 큰아버지이다.

척신들을 바라보는 순종의 눈길이 바람맞은 초불마냥 흔들거렸다. 재가를 재촉하는 그들의 황겁한 목소리가 절망의 수렁속에서 갈팡거리는 순종에게 피할 길 없는 진실을 일깨워주었던것이다.

강약이 부동이라고 일본이 작심을 하고 달라붙은 이상 어차피 《합병》이 이루어질것은 자명한노릇이였다.

오욕의 《을사5조약》을 한사코 거부하던 태황제도 종당에는 간악무쌍한 일본의 간계와 공갈에 밀려 주권을 빼앗기고 황위마저 잃지 않았던가. 그럴진대 맨발로 바위차기로 일본의 감정을 건드려 그네들이 지금보다 더 가혹한 《합병》안을 들이댄다면?…

민병석의 말대로 그래도 현재의 《합병》안에서 일본은 겉치레일망정 망국의 황실에 어느 정도 《관용》을 베풀고있지 않는가.

느닷없이 복도에서 칼집이 철컥거리는 바람에 순종은 흠칫 몸

을 떨었다. 어디선가 궁성밖에서 어지러운 말발굽소리들도 들려온다.

어전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칼을 차고 궁내 곳곳에 배치되여있던 일본경관들의 살벌한 모습이 되살아났다.

일본군의 보병과 기병들이 회의가 열리는 창덕궁은 물론이고 태황제가 유폐되여있는 덕수궁에까지 기관총을 걸어놓고 지켜서있다던 어느 내관의 말도 생각났다.

덕수궁이라구? 왜인들이 헤그밀사사건을 빌미로 강제퇴위시킨 고종황제에게 조롱이나 하듯 덕을 쌓으면서 오래 살라는 의미로 덕수라는 이름을 지어붙이고 대한제국의 황궁이였던 경운궁도 한낱 보잘것없는 사택으로 끌어내리려고 뜯어고친 이름이 바로 덕수궁인것이다.

가슴이 화들거렸다. 그렇듯 간활하고 포악무도한 왜인들이 무슨짓인들 못 저지르랴.

불현듯 순종의 눈앞에 전률을 일으키며 다가드는 광경이 있었다. 떠올리기도 소름끼치는 을미년의 그 참경이였다.

사납게 허공을 가르던 일본도들, 야수처럼 포효하며 미쳐날뛰던 무리들, 여기저기서 터져나오던 궁녀들의 비명소리와 선혈이 랑자하던 명성황후의 침전 그리고 고종황제에게 폭행을 가하고도 모자라 아들인 자기의 상투를 거머잡고 칼등으로 후려치며 어머니가 있는 곳을 대라고 을러메던 왜놈들의 저주로운 그 상통이 악몽과도 같이 덮쳐들었다.

렬강들을 상대로 위태로운 줄타기놀음을 벌리며 일족을 지켜내고저 모지름쓰던 명성황후도 그날 잔학한 섬오랑캐들에게 란도질을 당하고 시신도 변변히 남기지 못한채 한줌 재가 되여버리지 않았던가.

온몸이 경련을 만난듯 덜덜 떨려왔다.

그런 날강도들이니 그네들의 《합병》안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또다시 이 대궐안에서 을미년의 참극이 되풀이되지 않는다고 누가 장담할수 있으랴.

순종의 입에서 《끄응—》 하는 된신음소리가 흘러나왔다.

《합병》안을 수락하자니 천고의 죄인으로 락인찍히는것이 두려웠고 거부하자니 일본의 칼도마우에 오른 자신과 황실의 운명이 불안스러웠다.

심약한 넋으로 감당하기에는 너무도 버거운 력사의 중압에 짓눌려 순종은 등어리로 줄땀이 흘러내리는것도 의식하지 못한채 괴롭게 허덕이고있었다.

2

그 시각 흥복헌에는 순종과 다름없이 괴로움에 신음하는 또 한명의 인물이 있었으니 그는 바로 병풍뒤에서 어전회의를 여겨듣고있던 순종의 안해 윤씨였다.

윤씨는 살에 맞은 새마냥 푸들푸들 떠는 가슴을 누르며 가까스로 그 자리에 서있었다.

눈앞이 캄캄했다. 온 누리가 한켠으로 기울어지며 와르르 무너져내리는것 같았다.

끝끝내 망국의 시각이 닥쳐온것이다. 500여년의 왕조가 그의 눈앞에서 고목 넘어가듯 거꾸러지고있었다.

기가 찼다. 조정의 대신이라는 인간들이 나라를 넘기자는 말을 저리도 쉽사리 입에 올리다니.

저들의 안중에 나라나 임금은 헐면 아무때고 바꿔입을수 있는 옷가지에 불과하였던가.

대대손손으로 조정의 록을 타먹으며 살아온 사대부들이 아닌가. 《주욕신사》(임금이 욕을 당하면 신하는 죽어야 한다는 뜻)를 입버릇처럼 외워온 중신들이 아닌가.

어쩌면 황족들과 척족들마저 일본의 《합병》타령을 앵무새처럼 따라외울수 있는가.

황족귀인과 정부대관가운데 매국노 아닌자가 없다고 규탄한 《대한매일신보》의 기사가 윤씨의 뇌리를 모질게 채찍질했다. 수긍하기는 쓰거워도 천만번 지당한 소리라 아니할수 없었다.

저들은 이 나라의 신하들이 아니였다. 금빛오얏꽃을 화려히 수놓은 대례복차림에 가슴노리마다엔 조정에서 준 떡짝만 한 훈패들을 한아름씩 달고있어도 저들은 이미전부터 통감의 신하들이였고 왜왕의 노복들이였다.

하늘도 무심하구나.

백길 낭떠러지우에 선 이 나라를 구원할 충무공과 같은 충신은 과연 없단 말인가.

하다못해 나라의 굴욕을 눈뜨고 볼수 없어 스스로 목숨을 끊은 민영환 같은분이라도 있다면…

병풍틈새로 어전회의장의 정경이 어릿거린다. 역신들의 핍박에 시달리며 허수아비모양으로 외로이 앉아있는 남편의 구부정한 잔등이 윤씨의 눈을 아프게 찌르고들었다.

어쩔 사이없이 그 녀인의 두볼로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걷잡을수가 없었다. 금방 목멘 흐느낌소리가 새여나올것만 같아 윤씨는 강잉히 입술을 깨물었다.

간밤을 뜬눈으로 새우며 장탄식만 하던 남편의 가긍한 모습

이 떠올랐다.

《<합병>은 천명인가보오. 아아, 나는 종사(종묘사직)의 죄인이 되였소. …》

《상감마마께옵서는 이 나라의 지존이시옵니다. 부디 맥을 놓지 마시옵소서.》

윤씨가 거듭 이렇게 간청하며 위로하여도 순종은 눈물범벅인 얼굴을 어린 안해의 가슴에 묻은채 자기는 죄인이라고 맥빠진 소리만 되뇌일뿐이였다.

불우한 군주였다. 내우외환이 그칠새 없는 약소국의 궁중에서 태여난탓에 갖은 풍파와 환란을 피할 길 없었던 남편이였다.

악착한 왜인들에게 국모였던 어머니를 졸지에 잃었는가 하면 독이 든 차를 마시고 생사기로에서 헤매기도 하였었다.

그뿐인가. 명성황후가 고른 남편의 첫 안해도 을미년의 그 참변을 직접 겪은 충격에 짓눌린채 병석에서 신음하다가 애처롭게 요절하지 않았던가.

일본의 강압으로 밀려난 아버지를 대신하여 옥좌에 오른 뒤에도 남편은 매국대신들과 통감부의 렴탐군들만이 들끓는 조정안에서 숨소리조차 조심해야 하는 처지였다.

날 때부터 유약했던 남편의 성정은 파란많은 세파속에서 더욱 유약해져갔다. 매사에 환관처럼 소심했고 단지 바라는것은 덧없는 평온과 안식뿐이였다.

그때문이여선지 어린 나이에 황태자비로 들어온 윤씨에게 있어서 20년이나 우인 남편은 스스럼없이 기댈수 있는 가장이라기보다 구완하고 돌보아야 할 병약한 오라버니같이 여겨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윤씨는 지치고 주눅이 든 남편의 마음을 보듬기 위해 무진 애

를 썼고 통감부의 흉계와 간신들의 야욕이 판을 치는 대궐안에서 무기력한 상감을 지키기 위해 필사의 노력을 다하였다.

그러한 윤씨를 남편은 바람벽도 미덥지 않은 불안한 궁중에서 두려움없이 속을 터놓을수 있는 유일한 벗으로 믿게 되였고 나이는 어리지만 속이 깊은 안해에게 모든것을 의지하게 되였다.

그래서였던가. 달포전 윤씨가 문안차로 덕수궁을 찾았을 때 태황제가 무거운 한숨끝에 불쑥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사직은 점점 기울어가는데 상감은 문약하기만 하니 잠이 오질 않소. … 아무쪼록 중전께서 내조를 잘해주시기 바라오.》

강박에 쫓겨서이기는 하나 아비를 황위에서 몰아내려는 일본의 횡포무쌍한 요구를 끝까지 거절하지 못하고 즉위한 아들을 저으기 못마땅하게 생각하는 태황제였다.

그러면서도 마음 한구석으로는 줄곧 경각에 이른 사직과 자식의 운명을 두고 속태우는 태황제의 어둑컴컴한 낯빛을 보며 윤씨는 슬프면서도 비장해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일본의 손아귀에 멱이 눌린채 마지막숨을 몰아쉬고있는 이 나라였다.

나라의 운명이자 임금의 운명이고 임금의 운명이자 황실과 윤씨자신의 운명이거늘 구중심처의 녀인일지라도 어이 공손히 앉아서 지켜보기만 할수 있으랴.

태를 치고 몸부림을 쳐서라도 허물어져가는 사직을 지탱하고싶었다. 혼신의 힘을 다 바쳐 바람앞의 초불처럼 흔들거리는 상감을 부축해주고싶었다.

중전의 몸으로 어전회의가 진행되는 곳에까지 이렇듯 남모르게 찾아온것도 애오라지 그런 심정에서였다. 허나 정작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너무도 억이 막히지 않는가.

쓰라린 분노와 아픔으로 하여 윤씨의 가슴은 미여지는듯 하였다.

이제라도 병풍을 헤치고 뛰쳐나가 상감을 협박하는 무리들을 향해 가슴속의 불길을 쏟아놓고싶었다.

나라를 팔아먹는 역신들이 어이 대궐의 룡마루밑에서 버젓이 머리를 쳐들수 있느냐고, 하늘이 무섭지도 않느냐고 분연히 꾸짖고싶었다.

윤씨가 솟구치는 오열을 간신히 삼키고있는데 갑자기 별실쪽에서 귀따가운 전화종소리가 터져나왔다.

필경 통감부에서 또다시 어전회의의 결과를 물어오는 전화일것이다.

회의장이 뒤숭숭해졌다. 중신들이 거북스레 몸을 움직거리며 안절부절 못하는 가운데 때마침이라는듯 리완용의 천연덕스러운 목소리가 울려왔다.

《상감마마, 아뢰옵기 황송하오나 지금이야말로 장래를 위해 주저없이 용단을 내려야 할 때인줄로 아옵니다. 감히 주청하옵건대 소신에게 <합병조약>체결의 전권을 위임해주신다면 성은에 보답하기 위해 진력을 다하겠나이다.》

순간 윤씨의 얼굴이 하얗게 굳어져버렸다.

전권을 위임해달라구? 을사년의 그때처럼 임금을 제쳐놓고 저들끼리 다시금 나라의 운명을 롱락하겠다는 소리였다.

땅이 꺼지게 몰아쉬는 순종의 한숨소리가 고통의 하소연인양 그 녀인의 가슴을 흔들었다.

정말로 사직의 운명을 매국역신들에게 맡겨버린다면, 하여 유구한 세월속에 물려받아온 이 나라의 모든것을 가증스러운 저 왜나라에 고스란히 넘겨버린다면, 정녕코 그리된다면 무슨 낯으

로 태황제와 조상들을 대하고 자손들을 대한단 말인가.

백성들은 나라를 망하게 한 임금의 이름에 대를 두고 침을 뱉을 것이고 황족들은 조상의 뼈가 묻혀있는 이 땅에서 떳떳이 설자리조차 찾을 길이 없게 되리니 아, 천년이 흐르고 만년이 흐른다한들 어이 그 치욕을 다 씻으랴.

설음인지 전률인지 모를 그 무엇이 뜨거운 피와 함께 목을 치받는다.

문득 윤씨는 자신이 해야 할바를 깨달았다.

안된다. 결코 그리되여서는 안된다. 죽음보다 더 무서운것이 치욕일진대 사직을 지키다가 죽을지언정 치욕속에 비루한 삶을 이어갈수는 없다. 죽어서도 천추만대의 오명을 쓰고 후손들의 손가락질을 당할수는 없다.

윤씨는 다급히 쿵쿵거리는 심장의 박동소리를 들으며 총총히 흥복헌을 나섰다. …

드디여 순종은 매국노들을 앞세운 일본의 압력에 굴복하여 리완용에게 전권을 위임하는데 동의하고말았다.

칙명이 떨어지자 리완용이 미리 준비해두었던 전권위임장을 순종의 앞에 내놓았다.

그것은 조선봉건정부에서 작성한 문서가 아니였다. 통감인 데라우찌가 사전에 제멋대로 작성하여 순종의 서명과 날인을 받아오라며 리완용에게 쥐여준 협잡문서장이였다.

헌데 예상치 못했던 일이 터질줄이야.

상감의 금고에 보관되여있던 옥새가 사라져버렸다는것이다. 옥새를 가지러 갔던 내관이 허겁지겁 달려와 그 소식을 전하자 회의장에 있던 중신들의 낯빛이 대번에 질려버렸다.

옥새가 없어지다니? 임금의 도장인 옥새를 찍지 못하면 전권위

임장은 한낱 휴지장에 불과하지 않은가. 대관절 누가 감히 옥새를 치웠단 말인가?…

의심쩍어하는 눈초리들이 자연히 상감에게로 향해졌다.

하건만 순종은 텅 빈 눈길을 허공에 둔채 묵묵부답일뿐이다. 마치 이 세상사람이 아닌듯싶었다.

밖에서 일본경관들의 긴장된 군화발소리가 짜증스러운 목소리와 뒤섞여 어수선하게 들려왔다. 하도 황당한 사태앞에 중신이라는자들도 경황실색하여 쩔쩔매기만 하였다.

그중에서도 바빠난것은 시종원경 윤덕영이였다. 왜서인지 불길한 예감에 명치끝이 무지근해왔다.

상감의 앞이라는것도 잊고 애꿎은 내관을 닥달하며 불난 강변에 덴 소 날뛰듯 바빠하던 윤덕영은 순종에게 잠간 나가보겠다고 여쭈고 부랴부랴 회의장에서 나와 별실로 들어갔다.

별실에는 어전회의를 감시하기 위해 파견된 통감부관리와 황궁경찰서장 그리고 중전의 아버지이자 윤덕영의 동생인 윤택영이 있었다.

그런데 윤덕영이 방에 들어서기 바쁘게 일본인통감부관리가 대뜸 달구지바퀴 굴리듯 눈알을 굴리며 호통치는것이 아닌가. 기관총을 쏘아대듯이 조급하게 내쏘는 왜말을 통 알아들을수가 없어 윤덕영이 물고기모양 눈만 껌벅거리는데 언제 뒤쫓아왔는지 왜말에 능한 농상공부대신 조중응이 통역을 해주었다.

《시종원경각하, 옥새가 사라졌다는게 도대체 무슨 소립니까? 대사를 앞둔 이 중대한 시각에 통감부를 희롱하겠다는건가요? 당신들의 얕은꾀가 우리 대일본제국에 통할것 같으냐 말입니다!》

그만에야 윤덕영은 숨이 컥 막혔다.

불쌍놈 같으니! 함부로 뉘앞에서 그따위 버르장머리냐! 데라

우찌가 칼밖에 모르는 우직한 위인이니 종복들도 이따위 잡놈들일수밖에.

윤기가 찰찰 도는 시종원경의 나비수염이 노기를 품고 파르르 떨린다.

머리가 앞뒤로 불거져나와 《대갈대감》으로 불리우는 윤덕영은 중전의 큰아버지인데다 임금의 시중을 드는 시종원을 거느린 것으로 하여 순종의 수염도 제 마음대로 쥐고 흔드는 궁중의 세도가였다.

게다가 워낙 간계에 능통하고 리욕을 차리기 위해서는 체면도 돌보지 않고 영악스레 달라붙는 탐학무치한 됨됨때문에 윤덕영이라 하면 쥐구멍으로 통영갓도 굴려낼 꾀바리인 리완용조차 마주서기 꺼려하는 상대였다.

그렇듯 제노라는 그에게 어디서 굴러온지 모를 섬나라 쪽발이가 감히 하인취급을 하려들다니. 《합병》이 박두하니 통감부의 눈에는 이 나라의 정1품 대감도 상가집 개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게지 하는 생각에 윤덕영은 오장이 뒤집혀와 견딜수가 없었다.

직성대로라면 단박에 개목걸이같은 넥타이가 걸려있는 그자의 멱살을 움켜잡고 귀뺨이라도 한대 후려쳐야 속이 후련할상싶었다.

윤덕영이 분통을 삭일길 없어 앙가슴을 내밀고 헐떡거리는데 한켠에서 지켜보던 황궁경찰서장이 다가왔다. 서장은 윤덕영을 노려보며 익숙한 조선말로 떠벌이는것이였다.

《각하, 황궁경위를 담당한 경관으로서 배를 갈라 죄를 빌어도 부족할 막중한 책임을 통감합니다. 우리가 추측컨대 옥새는 분명이 대궐안에 있을겁니다. 대단히 엄중한 사건이니만치 속히 통감부의 결재하에 일본군대와 경찰을 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대

궐을 샅샅이 뒤져서라도 잃어진 옥새를 반드시 찾아낼테니 상감께서 너무 심뇌하시지 않도록 각근히 위로해드리기 바랍니다.》

랭랭한 웃음을 입가에 문채 뇌까리는 서장의 말에는 등골이 서늘해지게 하는 무서운 의미가 있었다.

군대와 경찰을 풀어 대궐을 뒤지겠다구? 설마하니 을미년때처럼 또 궁중에 피바람을 일구겠다는건가.

윤덕영은 찬물을 뒤집어쓴듯 정신이 번쩍 들었다.

설마라니? 그보다 더한짓이라도 서슴지 않을 일본이다.

그래도 그때는 명색이나마 조선군대라는것도 있었고 이 나라의 리권을 탐내는 렬강들이 눈을 부릅뜨고 으르렁대던 시절이 아니였던가. 그럼에도 꺼리낌이 없던 일본인데 하물며 이 땅에 세력을 뻗칠대로 뻗친 오늘에 와서야 두려울게 뭐가 있을라구.

15년전에는 국모 하나를 도륙내는걸로 그쳤지만 이번에는 아예 《합병》이란 간판마저 다 걷어치우고 황실이니, 대감이니 하는 거치장스러운것들을 말끔히 없애려들지도 모른다.

(실지로 일이 그렇게 번져진다면 이날이때껏 부귀영화를 누려온 내 처지는?…)

생각이 거기까지 미치고보니 정1품 대감의 도고하던 기세는 가뭇없이 잦아들고 엉겁결에 윤덕영은 오줌이라도 마려운듯 엉거주춤한 자세가 돼버리고말았다.

그는 예속을 자인하는 공손한 표정을 서둘러 그려보이며 풀이죽은 목소리로 서장에게 간청했다.

《이보시오 서장, 수고롭게 군대까지 동원할 필요야 있겠소. 그러다 민심이 소란해질수 있소. 아마 무슨 착오가 생긴것 같은데 내 곧 알아보리다. 부탁인데 나를 믿고 조금만 기다려주시오.》

서장의 눈이 비웃듯이 번뜩거렸다. 말없이 눈을 내리깐채 타

산을 굴려보는듯 하던 그자는 잠시후 눈살을 꼿꼿이 세우며 씨벌이였다.

《좋습니다. 시종원경각하의 확약을 통감부에 그대로 보고하겠습니다. 하지만 시간을 오래 끌 일이 아니라는걸 명심해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소.》

윤덕영은 주린듯이 서장의 말을 부여잡았다.

벌렁벌렁 뛰는 가슴을 문지르며 윤덕영이 별실을 나서는데 그때껏 일본인들의 서슬에 눌려 침먹은 지네같이 시르죽어있던 윤택영이 뒤따라 나오며 떨리는 목소리로 찾는것이였다.

《대감.》

돌아보니 동생의 얼굴이 월식을 만난 달마냥 꺼멓게 질려있었다. 급히 일러줄 말이 있다는 표정이였다.

명치끝이 또다시 무지근해왔다. 윤덕영은 동생이 황급히 이끄는대로 어느 빈방에 들어갔다.

《어인 일이시오이까?》

방에 들어서자바람으로 조바심치며 던지는 윤덕영의 물음이였다.

윤택영은 선뜻 입을 열지 못하고 끙끙 갑자르다가 우거지상이 되여 중얼거렸다.

《아무래도 옥새는 중전마마께서 간수하신듯 한데…》

《?!…》

윤덕영의 얼굴이 돌미륵처럼 굳어져버렸다. 불시에 천길나락으로 떨어지는것 같았다. 끝내 중전이…

아닌게 아니라 옥새가 없어졌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맨 먼저 중전이 떠올라 윤덕영은 더우기나 속을 졸이고있던 참이였다.

대궐안에서 상감보다도 더 한사코 《합병》에 도리를 젓는 인물이 다름아닌 중전이였던것이다. 만날 때마다 《합병》만은 절대로 안된다고, 죽으면 죽었지 나라가 망하는것을 그대로 지켜보기만 할수는 없다고 눈물을 머금고 절규하던 중전이였다.

그러는 중전의 모습에서 윤덕영은 작두날에라도 올라설것 같은 결연함을 느끼며 가슴이 선뜩해질 때도 있었다.

허나 밀려드는 큰물에 주먹질이나 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윤덕영에게는 중전의 그 모든 애원과 절규가 대세의 엄혹함을 모르는 아녀자의 한갖 푸념으로밖에 여겨지지 않았었다. 헌데 이런 변고가 생기다니.

피가 꼭뒤까지 뻗쳐올랐다. 치미는 부아통을 가삐 누르느라 윤덕영이 입을 앙다물고있는데 곁에서 겁에 질린 동생의 목소리가 역정이 나도록 계속 들려왔다.

《어이구, 이 일을 어찌하면 좋사오이까. 일본사람들이 알면 중전을 가만두지 않을텐데…》

오두방정을 떠는 윤택영의 두눈이 초점을 잃고 희번덕대고있었다. 동생의 그런 꼴에 윤덕영은 더욱 화가 동해났다.

작달막한 키며 벗어진 이마, 앙바라진 가슴 등 겉모양은 더 말할것도 없고 탐욕스러운 기질에 능갈치는 솜씨, 거기다가 낯바닥이 땅두께같은 뻔뻔함을 보면 대주지 않아도 한배속에서 나온 형제라는것이 누구에게나 헨둥한 두사람이였다.

그렇지만 그들형제에게는 구별되는것도 있었으니 형인 윤덕영이 바늘로 찔러도 피 나올데가 없을만치 암팍지고 모지락스러운 성미였다면 동생인 윤택영은 허영과 허세에만 눈이 어두울뿐 속은 텅 빈 경박한 허풍선이였다.

하기에 윤덕영은 내심으로는 늘쌍 동생을 원두쟁이 쓴 외 보

듯 하였고 윤택영은 임금의 장인인 부원군이 되여서도 형을 대할 때면 자연 주눅이 들군 하였다.

그러면서도 일은 제가 저질러놓고 뒤치닥거리는 노상 집안사람들에게 떠밀어버리던 어릴적 버릇그대로 윤택영은 오늘까지도 곤경에 빠지면 이렇게 형부터 괴롭히려드는것이다.

《녀자와 소인은 길들이기가 어렵다더니…》

세상물정 모르는 중전을 비난하는것인지, 주책머리없는 동생을 핀잔하는것인지 모를 웅얼거림소리가 윤덕영의 입에서 새여나왔다.

하건만 혼맹이가 빠져버렸는지 동생은 그 소리도 알아듣지 못한채 황망히 하소연을 토하고있었다.

《대감, 중전마마를 살려주사이다. 비록 중전일지라도 사사로이는 대감의 친조카가 아니오이까. 필시 중전마마께서 모진 마음을 품으신게 분명한데 이 아비의 힘으론 용빼는 재간이 없사오이다. 제발 대감께서 나서시여 중전마마를 설복…》

청승궂게 늘어놓던 윤택영의 넉두리가 별안간 동이 나고말았다. 비지땀이 흐르는 형의 이마에 지렁이같은 피줄이 시퍼렇게 부풀어오른것을 뒤늦게야 알아보았던것이다.

역증스러운 침묵이 흘렀다. 이윽고 윤덕영은 동생을 거들떠보지도 않은채 차겁게 내뱉았다.

《이 일은 제가 알아 조처하겠으니 부원군께선 더이상 소란을 피우지 마시오이다.》

3

윤덕영은 정신없이 중전의 처소로 향했다.

어리석은 동생이나 조카를 생각해서가 아니였다. 벼랑끝에 놓인 자신과 윤씨가문의 운명을 구하기 위해서였다.

터져나오는 줄욕을 입안에서 뭉개며 그는 걸음을 다우쳤다.

천둥벌거숭이같으니! 세상일에 어두운 구중궁궐의 녀자이기로서니 어찌 맨발로 바위 찰 생각을 한단 말이냐. 그래보았자 제 발부리나 부러질걸 가지구.

흥, 일본사람들이 알면 중전을 가만두지 않을거라구? 미련하기란. 중전 하나로 그칠것 같으냐. 그악한 왜인들이 윤씨가문을 깡그리 족살내려들텐데 그때 가서 뭐 말라빠진 사직이고 옥새라는거냐. 도대체 다 망해버린 임금의 옥새가 뭐가 그리 중해 제 목숨도 부족해서 온 가문의 운명까지 내던지겠다는거냐 말이다. 코 막고 답답한것 같으니!

밖에서는 불볕이 끓고있었다. 흥복헌에서 중전의 처소까지는 불과 몇십보안팎이건만 이 시각에는 왜 이다지도 천리처럼 느껴지는것인지…

목에서 겨불내가 났다. 구불구불한 땀발이 윤덕영의 얼굴로 연신 흘러내렸다.

(한시바삐 옥새를 찾아내야 해. 일본사람들의 눈밖에 나서는 절대로 안되고말고.)

윤덕영은 대감의 체면도 돌볼새없이 반달음을 놓아 대조전의 대청앞에 헐레벌떡 이르렀다.

대청을 지키고있는 궁녀에게 중전마마를 뵈러 왔다고 이르니 몸이 편찮아 후날 만났으면 한다는 대답이 돌아왔다.

본래 상감을 내놓고 소임이 없이는 들여다볼 엄두조차 내기 어려운 중전의 안방인지라 여느 신하들 같으면 두말 못하고 물러났겠지만 윤덕영은 그쯤에 꿈쩍할 위인이 아니였다.

《경각을 다투는 일이니 중전마마를 꼭 뵈워야겠다고 다시 아뢰게.》

고집스레 되뇌는 그의 미간에 힘줄이 꿈틀거렸다.

궐내의 세력가인데다 찰거마리마냥 끈덕진 시종원경의 기질을 잘 아는지라 궁녀도 감히 만류하려들지 못했다. 얼마후 들게 하라는 중전의 분부가 내렸다.

중전의 안방은 대청의 서쪽에 있었다. 성급히 대청우에 올라선 윤덕영은 궁녀가 조심스러이 장지문을 열자 방안에 들어서며 절을 하였다.

《중전마마, 미령하시다는 말을 듣고도 이렇게 경황없이 뵙기를 청해 송구하기 그지없사옵니다.》

신하이지만 문중어른이기도 한 윤덕영이 찾아오면 중전도 일어나 례를 갖추는것이 상례였다.

그런데 웬 일인지 오늘은 윤씨가 일어날념을 않고 보료우에 앉은채 맞아들이는것이였다.

《분망하신 대감께서 어인 일로 이리 급히 래림하셨사옵니까?》

(중전이 정말로 몸이 불편한가?)

이런 생각을 하며 허리를 펴던 윤덕영은 제 눈을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윤씨가 상복차림을 하고있지 않는가.

아무런 치레도 없이 가리마를 반듯이 타 머리를 쪽지고 하얗

게 소복을 갖춰입은 윤씨의 모습에서는 쉬이 범접하기 힘든 서느러운 기운이 떠돌고있었다.

《중전마마, 어이하여 상복을 입으셨사옵니까?》

윤덕영이 어리벙벙하여 묻는 소리였다.

그러자 윤씨는 외면하며 피로이 한숨을 내긋더니 서글프게 대답하는것이였다.

《나라가 망하는데 국모로서 상복을 입는거야 당연한 도리가 아니겠사옵니까.》

윤덕영은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슬픔과 원한이 어린 윤씨의 말에 염통이 찔려났던것이다. 당황해서 조카딸을 바라보니 평소의 순한 눈매가 아니였다.

어둡게 흐린 윤씨의 눈에는 그 어떤 처절한 결심이 폭우를 품은 먹구름처럼 서려있었다.

(이 철없는것아, 지금은 제 머리우에 떨어지는 벼락부터 피하고볼 때야!)

일이 수월치 않겠다는 예감에 윤덕영의 온몸은 움켜쥔 주먹처럼 팽팽해졌다.

어떻게 해서든 불집이 더 번지기 전에 사태를 수습해야 했다. 그러지 못하여 일본군대가 궁중에 쓸어드는 때엔 모든게 끝장나는것이다.

촉급해난 그의 눈길이 안방을 재빠르게 훑었다. 고풍스러운 정갈함이 배인 방안에 운치가 흐르는 가구들이며 병풍이 제자리에 방정하게 놓여있었다.

중전이 옥새를 어디에 건사했는가?

불붙는 심사에 쫓겨 황황급급해하던 윤덕영은 불쑥 랭정을 되찾았다.

이런 정황에서 가장 빠르고 쉬운 길은 중전이 스스로 옥새를 내놓게 하는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였다.

중전이라 하나 아직 숫구멍에 피도 안 마른 철부지가 아닌가. 어르고 으르면서 어린 중 젓국 먹이듯 한다면야 제아무리 독한 마음을 먹었다한들 버티여낼 재간이 있을라구. 암, 산전수전 겪은 이 대갈대감이 치마두른 애숭이조카 하나 휘여잡지 못할소냐.

윤덕영은 마음을 도슬러먹으며 윤씨가 권하는대로 자리에 앉았다.

《물러나있거라.》

윤씨가 나직이 분부하자 시립해있던 지밀나인이 허리를 숙이며 물러갔다.

방에는 두사람만이 남았다. 숨가쁜 침묵이 흘렀다.

윤씨는 흐르는듯 한 치마폭속에 한쪽무릎을 세우고 오연히 앉아있었다.

그런 조카딸을 차겁고 약빠른 눈초리로 흘끔흘끔 살피며 윤덕영은 말머리를 어찌 뗄가 하고 잔머리를 굴렸다.

마침내 그의 입에서 능청스러운 소리가 흘러나왔다.

《중전마마, 상감마마께옵서 옥새를 찾고계시옵니다.》

순간 따지고들듯 크게 뜬 윤씨의 눈에서 싸늘한 불신의 빛이 튀여나왔다. 불안스럽게 치마폭을 비다듬는 녀인의 손이 가늘게 떨린다.

윤덕영은 그 모습을 보며 틀림없이 옥새가 중전에게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되였다.

낯선 사람인양 큰아버지를 새삼스럽게 바라보던 윤씨는 체념한듯 이내 눈길을 거두고말았다.

그러거나말거나 윤덕영은 쓰라린 침묵속에 모대기는 중전을 향

해 슬슬 그물을 당기기 시작하였다.

《중전마마, 신하된 몸으로 이런 심뇌를 끼쳐드려 황송무지로소이다. 그러하오나 신은 사사로이는 중전마마의 백부되는 몸이기도 하옵기에 이 자리에서 혈친의 정을 담아 간곡히 아뢰옵고저 하나이다. 중전마마, 옥새는 나라를 상징하고 임금을 나타내는 지엄한 물건이온지라 함부로 가까이해서는 아니될줄로 아옵니다. 천하의 권력이 담겨있고 뭇사람들의 생사흥망이 걸려있기에 하늘이 정해준 자리에 놓여있으면 천행만복을 가져다주오나 그렇지 못하면 도리여 재앙을 불러오는것이 바로 옥새가 아니겠사옵니까. 더우기 지금은 황실과 신하들의 운명이 결딴나는 칼끝같은 시각이옵니다. 이러한 때 온갖 흑심들이 시뻘겋게 눈독을 들이는 나라의 옥새를 안방에 간수한다는것은 참으로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 위험천만한 일이 아닌가 하옵니다. 중전마마, 하늘이 만든 화는 피할수 있어도 제가 만든 화는 피할수 없다 하였사온즉 바라옵건대 황실의 안녕을 위해서라도 간수하신 옥새를 내놓으시여 화단을 미연에 제거하심이 마땅한줄 아뢰옵니다.》

자못 절절하니 들려오는 윤덕영의 《충언》이였다.

윤씨는 고개를 떨구었다.

심장을 조이는 고독과 절망감에 몸이 으슬으슬해왔다. 목젖너머로 북받치는 설음을 삼키느라 한동안 숨을 고르던 녀인은 이윽하여 조용히 실토정을 하는것이였다.

《지당하신 말씀이옵니다. 대감께서 이르시였듯이 나라의 상징이고 임금의 표식인 옥새를 안방의 아녀자가 간수한다는것이 어디 가당키나 한 일이옵니까. 하오나 어이하겠사옵니까. 조정에는 나라의 옥새를 지켜나설 단 한분의 어른도, 대장부도 없사오니 저 같은 아녀자라도 나설수밖에요. 대감께 묻고싶사옵니다. 나

라를 일본에 넘기기 위해 임금의 옥새를 더럽히는것이 과연 신하된 도리이온지요? 어이하여 이 나라의 국록을 받는 조정의 중신들이 그리도 한결같이 <합병>에 찬동해나서는것이옵니까?…》

갑자기 윤씨의 목소리가 떨리였다. 참기 어려운 울분이 눈물과 뒤섞여 목을 메우는 바람에 녀인은 말을 이을수가 없었다.

그 시각 윤씨에게 있어서 누구보다도 원망스러운 사람은 다름아닌 자기앞에 앉아있는 큰아버지라는 인간이였다.

여러날전부터 궁내부대신 민병석이며 부원군인 아버지와 함께 아침저녁으로 상감께 문안을 드린다고 찾아와서는 《합병》의 불가피함과 《리득》을 귀가 아프도록 곱씹으면서 일본의 《합병》안을 수락해야 한다고 매일과 같이 남편을 괴롭혀온 윤덕영이였다.

그러는 그에게 제발 상감마마를 핍박하시지 말아달라고, 어떻게든 흔들리는 중신들을 다잡아 사직을 구원해달라고 윤씨는 얼마나 애절히 신신당부하였던가.

그러나 윤씨의 피타는 하소연을 윤덕영은 다 낡아빠진 질그릇 깨지는 소리마냥 하찮게 여길뿐이였다.

윤씨의 가슴속에서는 피눈물이 흐르고있었다.

자기가 큰아버지라고, 아버지라고 불러야 할 혈친들을 리완용이나 송병준보다도 더 혐오하게 된 기막힌 운명앞에 몸부림이 쳐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윤덕영은 눈을 내리뜨며 랭소를 머금었다.

천진한것 같으니. 안방에 들어앉아 사서삼경이나 외우고 렬녀전이나 읽는다고 세상일을 다 안다더냐. 노상 구중안에서만 맴도는 네가 호두속같이 복잡한 세상만사를 어찌 알수 있다더냐.

나비수염속에 반쯤 가리워진 윤덕영의 입가로 쓴웃음이 스쳐

갔다.

하지만 그는 애써 내색을 감추었다. 머리가 열두쪼각이 난다 해도 옥새부터 뺏아내야 한다는 끈질긴 일념에 사로잡혀 그는 다시금 설교를 시작했다.

《중전마마, 조정의 중신들과 원로들이 이구동성으로 <합병>에 동의한것은 무엇보다도 황실의 안녕과 존엄을 생각해서이옵니다. <합병>이 성사되면 우리 황실은 일본<천황>폐하의 두터운 은혜와 보호를 받게 되옵니다. 상감마마께옵서와 중전마마께옵서는 일본황족의 지위를 누리시는것과 더불어 일본으로부터 그에 해당한 충분한 비용을 보장받으시게 되옵고 황족들 역시 자손에 이르기까지 상당한 대우를 향유하시게 되옵니다. 상감마마께옵서도 대세에 순응하실줄 아는 현명한분이시기에 오랜 숙고끝에 <합병>안을 수락하시옵고 총리대신에게 전권을 위임하는 칙명을 내리시온게 아니겠사옵니까. 하오니 중전마마, 상감마마의 칙명을 받드는것이야말로 신하된 근본도리이옵거늘 어서 옥새를 내주시옵소서.》

《상감마마께옵서 <합병>안을 수락하시였다구요?》

윤덕영을 바라보는 윤씨의 두눈이 가느다랗게 좁혀졌다. 파랗게 질린 녀인의 입술이 오한을 만난듯 바르르 떨렸다.

일본의 《합병》안을 수락할바에는 차라리 죽는게 편하겠다고 오열하던 상감이였다.

일본인들의 감시를 피해 어떻게 손에 넣었는지 간밤에 떨리는 손으로 안해에게 옥새를 맡기던 남편이였다. 자기에게는 일본인들과 역신들의 강박을 끝까지 견디여낼 힘이 없다면서. 그러던 상감이…

윤씨는 치마폭을 부여잡으며 세차게 도리를 쳤다.

《아니옵니다! 그건 결코 상감마마의 진심이 아니옵니다! 간흉의 무리들이 주상을 공갈하여 꾸며낸 거짓이옵니다. 저들의 흉심을 상감마마의 칙명이라 사칭한것이 분명하옵니다!…》

《사칭이라니?!…》

윤덕영은 저도 모르게 외마디소리를 질렀다. 그의 얼굴이 대뜸 새빨개지고 눈이 올챙이배처럼 불어났다.

하건만 윤씨는 진정할수 없었다. 그 녀인은 자신의 의지에 전혀 순응하지 않는 걷잡을수 없는 격정을 난생처음 느끼고 부끄러워하면서 깜짝 놀랐다.

분노에 맥박치는 숨을 다그어쉬며 윤씨는 골풀이치는 비분을 불길처럼 쏟아놓았다.

《저는 도저히 깨닫지 못하겠사옵니다. <합병>이라는것이 이루어지면 상감마마께옵서는 하루아침에 왜왕의 신하로 전락되고 황족들도 끈 떨어진 갓신세가 될텐데 상가집 개만도 못한 그런 신세속에서 황실의 안녕이고 존엄이고를 어이 생각이나 할수 있사오며 상감마마께옵서도 그런 치욕을 어이 진심으로 바라실수 있겠사옵니까. 저에게 진실을 말씀해주시오이다. 정녕 중신들과 원로들의 안중에 황실이 있기나 한것이옵니까?》

윤덕영은 명치가 뜨끔해왔다. 정곡을 찌르는 윤씨의 면박이였던것이다.

하기야 《합병》에 동조해나선자들중에 진실로 황실의 운명을 걱정하는 위인이야 눈을 씻고 찾아보재도 어디 하나라도 있는가.

일본수상 가쯔라에게 1억엔만 내면 이 나라를 무난히 넘길수 있다고 호언장담했다는 송병준 같은 무뢰한은 더 론할것도 없고 내각의 총리대신이라는 리완용만 보아도 그렇지 않은가.

불현듯 통감부에서 흘러나온 이야기가 생각났다.

며칠전 리완용이 조중응과 함께 통감관저로 찾아가 데라우찌에게서 일본의 《합병》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고 한다. 헌데 설명을 듣고난 두 대신은 추호도 이견이 없다고 쌍수를 들어 환영하면서 다만 《합병》후 황제였던 제 나라 임금의 칭호를 대공으로 하는것이 어떠냐고 제켠에서 먼저 제안하였다는것이다.

너무도 비굴한 그 제안에 되려 통감부쪽에서 어리둥절해하면서 예로부터 내려온 칭호인 왕으로 하는것이 낫겠다고 생색을 냈다는것이 아닌가.

대공이든 왕이든 빈 허울뿐이기는 매일반이였으나 통감부로서는 《합병》을 앞두고 겉발림으로나마 황실을 회유하기 위해 그리하였을것이다.

그 이야기를 처음 들었을 때 윤덕영은 천하에 불충무도한 간신들이라고 기염을 토했다. 대공이라면 유럽에서 코딱지만 한 소국의 군주에게 붙이는 이름일터인데 아무리 《합병》이 되여 성쌓고 남은 돌이 된다 할지라도 여태껏 모셔온 자기 임금을 그렇게까지 룽멸하자고 스스로 제안하다니.

인제 와서 상감이나 황실따위는 안중에도 두지 않는 리완용무리들의 방자한 짓거리앞에 임금과 신하의 의리를 입버릇처럼 외워온 시종원경의 고결한 타성은 진노하지 않을수 없었다.

허나 그것은 허세일따름이였다. 딴은 윤덕영자신도 안팎이 다르기는 리완용에 조금도 짝지지 않았던것이다.

원래 그는 현재의 존귀한 지위를 잃게 될가봐 전전긍긍하면서 《한일합병》에 저으기 소극적이였었다.

《합병》을 순조롭게 단행하려면 황실의 반발을 무마하는것이 중요했고 그러자면 궁중의 세력가인 윤덕영을 틀어쥐여야겠다고 타산한 데라우찌는 어느날 밤 은밀히 그를 불러들였다.

시종원경을 만난 통감은 회유와 협박을 섞어가며 저들에게 협조해나설것을 강요해왔다.

윤덕영의 마음은 저울추처럼 흔들거렸다.

어느쪽에 가붙을것인가? 대세는 이미 기울어져있었다. 파선된 쪽배와도 같은 이 왕조가 더이상 자기에게 복락을 담보하지 못하리라는것은 손금보듯 뻔한 일이였다.

급기야 그는 장래의 영달과 안락을 담보한 통감의 확약을 믿고 일본제국이라는 든든한 새 배에 옮겨타기로 결심하였다.

그렇게 되여 데라우찌는 궁중에서의 《합병》공작을 윤덕영의 수완에 전적으로 맡기게 되였고 윤덕영은 민병석이며 윤택영 등 궐내의 친일세력과 야합하여 상감과 황족들에게 갖은 감언리설과 위협을 집요하게 들이대여온것이다.

그런즉 윤덕영이건 리완용이건 입만 벌리면 황실의 안녕부터 운운하지만 실상 그들의 관심에서 황실은 벼룩의 뜸자리만도 못한것이였다.

들여다보면 그들이 눈에 화등잔을 켜달고 신경을 도사리는 유일한 관심사는 오로지 《합병》후 저들이 일본으로부터 받게 될 대우문제가 아니던가.

윤덕영의 얼굴에서 쥐가 풀떡거리는데 의분에 찬 윤씨의 목소리가 채찍마냥 귀전을 때렸다.

《엎어진 둥지에 성한 알이 없다고 들었사옵니다. 나라가 있어야 황실도 있는것이 아니겠사옵니까. 참말로 황실의 안녕을 걱정한다면 어이 그리도 흔연히 나라를 넘기자는 소리가 나올수 있겠사옵니까. 저는 비록 구중속에 갇혀 지내는 아녀자라도 그만한 사리는 분별할수 있사옵니다. 그런 소리를 하는 인간들은 나라를 팔고 임금을 팔고 백성을 팔아 제 배만 불리면 그만이라

여기는 매국역신들이라는것을 말이옵니다!》

《어흠!》

윤덕영이 중전의 앞이라는것도 잊고 범 우는 소리로 헛기침을 툽아올렸다. 노기가 오른 그의 낯가죽이 튕기면 소리가 날듯 댕댕해졌다.

자기를 곧바로 보는 윤씨의 눈에 경멸의 빛이 확연한것을 알아보는 순간 그는 만신창이 된 자존심으로 하여 뒤목이 뻣뻣해왔다.

윤덕영은 소태같이 쓰거운것을 꿀꺽 삼키고나서 어린 황후를 향해 훈시하듯 따져물었다.

《중전마마, 하오니 어찌하겠사옵니까? 나라를 넘기지 않으면 당장 뺏으려들텐데 무슨 뾰족한 방책이 있는가 말씀이옵니다. 우리에게 강토를 지킬 병졸 하나 있길 하옵니까, 힘을 빌려줄 이웃 하나 있길 하옵니까. 자고로 큰 나라들 틈에 끼여 허리 한번 펴보지 못한 이 나라이옵니다. 늘 사대로 굽신거리며 간신히 연명해온 이 나라가 아니옵니까. 그리해서 우리는 아직까지 살아남을수 있었사옵니다! 그리해야 우리는 앞으로도 살아남을수 있사옵니다!》

《…》

목에 피대가 동해올라 터뜨리는 윤덕영의 항변에 윤씨는 돌연할 말을 잃고말았다.

그것은 인정하지 않을래야 않을수 없는 엄연한 현실이였던것이다.

애당초 이 나라에 힘이 있다면 어찌 일본이 저렇듯 오만무도하게 달려들수 있으랴. 볼품없이 힘없고 초라한 약소국이여서 어제는 저 나라, 오늘은 또 다른 나라에 가붙으며 고단한 세월을 이어오지 않았던가.

윤씨는 피가 나게 입술을 깨물었다. 눈앞이 부옇게 흐려오는데 참을길 없는 흐느낌이 가슴속에서 간간이 새여나왔다.

그러는 녀인에게 윤덕영이 다소 누그러든 어조로 지꿎은 설교를 계속했다.

《일본이 어떤 나라이옵니까. 이 땅을 차지하기 위해 청국과 맞서싸우고 아라사와도 주저없이 싸워이긴 천하강국이 아니옵니까. 그러한 일본이 인제 와서 옥새 하나 없다고 물러앉겠사옵니까. 쪽박이나 쓴다고 벼락을 피할수는 없는 법이옵니다. 을사년 때 일을 돌이켜보시옵소서. 그때 태황제께옵서는 마지막까지 옥새를 내놓지 않으셨사오나 종시 이등(이또 히로부미)은 조약을 만들어내고야말지 않았사옵니까. 이등은 채찍으로 사람을 쳤지만 사내(데라우찌 마사다께)는 쇠사슬로 사람을 칠 인물이옵니다. 중전마마, 지금은 제 한몸부터 돌보아야 할 때인줄로 아옵니다. 혈친의 정으로 재삼 간곡히 청하옵건대 부디 옥새를 내놓으시여 백척간두의 위기를 모면하시옵소서.》

애간장이 마르는지 윤덕영의 목소리는 떨리기까지 하였다.

향방을 잃은 윤씨의 눈길이 한순간 허공을 헤맸다. 창자를 끊는 고통과 슬픔, 사무치는 원한이 녀인의 눈에서 푸르스름한 독을 풍기고있었다.

윤씨는 숨막히는 압박감속에서 사납고 광포한 힘이 사정없이 자기에게 덮쳐들고있음을 온몸으로 느끼며 잠시후 초연히 대답했다.

《그리할수는 없사옵니다. 제가 이 나라의 국모로 살아숨쉬는 한 옥새는 절대로 내놓을수 없사옵니다.》

결연한 대답이였다. 소복을 입은 윤씨의 모습에 비장한 그림자가 떠돌고있었다.

윤덕영은 당황망조하여 부르짖었다.

《아니되옵니다! 감히 아뢰옵건대 그리하시오면 중전마마께옵서는 필시 명성황후마마의 비운을 면치 못하시옵니다. 어찌 중전마마뿐이겠사옵니까. 부원군께서와 신은 물론이고 온 윤씨가문이 일본사람들의 독수에 걸려 멸문지화를 당하고말것이옵니다. 중전마마, 그만 자중하시옵소서!》

그러자 윤씨의 짓타는 눈길이 윤덕영에게로 날아들었다.

《멸문지화라 하셨사옵니까?》

이렇게 되쳐물으며 녀인은 가슴속에서 고패치던 설음과 분노를 벌물마냥 터치였다.

《차라리 그리되는것이 낫겠사옵니다. 망국노가 되여 치욕을 당할바엔 차라리 보잘것없는 이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나라 백성들앞에서 황실의 한쪼각 체면이나마 세우는것이 낫겠사옵니다. 후손들한테 매국노의 가문이라 두고두고 손가락질을 당할바엔 차라리 온 가족이 순국하여 조상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는것이 마음편하겠단 말씀이옵니다!》

윤덕영은 등줄기가 서늘해졌다. 기꺼이 죽기를 각오한듯 한 윤씨의 도담하면서도 서러운 도전을 그는 얼나간 사람모양 멍하니 쳐다보기만 하였다.

아연했다. 인제 고작 17살밖에 안된 어린 중전에게 저토록 무서운데가 있을줄이야 꿈엔들 상상이나 했던가.

허랑방탕하고 매련없는 동생이 어떻게 저런 딸을 두었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이였다.

그때였다.

불시에 흥복헌쪽에서 왜말소리들이 들려왔다. 윤덕영은 불에 덴것처럼 몸을 흠칠했다.

(일본사람들이 벌써 기미를 챈게 아닌가?)

피줄로 차디찬 전률이 줄달음쳤다. 매몰차게 시간을 독촉하던 황궁경찰서장의 목소리가 또다시 등덜미를 후려갈겼다.

윤덕영은 등이 달아올라 윤씨에게 거듭 간청했다.

《중전마마, 일본사람들이 알아차리면 큰일나옵니다. 어서 옥새를 내주시옵소서!》

그러나 윤씨는 단호히 도리를 흔든다.

《아니되옵니다!》

서리찬 그 기상앞에 윤덕영은 자기가 중전을 너무나 어리숙하니 빗보았다는것을 때늦게 깨닫지 않을수 없었다.

시끌시끌한 왜말소리들이 이리로 오는듯싶었다. 윤덕영은 수염에 불이 달린양 화급해나 어쩔바를 몰라하였다.

당장에라도 일본도를 뽑아든 왜인들이 문을 박차고 뛰여들것 같았다. 자기에게 온갖 특혜를 아낌없이 약속하던 데라우찌의 너그럽던 얼굴이 졸지에 포악스러운 상통으로 뒤바뀌여 으르렁대는것만 같았다.

종내 옥새를 찾아내지 못한다면?…

대번에 간이 졸아들었다. 《합병》후 귀족의 작위와 막대한 세습재산을 안겨주겠다던 데라우찌의 화려한 약속은 순식간에 물거품으로 꺼져버리고 여태껏 누려온 부귀영화도 영낙없이 잃어버릴것이다.

단지 그뿐이랴. 흉포하기 그지없는 일본인들의 살기에 목숨조차 부지하기 어려우리니 이 일을 어이한단 말인가.

별안간 윤덕영이 눈을 치뜨며 입을 비틀었다.

(흥! 이 대갈대감이 그렇게 호락호락 거꾸러질것 같으냐. 어림도 없는 소리! 지랄발광을 쳐서라도 기어코 옥새를 빼아낼테다!)

충혈된 눈알을 독스럽게 굴리며 그는 안방의 여기저기를 갈팡질팡 두리번거렸다.

문갑이며 사방탁자 같은 가구들은 물론이고 지어 중전이 앉아있는 보료와 사방침, 안석까지도 뻔뻔스러이 훑어보았다.

대관절 옥새를 어디에 감추었을가? 눈에 쉬이 뜨이는 문갑안에 넣어두었을것 같지는 않고 혹 사방침속에? 아니면 아예 밖으로 내다치운건 아닐가?…

얼굴에는 진땀이 비오듯 하는데 아무리 골을 쥐여짜보아야 도무지 짚이는데가 없었다.

왜말소리들이 군화발소리들과 뒤엉켜 점점 가까와오고있었다. 그 소리들은 급줄이 나 덤벼치는 윤덕영의 귀가에 천둥같이 우르릉 쾅쾅 울려왔다.

막다른 궁지에 몰려 체통마저 잃은 그는 울상이 되여 윤씨에게 다시한번 애원했다.

《중전마마, 혈친의 정을 생각해서라도 제발 옥새를 내놓으시옵소서!》

하건만 윤씨는 더욱 이악스레 치마폭을 움켜잡으며 강잉히 대답했다.

《내놓을수 없사옵니다!》

다음순간 허둥대던 윤덕영의 눈망울속에서 꿰지르는것 같은 날카로운 빛발이 튀여나왔다. 아까부터 치마폭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 중전의 이상한 거동에 뒤늦게야 신경이 미쳤던것이다.

윤덕영은 숨을 끊고 윤씨의 치마폭을 쏘아보았다.

(중전이 옥새를 치마폭에?…)

그제서야 자기가 들어서는데도 일어날념을 못하던 윤씨의 행동이 뇌리를 치는것이였다.

등잔밑이 어둡다더니 중전이 옥새를 치마폭에 감추고있을줄이야.

배속에서 흐득흐득 웃음이 괴여올랐다.

먹이를 발견한 맹수마냥 자기의 치마폭을 파고들듯 노려보는 윤덕영의 열뜬 눈초리를 의식하는 순간 윤씨의 심장은 금시 얼음덩이가 되여버리고말았다.

공포에 살이 졸아들고 무엇인가 목에 걸린듯 하여 질식할것만 같았다. 윤씨가 속이 한줌만해서 숨을 죽이고있는데 윤덕영의 철면피한 소리가 들려왔다.

《중전마마, 그걸 어서 내놓으시오이다.》

방금까지도 빌붙듯 애걸하던 그 어조는 어느새 랭혹하고 위압적인 어조로 돌변해있었다.

윤씨는 온몸을 부르르 떨었다. 누를길 없는 혐오감에 숨쉬기조차 괴로왔다.

녀인은 자기의 생명인양 치마폭에 품은것을 두손으로 부둥켜잡으며 필사적으로 부르짖었다.

《절대로 아니되옵니다! 이 목숨이 끊어지기 전에는 결코 옥새를 내줄수 없사옵니다!》

윤덕영의 나비수염끝이 독사의 혀끝처럼 파들거렸다. 그의 두 눈이 독을 뿜으며 불꽃을 튕기였다.

(오냐. 목숨을 끊겠거든 얼마든지 끊어라. 그래도 옥새는 내놔야 한다!)

윤덕영은 입을 앙다물며 앙바틈한 몸을 벌떡 일으켰다. 그는 무작정 머리를 꼬나박은채 중전에게로 달려들었다.

《당장 옥새를 내놓으시오이다!》

악에 받친 그의 손아귀가 조카딸의 치마폭을 거머잡았다.

윤씨의 입에서 기겁한 소리가 터져나왔다.

《이 무슨짓이옵니까!》

허나 윤덕영은 아랑곳하지 않았다.

중전도, 대감의 체면도 눈앞에 없었다. 오직 자신의 명줄이 걸린 옥새만이 있을뿐이였다.

윤덕영은 옥새를 내놓지 않으려 몸부림치는 중전에게 거품을 물고 덤벼들었다. 기승스럽게 날뛰는 그의 눈에서 불이 튀고 이마에 힘줄이 험상궂게 뻗쳐올랐다.

치마폭이 째지는 소리와 녀인의 비명소리가 윽윽대는 거치른 숨소리와 뒤섞여 어지러이 터져나왔다.

황겁히 뛰여든 지밀나인도 윤덕영이 팔굽을 내지르는통에 저만치 나동그라진다.

끝끝내 중전에게서 옥새를 빼앗아낸 윤덕영은 뒤도 돌아보지 않고 황황히 나가버렸다.

《아이구머니!—》

절망과 비탄에 찬 중전의 통곡소리가 대조전에 메아리치고있었다. …

이리하여 순종의 옥새가 찍힌 전권위임장을 억지로 받아낸 리완용은 그길로 데라우찌에게 달려갔다.

남산자락의 통감관저에서 리완용과 함께 《한일합병조약》을 날조한 데라우찌는 그날 자기의 일기장에 이런 기록을 남겼다.

《…합병문제는 이처럼 용이하게 조인을 끝냈다. 가가(呵呵).》

한 나라를 집어삼킨 정복자의 포만감에 얼마나 도취되여있었으면 《가가》라는 껄껄 웃는 소리까지 덧붙여놓았겠는가. …

제 1 장

1907년 봄

1

일본이 고종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키기 전야인 그해 4월초, 아직은 바람끝이 사무럽던 어느날 깊은 밤이였다.

이경이 가까와올무렵 느닷없이 경운궁(덕수궁으로 개칭되기 전의 이름)의 정문인 대한문이 삐거덕하며 열리더니 검은 형체 하나가 슬그머니 대궐안에서 나오는것이였다.

대문앞 가로등불빛에 드러난 행색을 보니 궁중의 내관인듯싶었는데 한손에는 보꾸레미가 들려있었다.

대궐문을 지키고있던 왜놈경찰들이 때아닌 밤중에 궁밖을 나온 내관에게 눈을 부라리며 단속하려들었다.

그때였다.

이미전부터 한옆에서 초조하니 서성거리던 왜헌병 하나가 급히 다가가 경찰들을 제지하고는 저쯤 떨어진 으슥진 곳으로 내관을 데려갔다.

그곳에서 양복차림에 도리우찌를 쓴 또 다른 사내가 말 한필과 자전거를 세워두고 기다리고있었다.

헌병과 내관사이에 몇마디의 말들이 짤막하게 오고갔다. 양복쟁이가 가운데서 두사람의 대화를 거들어주는것으로 보아 통변

인 모양이였다.

대화가 끝나기 바쁘게 빼앗다싶이 내관에게서 보꾸레미를 넘겨받은 왜헌병은 지체없이 대기시켰던 말우에 올라탔다.

그리고는 양복쟁이는 거들떠보지도 않고 보꾸레미만 한손에 거머쥔채 통감부가 있는 남산방향으로 말을 몰기 시작하였다. 허겁대며 자전거에 오른 양복쟁이도 뒤떨어질세라 서둘러 따라섰다.

인적없는 행길은 쥐죽은양 괴괴하였다.

달마저 구름속에 가리워 사위는 먹물을 뿌린것 같은데 어디선가 야경군의 딱따기소리만이 단조로이 들려올뿐이다.

대한문을 얼마쯤 벗어나자 왜헌병이 조급해나는듯 말배때기를 걷어찼다. 말은 메마른 길바닥을 제껴차며 속력을 내기 시작했다.

어느새 자전거와 거리가 벌어진 왜헌병이 개천을 가로지른 조그마한 다리를 건너 소공동을 지나고있을 때였다.

돌연히 길섶의 어느 으슥그린 처마밑에서 시커먼 그림자 하나가 튀여나와 앞을 가로막아나서는것이 아닌가.

두억시니같은 그 모양에 기겁했던지 달려오던 말이 멈춰서느라 앞굽을 껑충 쳐들며 새된 소리를 질렀다. 그바람에 하마트면 휘뿌려질번 했던 왜헌병이 악에 받쳐 고함을 쳤다.

《곤칙쇼!(이 새끼!)》

다음순간 되알진 총소리가 울렸다.

왜헌병이 외마디비명을 토하며 말잔등에서 곤두박질했다. 이 골목, 저 골목에서 개짖는 소리들이 터져나왔다. 놀란 말이 대가리를 돌려 반대방향으로 냅다 네굽을 놓았다.

그 서슬에 뒤늦게 쫓아오던 양복쟁이의 자전거도 어쩔새없이

나딩굴고말았다.

눈깜빡할 사이에 벌어진 일이였다.

시커먼 그림자가 길바닥에 어푸러져 비명을 치는 양복쟁이에게로 씨엉씨엉 다가갔다.

끙끙거리며 머리를 쳐들던 양복쟁이는 두억시니의 손에 쥐여진 권총을 보자 화들짝 놀랐다. 흙먼지가 게발린 양복쟁이의 입이 경련하듯 일그러지더니 혀굳은 소리가 가까스로 새여나왔다.

《다, 당신은 누구요?…》

그럴 때 이지러진 달이 구름속에서 불쑥 얼굴을 내밀었다. 별안간 주위가 환해지며 시커먼 그림자의 형체가 달빛에 드러났다.

조선군복을 입은 의기당당한 사나이가 가슴을 떡 벌린채 우뚝 서있었다.

쇠장대를 가로지른것 같은 든든한 어깨며 무쇠기둥마냥 뻗지르고 서있는 두다리에서는 단숨에 소도 메칠만치 기력이 넘쳐흐르는데 깊숙이 눌러쓴 군모밑에서 부리부리한 두눈이 시퍼렇게 이글거리고있었다.

《김참위가?!…》

양복쟁이의 입에서 비명처럼 터져나온 소리였다.

거의 동시에 군복을 입은 사나이도 입속으로 부르짖었다.

《네놈이?!…》

좁다란 얼굴에 반들거리는 쥐눈, 밤송이같은 수염이 돋아난 뾰족한 아래턱…

사나이의 권총이 부르르 떨리며 양복쟁이의 대갈통을 겨눈다. 양복쟁이의 쥐눈이 희뜩 뒤집혀버렸다.

그자는 사나이의 발치에 엎어진채 사지를 와들와들 떨며 비린 청으로 손이야 발이야 애걸복걸했다.

《제발 목숨만… 목숨만… 나야 같은 조, 조선사람 아니요. …》

역스럽게 그 꼴을 노려보던 사나이가 이윽고 권총을 내리우며 조용히 내뱉았다.

《너절한 놈, 썩 사라져라!》

양복쟁이는 선뜻 믿어지지 않는지 사나이의 동정을 흘끔흘끔 살폈다. 그러다가 고개를 재게 조아리며 노죽을 떠는것이였다.

《고맙소이다. 정말 고맙소이다. …》

그자는 사나이의 권총에서 눈길을 떼지 못한채 엉금엉금 네발걸음으로 기여 길섶에 물러났다.

얼이 나가 헤덤비는통에 모자와 신발 한짝이 벗겨졌건만 양복쟁이는 주을념도 못하고 그냥 옆골목으로 꽁지가 빠지게 줄행랑을 치고말았다.

대한문쪽에서 어수선한 소리가 들려왔다. 하긴 예까지 엎디면 코닿을 거리이니 왜놈들이 낌새를 못 챘을리 없었다.

사나이의 눈빛이 긴장해졌다.

다급히 너부러진 왜헌병에게로 다가간 사나이는 한쪽에 나동그라진 보꾸레미를 집어들고 나타날 때와 같이 소리없이 어둠속으로 사라져버렸다.

2

그 시각 고종황제는 경운궁의 침전인 함녕전 앞뜰에 나와있었다.

《어찌되였느뇨?》

박상궁이 다가오자 고종이 소리를 죽여 묻는 말이였다. 박상궁은 망설이다가 송구한 어조로 아뢌다.

《상감마마, 아직 행방을 찾지 못하였사옵니다.》

고종의 입에서 가슴을 후벼내는듯 한 기침소리가 터졌다. 박상궁은 황급히 상감의 등을 어루쓸며 어찌할바를 몰라했다.

《상감마마, 부디 옥체를 보중하시옵소서. 곧 전의를 부르겠사옵니다.》

허나 상감은 귀찮다는듯 손을 내젓는다. 얼마후 기침이 좀 가라앉자 고종은 구름덮인 밤하늘을 쳐다보며 괴롭게 탄식하는것이였다.

《아, 이를 어이할고—》

박상궁이 안절부절 못하며 상감에게 여쭈었다.

《상감마마, 믿을만 한 줄을 놓아 계속 행방을 탐문하고있사옵니다. 너무 상심하지 마시옵소서.》

그러는 박상궁에게 고종은 떨리는 목소리로 당부했다.

《조심하거라. 통감부에서 벼르고있을터인데.》

《네, 듣자왔습니다.》

박상궁이 발끝을 저겨디디며 물러갔다.

뜰안에 홀로 남은 고종은 뒤숭숭한 상념에 휩싸여 다시금 서

성대기 시작하였다. 바위마냥 무겁게 짓누르는 불안과 근심을 물리칠 길이 없었던것이다.

몇시간전 어둠이 풍그렇하니 깃들었을무렵이였다.

황제의 침전인 함녕전근처의 행각에서 난데없는 화재가 일어났다.

몇해전에도 함녕전에서 일어난 화재로 대궐의 대부분이 불타버린적이 있던지라 고종은 사색이 되여 직접 뜰에까지 나가 아래것들을 몰아댔다. 내시들이며 궁녀들과 무수리들이 달려오는 바람에 다행히 불은 제때에 끌수 있었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고종이 침전에 돌아와보니 보료우의 사방침이 마구 찢겨 딩굴고있는것이 아닌가.

그 광경을 보는 순간 확하고 목구멍이 달아올랐다.

무엄하게도 임금의 물건을 릉멸했다는 격노때문만이 아니였다. 어떤자가 복새통을 틈타 사방침속에 숨겨두었던 황제의 옥새를 훔쳐간것이다.

온몸이 자기의 육신같지 않게 화들화들 떨려왔다.

옥새를 훔치다니. 그러니 급작스레 일어난 화재도 황제와 궁인들의 이목을 허튼데로 꾀여내기 위한 흉책이였단 말이지.

대관절 어느 릉지처참할자가 이런짓을 했는가.

당장에 신하들을 불러들여 옥새를 찾아내라 불호령을 치고싶었다. 허지만 그럴래야 그럴수 없으니 어이하면 좋단 말인가.

고종은 벙어리 랭가슴 앓듯 하면서도 지밀나인인 박상궁외에는 누구에게도 사실을 터놓을수가 없었다. 그럴만한 까닭이 있었다.

《을사5조약》을 날조해내자마자 일본이 눈에 칼을 세우고 달라붙은 일은 《대한국새》며 《황제지새》 등 고종황제의 옥새를

저들의 통제밑에 두는것이였다.

외교문서와 국내문서에 찍는 옥새부터 철저히 장악하여야 황제를 명실공히 바지저고리로 만들고 이 나라의 모든 실권을 완전히 틀어쥘수 있었기때문이였다.

어쩔수없이 고종은 일본에 옥새마저 빼앗기고말았다.

옥새라는것이 무엇인가. 왕권의 상징이 아닌가.

옥새를 손에 넣으면 왕이 되고 빼앗기면 옥좌에서 물러나야 하였기에 예로부터 옥새를 넘겨받아 왕위를 계승하였고 적국에 굴복하여 나라를 내주는 군주도 옥새를 바쳐 항복을 표시하지 않았던가.

하거늘 옥새를 빼앗긴 고종이야말로 허재비와 다를바없는 임금아닌 임금이였다.

그러나 지독한 왜놈들도 미처 셈하지 못한것이 있었으니 고종에게는 《황제어새》라는 또 다른 옥새가 있었던것이다.

《을사5조약》이 날조되기 전 일본의 조선강탈야망이 각일각 로골화되는 급박한 사태속에서 고종황제가 밀서와 밀지에 찍기 위해 은밀히 마련한 비밀옥새가 다름아닌 황제어새였다.

극비를 유지해야 하는 문서에만 찍혔기때문에 황제어새의 존재에 대하여서는 불과 몇사람만이 알고있었고 지어 명성황후를 잃은 뒤 고종이 계비로 맞은 엄비조차 모르고있었다.

일본의 마수로부터 사직과 옥좌를 지켜내기 위해 외로이 몸부림쳐온 고종이였다.

무정한 렬강들에게 밀서를 보내여 조선의 독립을 수호해달라고 눈물겹게 애원하기도 하고 임금을 저버리지 않은 신하들에게 밀지를 보내기도 하면서 그는 얼마나 처절하게 모지름을 써왔던가.

고종황제의 피눈물과 몸부림으로 씌여진 그 모든 밀서와 밀지

들에는 하나같이 황제어새가 찍혀있었으니 실로 왜적들에게 모든 것을 빼앗기고 빈이름만 남은 고종에게 있어서 황제어새는 자신이 이 나라의 군주임을 확인하는 마지막이자 유일한 증거가 아니였던가.

헌데 겨우 붙어있는 한가닥 숨줄과도 같은 그 물건을 감히 황제의 침전에까지 기여들어와 훔쳐가다니. …

생각할수록 억장이 무너져와 고종은 부글대는 가슴을 부여안고 뜰안을 정신없이 서성거렸다.

구태여 캐보지 않아도 왜인들의 작간이라는것은 삼척동자도 짐작할 일이였다.

통감부라는게 생겨난 뒤 황제의 일거일동에 더욱더 눈과 귀를 도사려온 그네들이니 고종이 자기가 좀처럼 떨어질줄 모르는 사방침속에 비밀옥새를 숨겨두었건만 어느 틈에 기미를 챈게 헨둥하였다. 그렇다고 왜인들이 직접 나서지는 않았을게고 모름지기 대궐안의 끄나불을 추겼을터인데 대체 그게 어떤자일가?

매일같이 궁안에서 마주치는 얼굴들을 황황히 더듬어보던 고종은 이내 도리질을 치고말았다.

과연 황제결에 믿을수 있는자가 몇이나 되랴 하는 생각에 저도 모르게 설음이 치밀어올랐다.

문득 황실의 종친으로 궁내부대신을 하는 리재극의 일이 되살아났다.

언제인가 리재극이 일본공사관에서 열린 왜왕의 생일잔치에 가서 《덴노헤이까 반자이.》(《천황》폐하 만세.)를 불렀다는 말을 들은적이 있었다.

하도 어이가 없어 그를 부른 고종이 신하는 제 나라 군주에게만 만세를 부르는 법도도 모르느냐고 꾸지람하자 리재극이 둘러

댄 변명이라는게 참 가관이다. 자기는 반자이라고 했지 만세라 하지는 않았다나. …

꼭뒤에 부은 물이 발뒤꿈치로 흐른다고 종친이라는자가 제 임금알기를 그처럼 우습게 아는데 다른 신하들이나 종복들이야 더 말해 무엇하랴.

대신들은 대신들대로, 궁녀들이나 내시들은 또 그들대로 앉으나서나 통감부의 눈치보기에만 여념이 없으니 새삼스레 그들가운데 누가 통감부의 끄나불이냐를 따질것도 못되는 형편이였다.

기막히도다, 정녕 이 나라의 주인이 통감인가 황제인가.

고종의 눈앞에 이등박문의 표독한 가시눈이 소름끼치게 다가왔다.

필경 이 나라의 주인은 통감인 이등이였다.

이 땅의 모든것이 지어 황제인 자기의 운명까지도 이등의 손아귀에 꼼짝없이 쥐여져있으니 이등이야말로 이 나라의 진짜황제인것이다.

리완용 같은 역신들이 황제를 꾸어온 보리자루처럼 업신여기며 제멋대로 날쳐대게 부추기는자도 이등이고 《궁금령》이라는것을 강요하여 일본경찰들로 황궁을 봉쇄하고 황제를 연금상태에 몰아넣은 장본인도 바로 이등이라는것을 고종은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그렇듯 통감자리에 틀고앉은 첫날부터 황제의 손발을 동여매기 위해 한사코 기승을 부려온 이등일진대 비밀옥새의 존재를 눈치챈것이 분명한 지금에 와서 더더욱 독기를 부릴것은 의심할 바 없었다.

고종은 무거운 한숨을 몰아쉬였다.

이등의 독살에 시달릴 일도 끔찍했지만 그보다 더 마음을 불

안하게 하는것이 있었던것이다.

머지않아 네데를란드의 헤그에서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가 열리게 된다.

일본에 국권을 떼운 뒤 기회만 있으면 큰 나라들에 약소국의 억울함을 하소하는 밀서를 보내군 하여온 고종황제에게 있어서 만국평화회의는 《을사5조약》의 불법성과 일본의 강도적본성을 만천하에 고발하고 렬강들의 힘을 빌어 국권을 회복하기 위한 절호의 기회가 아닐수 없었다.

나라의 비운을 통탄하는 애국지사들도 어떻게 하나 헤그회의에 대표를 보내야 한다고 황제에게 열렬히 상주해왔다.

고종은 통감부의 살벌한 감시를 피해가며 조심스럽게 헤그에 밀사를 파견할 준비를 진척시키도록 하였었다.

작년에 미국인 헐버트를 황제의 특사로 임명하여 헤그밀사들을 지원하는 사전공작을 펼치도록 하였고 정사(대표)로 선정한 전 의정부 참찬 리상설도 이미 해외로 나간 상태였다. 다만 부사(부대표)인 전 평리원 검사 리준이 현재 한성(서울)에 남아 밀사들이 지니고 갈 황제의 신임장을 기다리고있는중이였다.

이등의 엄격한 통제속에서 궁중비용도 마음대로 사용할수 없는 처지인지라 밀사들의 려비를 마련하는것조차 수월치 않았으나 지사들의 피끓는 애국충정과 고종의 끈덕진 집념으로 준비는 그럭저럭 이루어져왔다.

남은것은 기회를 보아 황제의 신임장을 작성하여 내려보내는 것뿐이였는데 그런 대목에 와서 홀지에 옥새가 사라져버린것이다.

참으로 간이 마르는노릇이였다.

옥새를 찍지 못한 황제의 신임장이 무슨 소용있으며 황제의 신

임장없는 밀사들의 말을 누가 들어주겠는가.

국권회복의 마지막기회마저 놓쳐버린다고 생각하니 고종은 가슴이 무너져와 견딜수가 없었다.

왕권이 시퍼렇게 살아있던 시절 같으면 즉시에 옥새를 새로 만들라 벼락을 떨구고도 남았을것이다.

하지만 모든 실권을 통감부에 빼앗긴채 늘 살얼음판을 밟아야 하는 지금의 처지에서 번거로운 과정과 많은 품이 요구되는 옥새제작을 왜인들 모르게 한다는것은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 아닌가.

또다시 기침이 터져나왔다. 숨이 넘어갈듯 고통스럽게 곤두기침을 짖던 고종은 한동안이 지나서야 식은땀을 훔치며 고개를 쳐들었다.

밤하늘에서는 이지러진 달이 조난당한 쪽배마냥 구름속에 잠겼다가는 솟아나군 하면서 힘겨이 떠가고있었다. 수염발을 흩날리는 쌀쌀한 밤바람에 마음마저 베이는것 같다.

어딘가에서 개들이 자발스레 짖어댔다. 대한문쪽이 소란스럽더니 오래지 않아 잠잠해지고말았다.

멍청히 그쪽을 바라보던 고종의 눈길이 어느 한 곳에 붙박힌채 움직일줄을 모른다.

대한문 맞은켠의 소공동쪽에서 고깔모양의 유별난 지붕이 어슴푸레한 달빛에 반사되여 누렇게 비쳐오고있었다.

황제가 하늘땅에 제사를 지내는 제단인 원구단이였다.

서리맞은 호박잎처럼 생기가 없는 그 모양을 바라보느라니 지나간 일이 쓸쓸하게 떠올랐다.

그때가 정유년(1897년) 10월이였던가.

차가운 가을비가 내리던 그날 새벽 고종은 원구단에 나가 자신이 황제로 즉위한다는 사실을 하늘에 알리는 고천지제를 올

렸었다.

경운궁에서 원구단에 이르는 길 좌우로 총검을 추켜들고 엄엄히 늘어섰던 군사들, 호화로운 례복차림으로 떨쳐나섰던 만조백관들과 잡인의 왕래를 금하여 연도에 위엄스레 쳤던 휘장들… 임금이 입고있는 곤룡포며 타고있는 가마도, 나붓기던 의장기들도 온통 황제를 상징하는 황금빛으로 번쩍거리고있었다.

먼 옛적부터 하늘의 자손임을 자부한 이 땅의 선조들은 해마다 동맹과 영고, 무천 같은 제천의식을 열어 하늘에 제를 지내군 하였건만 조선봉건왕조는 큰 나라의 천자만이 하늘에 제사를 지낼수 있다는 사대의 쇠사슬에 얽매여 500여년세월 감히 하늘을 쳐다볼 엄두조차 내보지 못하였었다.

바야흐로 사대교린의 한가한 외교로는 약육강식의 각축장으로 화한 국제무대에서 더이상 살아남을수 없는 시대가 도래하였다.

하여 자주독립을 절규하는 겨레의 열망과 시대의 엄혹한 흐름에 떠밀리운 고종은 길지를 골라 황금빛지붕의 제단을 쌓도록 하고 왕조가 세워져 처음으로 하늘에 제를 올려 이 나라가 자주국임을 만방에 선언하였던것이다.

허나 왕으로 불리우던 자기가 황제로 불리우는 경사의 날이였건만 그날따라 고종의 심사는 왜 그리도 울적했던지.

40명이 메는 화려한 대련을 마다하고 4명이 메는 소련을 타겠다고 화를 내며 출발을 지연시켰는가 하면 원구단으로 가는 도중 어느 대신이 말에서 떨어지는 불상사까지 겹쳐 고종의 한숨은 더욱 늘었었다.

선왕대대로 물려온 사대의 유습을 거역한다는 불안감때문이였던가, 아니면 자주독립을 이룩할 아무런 실력도 없이 지렁이가 룡 흉내내듯 허울만 요란스레 바꾸었을따름이라는 렬등감때문이

였던가.

그때가 엊그제 같은데 벌써 만 10년이 되여온다.

(그런즉 경운궁에 옮겨온지도 10년이 되였단 말이지. …)

입속으로 이렇게 중얼거리며 어둠속에 잠긴 궁을 둘러보는 고종의 얼굴에 추연한 빛이 서리였다.

다난한 세월이였다.

렬강들의 틈바구니에서 약소국의 설음을 고스란히 씹어야만 했던 굴욕과 비탄의 10년이였다.

일본의 독수를 피해 로씨야공사관에 1년나마 피신해있던 고종황제가 온 나라의 들끓는 비난에 못이겨 환궁을 결심하던무렵만 해도 경운궁일대는 무수한 빈민굴과 황량한 밭고랑이 태반이였다.

원래 이곳에는 성종(조선봉건왕조의 9대왕)의 형인 월산대군의 집이 있었는데 임진왜란때 의주로 피난갔던 선조(조선봉건왕조의 14대왕)가 돌아와 그 집을 림시거처로 사용하면서 궁으로 불리우게 되였고 이곳에서 즉위한 광해군(조선봉건왕조의 15대왕)이 창덕궁으로 옮겨가면서 경운궁이라는 궁호를 붙여주었다.

그러던 곳이 임금들의 관심에서 점점 멀어져 궁궐다운 건물도 없는 황폐한 곳으로 퇴락하고말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은 궁궐로서의 체모를 당당히 갖춘 경복궁이 아니라 폐허와도 같은 경운궁으로 자리를 옮겼다.

안해가 왜놈들에게 무참히 살해당한 장소에, 자신의 신변안전도 담보할수 없는 경복궁에 다시는 발을 들여놓고싶지 않았던것이다.

고종은 경운궁에 들어앉아 서양세력과 근거리외교를 펼치면서 그들의 힘을 빌어 일본의 압박을 견제할 속심이였다.

갑신정변이 일어나기 전해에 미국공사관이 들어선것을 시작으로 영국, 로씨야, 프랑스, 도이칠란드 등 각국의 공사관들이 련이어 들어서면서 경운궁일대의 정동은 조선에서 치렬한 리익쟁탈전을 벌리고있던 서양세력의 주요거점으로 변모되고있었다.

고종은 유미렬강의 공사관들이 울타리처럼 둘러선 경운궁에 자리를 잡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아 여차하면 몸을 피할수 있게 외국공사관들과 다리를 련결하도록 하였고 제 나라 병정들은 믿을수가 없어 서양인호위병들을 두려고 각방으로 노력하였다.

한편 기울어진 국운을 다시 일으키고저 나라이름을 바꾸고 황제로 즉위한 고종은 경운궁에 전각들을 새로 갖추고 외국인들을 접견할 서양식건물을 짓도록 하였으며 높다란 옥좌대신 보통의자에 앉아 외교사절들을 맞이하는 등 개명군주의 모습을 보이려고 왼심을 쓰기도 하였다.

그런가 하면 정동의 손탁호텔에 자주 드나들면서 서양외교관들과 긴밀히 련계하고있어 이른바 《정동파》로 불리우던 친미, 친로인사들을 적극 후원해주었다.

이 땅을 놓고 밀고당기는 렬강들의 톱질흥정은 음험하고 무자비하였다.

일본은 조선에서 청국을 밀어낸 뒤 주되는 경쟁자로 등장한 로씨야와 당분간 정면충돌을 피한채 미국과 영국에 접근하면서 최후의 결전을 준비하고있었고 미국과 영국은 로씨야의 극동진출을 막기 위해 일본의 등을 밀어주고있었다.

로씨야는 또 로씨야대로 고종의 보호자연하면서도 정작 돌아앉아서는 조선의 장래를 저울판에 올려놓고 일본과 흥정을 벌려놓고있었다.

그런줄도 모르고 고종황제는 큰 나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해

나라의 귀중한 리권들을 떼여주고 온갖 환대를 베풀면서 사대외교에 골몰하였다.

이런 일도 있었다. 고종이 황제로 즉위한 이듬해에 도이췰란드 황제의 동생 하인리히가 조선에 들린적이 있었다.

청일전쟁후 로씨야며 프랑스와 함께 《3국간섭》을 들이댐으로써 일본이 료동반도를 포기하지 않으면 안되게 한 도이췰란드에 대하여 고종은 환상을 품고있었고 그런것으로 하여 도이췰란드 황제를 보호자로 삼아 일본의 전횡을 저지할수 있기를 희망하며 하인리히를 최고의 국빈으로 례우하도록 하였었다.

그런데 그 대가로 고종이 받은것이란 하인리히가 떠나면서 답례로 남기고 간 뻐꾸기시계 하나뿐이였다. 그런 시계는 그무렵 도이췰란드의 어느 농가에나 흔하게 걸려있던 눅거리물건이였다.

그 일을 두고 약소국이라 업신여겼다고 분개하는 목소리들이 많았지만 어떻든 렬강들의 힘을 빌어 옥좌를 지키고 국권을 유지하는데만 급급하던 고종으로서는 서러워도 어쩔 도리가 없는 일이였다.

로일전쟁에서 로씨야를 이기고 동아시아의 패권을 잡은 일본은 얼음에 박밀듯 《을사5조약》을 날조하여 이 나라의 국권을 가차없이 박탈했다.

고종황제는 피눈물을 흘리며 큰 나라들에 하소연하고 또 하소연했다.

총칼의 위협아래 강요된 조약에 자기는 동의한적이 없으며 금후에도 절대로 아니할것이라고, 억울하게 빼앗긴 국권을 되찾아 달라고 간절히 애원하고 또 애원했다.

그러나 고종의 피타는 그 호소는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올 뿐이였다.

한때는 저마다 약소국의 보호자로 자처해나서면서 살이라도 뭉청뭉청 베여줄것처럼 갖은 감언리설을 아낌없이 늘어놓던 렬강들이 아닌가.

헌데 막상 약소국이 망국의 수렁속에 빠져 구원을 청하니 누구 하나 들은체도 안했고 한오래기의 지푸래기조차 내밀념을 않는것이였다.

고종은 몸서리치게 박정하고 랭혹한 렬강들의 진면모앞에 가슴을 두드리며 한탄했다. 그중에서도 그를 더욱 당혹케 한것은 미국의 돌변한 모습이였다.

사실 렬강들가운데서 고종이 제일 믿고 의지했던 나라가 미국이였다.

그렇게 된데는 미국을 남의 백성과 토지를 탐내지 않는 부유한 나라로, 신의를 중시하고 외국과 체결한 조약을 엄수하는 《모범적인 문명개화국》으로 극구 찬양한 친미파의 영향도 적지 않았지만 보다는 고종자신이 미국과 맺은 조약에 상당한 희망을 걸었던탓이였다.

미국이 봉건조선의 문호를 개방시키면서 체결한 《조미조약》에는 류다른 조항이 박혀있었으니 그것은 바로 다른 나라가 조약국의 어느 한 나라에 대하여 멸시하거나 불법행위를 할 때에는 반드시 서로 돕는다는 제1조의 항목이였다.

빛좋은 개살구같은 미국의 외교적수식사에 생소했던 고종은 그 조항을 미국이 안겨준 큰 선물로 받아들였다.

고종은 그 조항에 근거하여 미국이 이 땅에서 렬강들의 횡포를 견제하는 조정자가 되여줄것으로 크게 기대하였고 지어 미국과 공수동맹이라도 맺은것처럼 허망한 몽상에 부풀어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다른 렬강들과는 달리 조선에 대해 령토적인 야

심을 보이지 않는데다 바다를 사이에 두고 수만리 떨어져있음에도 약소국이 릉멸을 당하면 힘을 다해 돕겠다고 약속한 미국이야말로 선의로 가득찬 《서양대인》의 나라요, 신의가 두터운 대국임이 분명하였다.

따지고보면 미국의 겉모습이 고종의 눈에 그렇게 비쳐올수 있은것은 그들에게 령토적야욕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 시기 미국의 관심이 다른 곳에 쏠려있었기때문이였다.

당시 력사상 최초의 제국주의전쟁으로 기록된 미국—에스빠냐전쟁에서 라틴아메리카와 태평양의 에스빠냐식민지들을 탈취한 미국은 그 일대를 저들의 세력권으로 굳히는데 몰두하느라 다른 분쟁들에는 될수록 말려들지 않으려고 노력하고있었다.

미국의 그러한 정책의 본질을 뚜렷이 드러낸것이 필리핀에 대한 저들의 통치권을 인정받는 대신 일본의 조선통치에 동의한 《가쯔라—타프트협정》이였던것이다.

하건만 미국이라는 나라의 제국주의적본성과 국제정치의 가혹한 리면에 너무도 어두웠던 고종은 한성에 부임해온 초대미국공사를 최대로 환대하고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미국공사에게 자문하였는가 하면 미국인고문을 초빙한다, 리권들을 양도한다 하며 미국과의 관계를 두터이 하기 위해 허다한 품을 들이였다.

그처럼 든든히 믿어왔던 미국이 결정적인 시각에 와서 손바닥뒤집듯 태도를 바꿀줄이야.

로일전쟁에서 일본의 승세가 확연해지자 초조해난 고종과 중신들은 《조미조약》의 문구를 곱씹어 외우며 일본의 감시를 피해 미국에 밀사를 파견했다.

로씨야와 일본사이의 포츠머스강화담판에서 조선의 독립이 보장되도록 영향력을 행사해줄것을 담판의 중재자로 나선 미국대통

령 루즈벨트에게 청원하기 위해서였다.

밀사가 제출한 청원서를 받아든 루즈벨트는 공식외교경로로 청원서가 들어오면 강화담판에 의제로 제출하겠노라고 약속했다.

밀사는 속으로 환성을 올리며 루즈벨트의 말대로 청원서를 주미조선공사관에 들고 갔다.

허나 때이른 환성이였다. 친일파가 장악하고있던 주미공사관에서는 본국으로부터 정식훈령이 없다는 구실로 청원서를 접수하는것조차 거절한것이다.

그로부터 얼마후 루즈벨트의 중재하에 조선에 대한 일본의 독점권을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포츠머스강화조약》이 체결되고 루즈벨트자신이 직접 나서서 일본이 조선의 외교권을 인수하는것에 대해 이의가 없다고 발표했다.

결국 루즈벨트는 일본과 짜고 어리숙한 조선봉건정부를 보기좋게 롱락한셈이였다.

미국을 신주 믿듯 맹신해온 고종으로서는 어안이 벙벙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수 있단 말인가.

《조미조약》을 맺은 뒤 대통령까지 연설을 통하여 만약 외국이 조선의 권리를 침해할 경우 힘껏 보호하여 영원히 우호를 돈독히 할것이라고 선언한 미국이 아닌가. 의로움과 신의를 목숨처럼 여긴다는 미국이 아닌가.

아니, 결코 그것은 미국의 본심이 아닐것이다. 전란을 끝장내고 화평을 이루자니 사세부득이 승자인 일본의 요구를 어느 정도 받아들여야만 했을테지.

(아무렴, 미국은 우리에게 확약한바가 있거늘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 나라를 버리지 않을게야.)

고종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되뇌이며 미국에 대한 믿음을 거두려 하지 않았다.

하기에 《포츠머스강화조약》이 체결된지 며칠후 루즈벨트의 큰딸일행이 유람차로 한성에 들리자 고종황제는 풀이 죽어있던 속에서도 황태자(순종)와 함께 오찬까지 마련하며 어떻게든 미국의 도움을 얻어보려고 안깐힘을 다했던것이다.

조선에 머무르는 열흘간 미국대통령의 큰딸일행이 얼마나 부산스러운 환대를 받았으면 후날 그 일을 돌이켜보며 《지겨울 정도였다.》고까지 고백했으랴.

민망한 모습이였다. 나라가 사대에만 매달려 허둥거리면 그 지경에까지 떨어지는 모양이다.

만일 그때 고종이 루즈벨트의 조종밑에 미륙군장관 타프트와 일본수상 가쯔라가 조선을 두고 벌린 흥정판을 알았더라면 그 심경이 어떠했을가.

그렇듯 처절하게 몸부림쳤건만 끝끝내 국권상실의 비극은 닥쳐오고야말았다.

고종은 또다시 오래전부터 신뢰하여온 헐버트에게 일본의 불법무도한 죄행을 고발하고 미국의 도움을 청하는 밀서를 주어보냈으나 워싱톤의 정계에서 헐버트가 받은것은 랭대뿐이였다.

하지만 이미 휴지장이 되여버린 《조미조약》에 여전히 미련을 품고있던 고종은 그후에도 거듭 미국에 구원을 간청하였다. 그런데 미국의 대답은 어떤것이였던가.

《을사5조약》이 공포되자 한성에서 제일먼저 공사관을 철수시킨 나라는 다름아닌 미국이였다. 서양국가들중 조선과 가장 먼저 국교를 맺은 미국이 가장 먼저 국교를 단절한것이다.

자국의 훈령에 따라 주재국정부에 고별의 인사 한마디 없이 서

둘러 떠나던 미국공사관일행의 모습에 대해 그들자신도 《침몰하는 배에서 황급히 도망치는 쥐떼같은 모습이였다.》고, 《아직 장례식도 끝나지 않은 관에 못질하는것》이였다고밖에 달리 표현할수가 없었다.

외국공사관들이 모두 철수해버린 정동은 밀물이 빠지고난 개가처럼 을씨년스럽기 짝이 없었다.

경운궁의 담너머로 그 살풍경을 바라보면서 고종은 세상 한끝에 홀로 내버려진듯 한 절망의 나락에 빠져 남모르게 슬피 통곡하였다.

아, 이것이 정녕 약소국의 피할 길 없는 숙명이던가!…

눈구석이 축축해왔다. 그제서야 고종황제는 자기가 그날처럼 소리없이 울고있다는것을 깨달았다.

고종은 누가 볼가 저어하며 슬며시 눈물을 훔쳤다.

구름틈사리로 얼룩진 달이 간신히 얼굴을 내밀었다. 으스름한 달빛이 대궐의 뜰안을 쓸쓸하게 얼비친다.

저도 모르게 고종의 입에서 처량한 시조가 흘러나왔다.

추강에 밤이 드니 물결이 차노매라
낚시 드리워도 고기 아니 무노매라
무심한 달빛만 싣고 빈배 홀로 오노매라

그 옛날 월산대군이 지었다는 시조였다.

시에 기대여 인생의 시름을 삭이며 살다 간 월산대군, 왕위에 오르게 되여있었건만 간신들의 롱간으로 오르지 못한 그를 두고 사람들은 비운의 왕손이라고 측은해하지만 그 시각 고종에게는 월산대군이 오히려 자기보다 낫게 여겨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자신도 월산대군처럼 소란스러운 현실을 떠나 호수가에 은둔하여 풍월이나 읊조리며 세월을 보낼수만 있다면 좋으련만.

담약하고 내성적인 고종이였다.

항상 누군가에게 의지해온탓일가. 어린 나이에 왕이 되여서는 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의 섭정에 의지했고 그후로는 안해인 명성황후가 아버지를 대신했다.

그리고 명성황후가 세상을 떠난 이후에는 무당이나 점쟁이에게 의지해왔고…

그러한 고종이 격변하는 시대의 한복판에서 구새먹고 고삭은 사직을 지탱하자니 얼마나 힘에 버거웠으랴.

과도한데는 있었어도 일단 칼을 뽑으면 주저함이 없었던 아버지의 과단력이 부러웠다. 민첩한 총기와 림시변통의 기지로 임금이 할바를 귀띔해주던 안해의 조언이 사무치게 그리워지군 하는 고종이였다.

그 안해가 곁에 있었더라면 이렇게 앞이 캄캄한 때 무슨 말을 해주었을가?

고종의 생각은 다시금 숨막히게 답답한 현실을 헤매기 시작하였다.

이대로 가면 오래지 않아 나라가 아주 망할것은 불보듯 뻔했다.

과연 이제 와서 렬강들이 구원의 손길을 내밀어줄가?

국권을 잃고 그토록 피마르게 도움을 청했건만 여태 동정의 눈길 한번 던진적 없는 그들이 아닌가.

그러나 어이하랴.

스스로 운신할 힘조차 없는 약소국이니 큰 나라들을 쳐다보는것 말고는 달리 뾰족한 수가 없는데야.

고뇌에 허덕이던 고종의 뇌리에 문득 을미사변후의 광경들이

떠올랐다.

공포에 시달리는 자기를 지켜 권총을 든채 밤새껏 침전을 지키던 헐버트며 미국선교사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독살이 두려워 눈앞에서 딴 련유통졸임이나 생닭알만 입에 대는 자기를 위해 매일 샌드위치를 만들어야 했던 서양녀인들이 떠올랐다.

그래, 죽어 조선땅에 묻히고싶다고 외우던 헐버트 같은 양인들이 있는 한 아직 한가닥의 희망은 남아있는게 아닌가.

비록 미국이나 영국, 아라사 같은 대국들이 전번에는 부득이하여 이 나라의 외교권을 일본에 넘기는데 동의했지만 설마하니 일본이 이 나라를 통채로 삼키는것까지야 용인할라구.

렬강들이 한데 모이는 헤그회의에 참가하여 국제적물의를 일으키고 큰 나라들의 동정과 지지를 이끌어내기만 한다면야 일본도 서뿔리 날칠수가 없을테지.

헌데 어찌할고. 아무쪼록 헤그에 밀사를 보내야 할텐데 옥새를 잃었으니 이를 어찌할고…

또다시 가슴이 무너져왔다.

고종은 막막한 밤하늘을 쳐다보며 한숨만 내뿜었다. 그러는데 뒤에서 박상궁의 근심겨운 목소리가 들려온다.

《상감마마, 밤이 쌀쌀하옵니다. 어서 안으로 듭시옵소서.》

고종은 버럭 역정을 내였다.

《왜 이리 성화냐!》

박상궁에게라기보다 무력한 자신에게 터뜨리는 상감의 맥빠진 노기였다.

화를 내고보니 허무한 생각이 들었다. 그래도 이런 때 황제를 곁에서 걱정해주는 사람이라고는 기껏해서 박상궁밖에 더 있는가.

고종황제는 긴숨을 내긋고나서 지친 어조로 중얼거렸다.

《그만 들어가자.》

그리고는 박상궁의 부축을 받으며 허청허청 침전으로 들어갔다.

3

남대문근처의 상동교회 지하실에서는 벌써 몇시간째 두 사나이가 누군가를 초조히 기다리고있었다.

둘중 년장자로 보이는 한 사나이는 양복을 입고있었는데 두드러진 넓은 이마아래 불덩이같은 눈망울을 굴리며 연신 방안을 왔다갔다하고있었다.

그런가 하면 강파르고 길쑴한 얼굴의 다른 사나이는 두루마기를 입고있었는데 두눈을 지그시 감고 앉아 돌부처인양 움쩍않고있었다.

《뗑, 뗑…》

벽시계가 자정을 알리며 열두점을 친다. 그 종소리는 조바심과 위구심에 매삼치는 두 사나이의 신경을 아츠럽게 두드렸다.

양복을 입은 사나이가 못 견디겠던지 주먹으로 이마를 문다지며 골을 냈다.

《원 이런 답답한 송사라구야. 혹시 일이 잘못되기라도…》

사나이는 말끝을 여물구지 못했다. 두루마기를 입은 사나이의 눈시울이 들리우더니 우묵한 눈확에서 범상치 않은 눈빛이 번뜩이였던것이다.

허나 그것은 잠시뿐, 두루마기는 다시 눈을 내리감으며 태연

히 이르는것이였다.

《좀더 기다려봅시다, 청하형.》

그러는 모양을 어이없이 바라보며 양복입은 사나이는 쓴입만 다셨다.

《참, 운강선생은 태평도 하시구려.》

청하란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로 가게 되여있는 리준의 호였고 운강은 《대한매일신보》 총무인 량기탁의 호였다.

그무렵 상동교회의 지하실은 애국지사들의 사랑방과도 같은 곳이였다.

나라의 운명을 걱정하는 뜻있는 사람들이 수시로 이곳에 비밀리에 모여 시국을 론했고 지방에서 온 지사들이 제일먼저 찾는 곳도 이곳이였다.

그런 곳에서 당시 국권회복운동의 선두에 서있던 리준과 량기탁이 자정이 넘도록 자리를 못 뜨고있는것은 대체 무엇때문이던가.

바로 그날 낮에 있은 일이였다.

저동에 있는 청화정이란 료리집에 송병준을 위시한 일진회의 두목들이 몰려들어 한바탕 먹자판을 벌려놓았다.

송병준의 왜첩이 운영하는 청화정은 일진회의 소굴로서 주지육림에 빠져 헤여나기 어렵다 해서 흔히 침몰정이라 불리우는 곳이였다. 여느날과 마찬가지로 그날도 술잔들이 어지러이 오가고 취흥에 질벅하여 혀꼬부라진 소리로 왜노래를 질러대던 일진회패거리들은 술자리에서 뜻밖의 극비를 흘리고말았다.

일진회의 끄나불인 대궐의 어느 내시가 밤중으로 임금의 비밀옥새를 빼내오기로 되여있는데 일본헌병대에서 이미 전갈을 받고 대한문으로 급히 헌병을 보냈다는것이 아닌가.

일진회의 동태를 살피기 위해 박아넣은 청화정의 한 사환애가 그 소리를 엿듣고 다급히 량기탁에게로 달려왔다.

량기탁은 금시 혈관의 피가 얼어버리는것만 같았다.

헤그에서 열리는 제2차 만국평화회의에 참가하기 위해 결사의 각오로 준비해온 그들이였다. 꿈을 꾸어도 국권회복의 꿈을 꾸며 회의가 열리기만을 고대해온 그들이 아니였던가.

바야흐로 밀사들이 떠날 시각은 박두해와 황제의 신임장이 떨어지기만을 이제나저제나 기다리고있는 이때 옥새를 빼내다니?!…

헤그회의에 기대를 걸고 지금껏 들여온 그 모든 고심겨운 노력이 한순간에 허사로 돼버릴 판국이였다.

화급해난 량기탁은 헤그에 가야 할 당사자인 리준을 총총히 만났다. 사태가 하도 중대하고 긴박한지라 여러 사람과 론의할 성격이 아니였던것이다.

최선의 방도는 왜놈들과 일진회의 음모를 한시바삐 황제에게 알리는것이였다. 하건만 일본경찰들이 겹겹이 봉쇄하고있는 궁안에 무슨 수로 당장 급보를 들여보낸단 말인가.

그렇다고 이리저리 재며 망설이고있을 시간도 없었다.

량기탁은 리준과 방책을 의논하던 끝에 은밀히 한 사나이를 불렀다.

시위대 참위(소위) 김상건이였다. 그 시기 조선군대는 황궁과 도성을 지키는 중앙군인 시위대와 지방군인 진위대로 나뉘여있었다.

김상건에게 정황을 설명하고난 량기탁은 그의 손을 꽉 붙잡고 절절히 당부했다.

《김참위, 국운이 걸린 일이오. 이 나라의 마지막옥새를 왜놈들에게 빼앗겨선 절대로 안되오.》

김상건은 불이 펄펄 이는 눈으로 량기탁을 바라보다가 말없이 자리를 떴다. 그렇게 떠나간 김참위가 아직까지도 종무소식인것이다.

어찌된걸가? 일진회것들이 헛소리를 쥐친걸가? 아니면 왜놈들의 손에서 옥새를 빼앗아내던중 잘못되기라도 한건 아닌지?…

두부장 끓듯 속을 끓이며 방안을 오가던 리준이 조금이나마 마음을 눅잦혀보려는지 주머니에서 담배곽과 성냥을 꺼내들었다. 담배를 물고 성냥을 그어대는 그의 손끝에 결기가 묻어났다.

그러던 리준은 입에 물었던 담배를 슬며시 뽑고말았다.

온 삼천리에 료원의 불길마냥 타번지고있는 국채보상운동의 앞장에서 침식을 잊고 뛰여다니는 량기탁에게 미안한 생각이 들어서였다.

일본에 진 막대한 빚을 갚고 국권을 회복하겠다며 너도나도 앞을 다투어 의연금을 내고있었다.

남자들은 《단연회》를 뭇고 담배를 끊어 돈을 바쳤고 녀자들은 《감선회》를 뭇고 식찬을 줄여 남은 돈을 바치고있었다. 례장으로 받은 가락지와 비녀를 내놓는 부녀들이 있는가 하면 혼수감을 바치는 처녀들도 있었고 서슴없이 거액의 자금을 기부하는 상인들도 있었다.

부자집의 상노들과 침모들도, 저자의 나물장사며 짚신장사들도 땀에 절은 푼전들을 아낌없이 내놓았고 지어 철부지아이들까지도 산에 가서 나무를 하거나 바다가에 가서 조개를 캐여 판 돈을 나라빚을 갚는데 보태달라고 바치고있었다.

오죽했으면 황제마저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걱정을 하고있는데 무슨 낯으로 가만히 앉아있을수 있겠느냐며 대궐안에 단연령을 내렸겠는가.

《대한매일신보》를 비롯한 진보적인 신문들이 이 운동의 고무자로, 주최자로 나서고있었고 며칠전 국채보상련합회의소의 회장으로 선출된 량기탁은 이 운동의 중심인물로 활동하고있었다.

그래서인지 워낙 위병이 있어 헐끔해보이는 량기탁의 모습은 근래에 와서 더욱 수척해보인다.

리준은 담배곽을 도로 주머니에 밀어넣으며 모두숨을 길게 내쉬였다.

이름없는 아녀자들도 제 나라를 구하려고 그렇듯 눈물겨운 지성을 바치고있는데 동족의 탈을 쓴 저 일진회무리들은 왜적앞에 공을 세우기 위해 나라의 옥새에까지 더러운 손을 대고있으니 이 아니 통탄할 일인가.

하기야 일진회의 우두머리행세를 하는 송병준자체가 조선사람으로서는 최초로 노다 헤이지로라는 왜놈이름으로 《창씨개명》까지 하고 늘쌍 왜옷차림에 장한듯이 《도도이쯔》나 질러대며 싸다니는 반쪽발이이니 무슨 말을 더 할수 있으랴.

그런 추물들이 눈앞에서 날쳐대는 꼴을 보면서도 어쩌지 못하는 울분에 한밤중에도 벌떡 일어나 랭수를 들이키군 하는 리준이였다.

하루빨리 국권을 회복해야 한다는 통절함에 밥을 먹어도 모래알을 씹는것만 같은 리준이였다.

《운강선생, 김참위란 그 젊은이가 꽤 해낼것 같소?…》

울보채는 심정을 누를길 없어 한숨을 치쉬고 내리쉬던 리준이 불안스러운 어조로 량기탁에게 묻는 소리였다.

량기탁은 여전히 눈을 꾹 감은채 대답이 없었다. 벌써 세번째로 리준에게서 같은 질문을 받는 그였다.

김참위가 해낼수 있는가고?…

그자신도 장담할수가 없었다. 너무나 갑작스레 들이닥친 정황속에서 다른 방도는 떠오르지 않았던것이다.

어찌하여 그 순간 김참위가 제일먼저 생각났을가?…

량기탁의 눈꺼풀이 가늘게 떨린다.

그가 김상건을 처음 알게 된것은 3년전 평양의 강동에서였다.

그때 로일전쟁을 일으키고 저들의 방대한 침략무력을 들이민 일본이 그것을 배경으로 조선봉건정부에 《황무지개간위탁계약서》라는것을 강요했다.

일본의 속심인즉 조선의 많은 토지들을 《황무지》라는 터무니없는 구실밑에 저들의 소유로 만들겠다는것이였다.

이에 격분한 지사들은 보안회를 조직하여 왜적들의 강도적인 책동에 항거해나섰고 일본과 무능한 봉건정부의 탄압이 강화되자 보안회를 협동회로 고쳐 투쟁을 더욱 확대해나갔다.

협동회에서 지방부장의 책임을 맡았던 량기탁도 왜놈들의 《황무지개간》책동을 반대하는 투쟁에로 사람들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직접 고향인 평양으로 갔었다.

유지들과 관리들을 만나기도 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연설도 하면서 평양일대를 돌던 량기탁이 어느날 강동에서 열리는 연설대회에 참가해달라는 요청을 받고 그리로 가고있을 때였다.

그의 일행이 강동의 한 야산기슭을 지나는데 별안간 요란한 총소리가 터지는것이 아닌가.

동시에 멀지 않은 곳에서 풀을 베던 농군 하나가 풀썩 물앉아버리는것이였다. 어찌된 영문인지 농군의 상투는 산산이 풀려 흐트러지고 그 자리에 희끄스름한 연기가 피여오르고있었다.

량기탁과 일행은 저으기 놀라 사방을 두리번거렸다.

산중턱에서 너털웃음소리가 들려왔다. 그쪽을 바라보니 몇명의

양인과 관리행색의 조선인 한명이 있었는데 그중 량옆의 전이 올라간 카우보이모자(미국 서부지방의 기마목동들이 쓰는 모자)를 쓰고 보총을 든 양인 하나가 눈에 걸렸다.

얼이 나간듯 멍해있는 농군을 내려다보며 허리를 부여잡고 웃어대는 그자의 꼴을 보고서야 량기탁은 양놈이 심심풀이로 농군의 상투에 대고 총질을 했다는것을 깨달았다.

가슴이 화들랑거렸다. 나라가 변변치 못하니 양놈들이 이 나라 백성알기를 발가락의 때만큼도 여기지 않는다는 분함에 량기탁은 추상같이 고함을 질렀다.

《이 무슨 무도한짓이냐!》

산중턱에 서있던것들이 흠칠하며 이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그 순간이였다.

어데선가 난데없는 총성이 또다시 터지더니 너털거리던 양놈의 카우보이모자가 훌렁 벗겨져 날아가는것이였다. 그 서슬에 놀라 이번에는 양놈이 불머리바람으로 허궁 궁둥방아를 찧고말았다.

얼떠름해있던 량기탁은 뒤늦게야 앞에서 마주오던 서너명의 조선군대 병정들을 알아보았다. 총은 그들중 한사람이 쏜것이였다.

량기탁은 달아오른 화승총을 틀어잡은 그 병정을 눈여겨 바라보았다.

기골이 들차보이는 청년이였다. 내찌를듯 일어선 솔잎같은 눈섭밑에서 불길이 펄펄 날리는 부리부리한 두눈이 양놈들을 노려보고있었다.

《장할시고!》

량기탁의 입에서 터져나온 소리였다.

지지리도 못나고 어질어빠진 이 나라에 민족의 존엄을 지켜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길줄 아는 저런 병정이 있다는 사실앞에 속

이 후련해오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조정의 임금이, 문무백관들이, 이 강토에 태를 묻은 사람들 모두가 저 병정같다면 어느 누가 감히 조선사람을 업수이 대할 수 있으랴.

량기탁은 통쾌한 마음을 금할수 없어 연신 머리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흐뭇한 심정은 오래갈수 없었다. 양놈들과 같이 있던 조선관리가 천둥에 놀란 개처럼 천방지축 달려내려와 총을 쏜 병정에게 야단을 치기 시작했던것이다.

《너 이놈! 감히 뉘앞에서 불질이냐! 검정군복을 입었으면 단줄 아느냐 이놈! 양인들을 상하게 하구 나라얼굴에 똥칠을 해놓았으니 네 목이 열개라도 남아날상싶으냐 말이다, 이 미욱한 놈 같으니!…》

병정의 흙빛얼굴이 분노로 하여 컴컴해졌다. 손가락같은 굵은 피줄이 그의 관자노리에서 꿈틀거렸다.

병정이 거센 눈빛으로 마주보며 숙어들념을 안하자 관리는 삶은 문어모양 낯빛이 시뻘개져 더욱 왜가리청을 돋구었다.

당장 군영에 알려 옥에 처넣겠다느니, 륙군법원에 고소하여 물고를 내게 하겠다느니 하며 화가 상투끝까지 솟구쳐 펄펄 뛰는 관리의 욕설을 듣는 과정에 량기탁은 농군에게 총질을 한 양놈 일행이 이 부근에서 금광탐사를 하느라 돌아치는 미국인들이라는것을 알게 되였다.

어이가 없었다. 큰 나라 사람들에게는 이마가 땅에 닿도록 굽신거리며 온갖 리권을 섬겨바치면서도 제 나라 백성이나 병정은 개돼지 대하듯 무시하는 그 비굴한 사대의식에 욕지기가 치미는 것을 견딜수 없었다.

량기탁은 입에 거품을 물고 고아대는 관리에게 다가가 의분

을 쏟았다.

《여보시오. 죄를 따져묻는다면 이 병정이 아니라 무고한 백성을 총으로 조롱한 저 양인들에게 해야 마땅하지 않겠소. 헌데 도리여 진짜범인앞에선 한마디 말도 못하고 나라와 백성을 지키는 군사로서 응당 해야 할바를 한 제 나라 병정에게 욕을 보이려드니 과연 당신은 이 나라 관리요, 아니면 저 미국의 관리요? 대관절 누가 나라얼굴에 똥칠을 하고있는가 말이요?!》

《거, 거긴 대체 뉘시오?…》

관리가 말문이 막혀 쩔쩔매는 소리였다.

그러거나말거나 량기탁은 미국인들을 향해서도 영어로 준절히 꾸짖었다.

《이자 당신들이 저지른짓은 조선사람들을 심히 릉멸하는 행위였소. 묻건대 그런게 당신들이 즐겨 외우는 박애이고 서양의 신사도인가? 나는 무도하기 그지없는 당신들의 행위를 우리 정부에 고발하겠소. 반드시 당신들이 마땅한 처벌을 받게 할테요!》

조선에서 처음으로 되는 《한영사전》의 편찬자인데다 미국에도 여러해 다녀온적이 있는지라 량기탁의 영어발음은 류창했다.

뜻밖의 된경을 치르고 붉으락푸르락하면서도 상대가 총을 든 병정들이여서 선뜻 덤벼들지 못하던 미국인들은 량기탁의 도고한 언변과 뛰여난 영어실력에 그만 기가 꺾이고말았다.

미국인들이 관리를 달고 슬그머니 꼬리를 사린 뒤 량기탁은 병정들을 만나 격려해주었다.

알고보니 그들은 성천에 친정나들이를 가는 평양부윤의 소실을 배행해주고 오는 길이였다.

량기탁은 함께 가던 일행과 다른 병정들에게 화를 당한 농군을 돌봐주라고 이르고나서 호기심에 이끌려 미국놈을 혼내운 그

병정을 따로 만나보았다.

그 병정이 바로 평양진위대의 정교(상사)였던 김상건이였다.

보잘것없는 일개 병정을 옹호하여 서리차게 관리를 단죄하던 량기탁에게 믿음이 갔던지 김상건은 자기의 심정을 숨김없이 터놓았다.

평양 기림리에서 야장의 아들로 태여난 김상건은 청일전쟁때 아버지를 잃었다고 한다.

평양성에 달려든 왜놈들의 포격에 참혹하게 찢겨진 아버지의 시신과 렬강들사이의 싸움으로 무참히 파괴된 평양성을 목격하며 9살 나던 소년은 처음으로 《나라》에 눈뜨게 되였다.

나라의 대문을 지키는 군사가 되고싶었다. 하여 남들이 함부로 겨레들을 괴롭히지 못하게 하고싶었다.

그러한 욕망으로 가슴을 끓여왔기에 기회가 닥쳐오자 김상건은 망설임없이 군복을 입었고 남다른 충의심과 군사로서의 천성을 인정받아 몇해만에 정교로까지 승진한것이였다.

허나 군복을 입었건만 나라와 백성을 지켜 그들이 할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다.

큰 나라 병졸들이 제 집뜨락인양 이 땅에 마구 드나들어도 멍청하니 바라봐야만 했고 오랑캐들이 이 나라 백성들을 노예처럼 부리고 모욕해도 고함조차 지를수 없었다.

오히려 국권을 되찾기 위해 일떠선 의병들을 향해 왜적의 총알받이가 되여 총부리를 겨누어야 하였으니 김상건은 부끄러웠다.

이렇듯 비굴하고 물러빠진 나라의 군복을 입고있는것이 죽고싶도록 부끄럽고 한스러웠다.

《선생님, 도대체 우린 왜 군복을 입고있습니까? 제 나라를 지

켜 총 한방 쏠수 없는 우리가 무슨 군댑니까?!》

항변하듯 터치는 김상건의 절규에 량기탁은 대답할 말이 없었다.

천백번 지당한 소리였던것이다.

방금전에 자기가 미국인들앞에서 정부에 고발하겠노라고 제법 큰소리를 쳤지만 사실 생각해보면 돌미륵도 웃을 가소로운 망발이 아닌가.

고발했댔자 굴욕스러운 불평등조약들에 묶여있는 정부가 무슨 수로 외국인들의 횡포를 법으로 다스리며 렬강들의 눈치를 살피느라 숨도 마음대로 못 쉬는 나라가 어떻게 큰 나라들에 대고 삿대질을 할수 있으랴.

약소민족의 막막한 현실앞에 가위가 눌린듯 가슴이 답답해왔다.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나라와 겨레의 비운을 고통스러워하는 그런 청년들이 있다는것이 다행으로 여겨지기도 하였다.

고통을 느끼기에 인간은 고통의 화근을 가시기 위해 무진 노력을 다하는것이다. 치욕으로 만신창이 되고서도 고통을 느낄줄 모른다면 그 민족의 장래를 어찌 생각할수 있겠는가.

그렇다. 고통받는자들에게는 고통받는자들만의 힘이 있다.

량기탁은 그날 김상건에게 맥을 놓아서는 안된다고, 총을 잡은 군사들마저 마음이 흔들리면 나라는 더이상 지탱해내지 못한다고 간절히 일깨웠다.

우국충정에 불타는 그의 말은 젊은 병정의 심장을 세차게 울려주었다.

김상건은 숯불같은 눈으로 량기탁을 바라보며 나라와 백성을 위해 군사된 본분을 다할것을 후덥게 다짐했다.

그렇게 헤여졌던 병정이 다음해 시위대 참위로 발탁되여 한성에 나타날줄이야.

이전 같으면 평민이 무관벼슬인 군관으로 된다는것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였다.

그러나 신분제도가 걷잡을수 없이 와해되여가고 량반들이 하급군관직을 천시한것으로 하여 필요한 인원을 충당하기 어렵게 된 조선봉건정부는 결국 김상건과 같이 평민출신이여도 자질이 넉넉한 병정에 한해서는 군관으로 제발하는데까지 이르게 된것이다.

량기탁은 김상건의 성장을 자기 일처럼 기뻐하며 바쁜 속에서도 그가 찾아오면 반겨맞아주었다.

김상건은 많은것을 물어보군 하였다.

그럴 때마다 량기탁은 어지러운 시국과 조정의 형편에 대하여, 렬강들의 치렬한 각축전이며 다른 나라들의 군사제도에 대하여 아는껏 들려주군 하였다.

망국의 《을사5조약》에 접하고 여기저기서 열혈남아들이 매국원흉들을 징벌하기 위해 뛰쳐나섰을 때 김상건도 동료들과 함께 군부대신 리근택을 처단하기 위한 거사를 준비했다.

그런데 사전에 기미를 챈 왜놈들이 경계를 몇곱절로 강화하는 바람에 뜻을 이룰수 없게 되자 김상건은 량기탁에게로 달려와 울분을 터뜨렸다.

《선생님, 이런 땐 어째야 합니까? 저 역적들이 뻔뻔히 살아숨쉬는데 군복을 입었다는 우리가 무슨 낯으로 하늘을 쳐다보는가 말입니다!》

피를 토하듯 웨치는 김상건을 부여잡고 량기탁은 그때 강잉히 말했다.

《김참위, 남아의 피는 헐값이 아니요. 언젠가는 나라를 위해

값비싸게 피를 바쳐야 할 때가 반드시 올거요.》

그처럼 나라의 운명과 군인의 본분을 두고 모대기는 김상건의 참됨을 잘 알고있었기에 량기탁은 오늘같은 급박한 정황속에서 꺼림없이 그에게 중대사를 맡길수 있었던것이다.

하건만 왜 이리도 감감무소식인가?…

리준과 마찬가지로 량기탁의 마음도 희망과 절망사이를 시계추마냥 쉬임없이 오가고있었다.

그렇게 일각이 삼추같은 시간이 흐르는데 마침내 인기척이 나더니 김상건이 문을 열고 들어서는것이 아닌가.

《김참위!》

막혔던 물목이 터지듯 두사람의 입에서 동시에 터져나온 소리였다.

땀과 먼지에 얼룩진 김상건의 얼굴에 피로가 실려있었다. 리준이 갈급증을 이기지 못하고 그에게 다가가 성급히 묻는다.

《어찌되였소?》

김상건은 대답대신 빙그레 웃더니 손에 든 보꾸레미를 쳐들어 보였다.

리준은 떨리는 손으로 보꾸레미를 받아들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그것을 방 한켠의 탁자우에 가져다놓았다.

량기탁도 높뛰는 심장을 가까스로 누르며 벽에 걸린 남포등을 벗겨가지고 다가갔다. 남포등을 보꾸레미가까이에 놓은 그는 등피를 쳐들고 불심지를 돋구었다.

잠시후 리준은 천천히 보꾸레미를 풀기 시작하였다.

허름한 무명보자기를 푸니 붉은 비단보로 고이 싼 모난 물건이 나졌고 그것을 다시 푸니 검붉은 옻칠을 한 함이 나타나는것이였다.

긴장한 숨소리들이 엉켜도는 가운데 리준이 함의 뚜껑을 열었다. 그랬더니 그안에 붉은 돌을 다듬어 만든 더 작은 함이 들어있는것이 아닌가.

량기탁이 마른기침을 참느라 킁킁거렸다.

김상건도 숨을 죽이고 지켜보고있었다.

한순간 눈을 지르감은채 마른침을 모아 삼키고난 리준은 이윽고 후들거리는 손으로 작은 함의 뚜껑을 열었다.

다음순간 세사람의 낯빛이 숙연해졌다.

네모진 몸체우에 거북모양의 손잡이를 올려앉힌 황금빛도장이 붉은 비단끈을 달고 자태를 드러냈던것이다.

다름아닌 옥새였다. 황제의 옥새가 그들의 눈앞에 꿈이런듯 놓여있었다.

말로만 들어오던 나라의 도장을 난생처음 보는 그들은 이름할 수 없는 감정에 휩싸여버렸다.

목이 꺽 메여오는지 리준이 고개를 떨군다. 손수건으로 눈굽을 닦는 그의 어깨가 부르르 떨렸다.

량기탁의 심정도 다를바없었다.

나라의 지엄한 물건을 마주한데서 오는 공경과 두려움때문이였던가. 아니, 그보다도 이 나라 사람들의 신성한 존엄이 왜적들의 터럭손에 여지없이 모멸당하고있다는 비통함이 세 사나이의 가슴을 갈기갈기 찢어놓고있었다.

리준은 자신에게 다짐하듯 강개한 어조로 부르짖었다.

《됐소. 옥새를 찾았으니 이젠 해아(헤그)에 가게 됐소. 기어이 국권을 회복해서 오늘의 이 치욕을 씻어야만 하오!》

량기탁이 고개를 끄덕여 그 말에 호응했다. 그리고나서 김상건을 돌아보며 진심으로 치하했다.

《김참위, 나라를 위해 정말 큰 공을 세웠소. 내 김참위한테 무슨 말루 인사를 드려야 할지 바이 모르갔소.》

무척 흥분되였는지 량기탁의 입에서 본향인 관서말투가 저도 모르게 튀여나왔다.

리준도 흔흔히 코수염을 쓰다듬으며 치하를 아끼지 않았다.

《백번 지당한 말씀이요. 과시 운강선생이 사람을 잘못 보시지 않았군요.》

김상건의 얼굴이 수수떡이 되고말았다.

당황해서 몸둘바를 몰라하는 그를 미덥게 바라보던 량기탁이 문득 궁금한 생각이 들어 왜 그리 늦었는가고 물었다.

김상건은 혹 뒤를 밟힐가봐 에돌아오다나니 그렇게 되였다고 대답하며 옥새를 찾아오던 과정을 간단히 이야기했다.

그의 이야기를 유심히 듣고난 량기탁이 우려의 빛을 숨기지 못했다.

《헌데 김참위를 알아봤다는 그자는 어떤자요?》

《오석구라고 왜놈헌병대에서 통변노릇을 하는 일진회놈인데 이전에 맞닥뜨린적이 있었습니다. 그놈까지 마저 요정낼가 하다가 그래두 동족의 허울을 썼는데 개심할 기회를 줘야 할것 같아 놔주구말았습니다만. …》

김상건의 설명을 듣고도 량기탁은 청년이 걱정되여 여전히 낯색을 펴지 못했다.

량기탁의 그런 속마음을 헤아린 김상건이 헌헌히 말했다.

《너무 마음 쓰지 마십시오. 실은 저도 이미전부터 작정한바가 있습니다. 선생님, 전 이 참에 아예 의병이 되렵니다.》

《의병이?!…》

량기탁이 놀라서 반문했다.

《예. 리강년어른을 찾아갈가 합니다.》

그러자 곁에 있던 리준도 끼여들었다.

《리강년이라면 왕년의 그 의병장말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 고향에 은거해서 도를 닦고있다는 소문을 들었더랬는데 지난달 소백산밑에서 다시 의병을 일으켰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그 어른의 휘하로 모여들고있습니다.》

김상건의 거침없는 이야기에 리준도 량기탁도 선뜻 응답하지 못했다.

을미사변이 일어나자 분연히 떨쳐나 왜놈들의 간담을 서늘케 하며 류린석의병대의 유격장으로 활약한 리강년에 대해 그들도 모르지 않았다.

비단 리강년뿐이랴. 어제날의 농군들과 포수들, 군인들과 유생들이 왜적을 무찌르고 국권을 되찾자고 절규하며 도처에서 의병을 일으키고있었다.

그렇지만 손에 든것이라야 대창이나 화승대따위가 대부분인 그들이 기관총과 대포로 무장한 왜군과 맞선다는것은 닭알로 바위치기가 아니겠는가.

그들이 헛된 피를 흘리지 않게 하기 위해서라도 하루빨리 렬강들을 설득하여 대세를 돌려놓아야 한다고 리준은 마음속으로 곱씹었다.

리준은 진정을 담아 김상건에게 말했다.

《김참위, 의병들의 장한 뜻이야 내 어찌 모르겠소. 하지만 지금의 형세하에서 국권회복의 가장 바람직한 길은 국제렬강에 호소하는것이요.》

리준의 그 말에 김상건은 고개를 끄덕이면서도 기연가미연가하는 눈치였다.

김상건이 주저하며 속생각을 토로했다.

《저도 선생님들의 뜻을 모르지 않지만 정말 큰 나라들이 우릴 도와나설가요? 을사년때두 다들 왜놈들 편역을 들었지 우릴 생각해준 나라야 하나도 없지 않았습니까?》

리준은 아픈 곳을 찔리운듯 미간을 찡그렸다. 무거운 숨을 몰아쉬고난 그는 짐짓 헌거로이 웃으며 대답했다.

《김참위의 우려는 십분 리해되오. 허나 너무 그렇게 비관하기만 할 일은 아니라고 보오. 청국과 아라사는 전쟁에서 패하고나서 일본에 원한이 깊은 나라들이요. 영국은 일본과 동맹관계라지만 어디까지나 아라사의 남진을 막기 위해서이지 결코 일본이 고와서 그러는건 아니지 않소. 또 미국도 아직까지는 동양에 지반이 튼튼하지 못하다보니 일본에 양보할 때도 있지만 원체 약소국들을 동정하는 나라인데다 일본의 팽창을 무한정 지켜보기만 할리는 만무한것이요. 덕국(도이췰란드)이나 법국(프랑스)도 사정은 마찬가지고. 한즉 렬강들의 알륵과 득실을 잘 살펴서 외교활동을 적절히 벌려나간다면 일본을 견제할 방도가 분명 나질거요. 10여년전에 청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이 아라사주도의 <3국간섭>으로 기세가 꺾이던 일을 돌이켜보오. 강대국들이 우리를 지지해나선다면 제아무리 서슬이 등등한 일본도 물러서지 않을수 없소. 우리가 이번에 렬강들이 모여드는 해아회의에 한사코 참가하려는것도 바로 그때문이요!》

연단에 나선 연사마냥 열변을 토하는 리준의 두눈은 홰불처럼 타고있었다. 김상건도 달아오른 심정을 금치 못해하였다.

《선생님의 말씀을 들으니 기운이 솟습니다!》

그러는데 한옆에서 머리를 짓숙인채 침묵만 지키고있던 량기탁이 천천히 입을 여는것이였다.

《천만다행으로 옥새는 되찾아왔는데 다음 일이 실로 난사요.》

리준과 김상건이 의아해서 량기탁을 바라보았다. 량기탁은 무거운 어조로 불안을 터놓았다.

《시급히 옥새를 황제폐하께 전해야 할텐데 왜놈들이 궁성을 철통같이 둘러막고있으니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소?》

그제서야 리준과 김상건은 량기탁이 근심하는바를 깨달았다. 그들의 얼굴빛이 일시에 하얗게 바래졌다.

아닌게 아니라 밀사들이 품고 갈 황제의 신임장을 받으려면 한시바삐 옥새를 대궐로 들여보내야 하였다.

하건만 작년에 통감부가 황족의 안녕을 보장한다는 미명하에 황궁의 출입을 통제하는 《궁금령》이라는것을 공포실시하게 한 뒤로 궁성경비는 여간만 삼엄해지지 않았다.

궁성의 문들마다 일본경찰들이 파수를 서고 《문감》이라는 표딱지가 있어야만 궁에 드나들수 있었다. 결과 궁성에 출입할수 있는자들은 극히 제한되고 조선사람이 출입하는 경우에는 대신이라 할지라도 엄격히 단속당하였으며 황제는 외부와의 련계를 완전히 차단당하게 되였다.

그런 상태에서 궁안에서 빼내오던 황제의 옥새를 감쪽같이 탈취당하였으니 왜놈들이 더더욱 눈에 쌍심지를 켜고 궁성을 봉쇄할것은 너무도 명백한 일이였다.

리준이 초조한 빛을 감추지 못하며 중얼거렸다.

《해아회의가 코앞에 닥쳐왔는데 이것 참 야단이군.》

김상건의 마음도 살을 메운 활시위처럼 팽팽해졌다.

그러는 그의 귀전에 누구에게라 없이 조용히 뇌이는 량기탁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무슨 수를 찾아야 할텐데…》

4

수화기에서 하세가와의 분기충천한 목소리가 터져나왔다.

《통감각하, 어제 밤 우리 헌병대 장교가 조선군인에게 살해되였습니다.》

이등박문은 속이 울컥해나는것을 꾹 누르며 고압적인 어조로 뇌까렸다.

《아침에 보고를 받았소. 헌데 하세가와장군, 어째서 이 통감은 사태의 전말을 맨 나중에 알아야만 하오? 조선에서 벌어지는 일은 사소한것도 다 나의 사전승인을 거쳐야만 한다는걸 장군은 모르오?》

그러자 하세가와가 심술궂게 되받아쳤다.

《각하, 군대가 모든걸 시시콜콜히 다 보고할순 없습니다. 아무튼 참을수 없는 사태이니만큼 당장 병력을 발동해 시위대를 요정내든가 궁에 쳐들어가 조선황제에게 죄를 따지든가 결단을…》

《하세가와장군!》

이등은 사납게 하세가와의 말을 가로채며 꿰진 소리를 질렀다.

《명심하시오! 이 땅에서 군대의 최고통수권자는 나라는걸 말이요!》

그 소리에 대답하듯 전화기를 내동댕이치는 파렬음이 벼락치듯 이등의 고막을 때려왔다.

이등박문의 얼굴이 금시 폭발할것처럼 부르터올랐다.

(망할 자식! 군부를 등대고 오만방자해도 분수가 있지 감히 일본제국의 원로로서 총리만도 4번을 지낸 이 이또 히로부미를

무시해!)

상전인 통감을 문관출신이라고 시답지 않게 여기면서 매사에 제멋대로 하려드는 조선주둔 일본군사령관 하세가와였다.

격노하여 수화기를 내던진 이등은 허연 턱수염을 부들부들 떨며 마구 화를 터뜨렸다.

《에잇, 망둥이 같은것들! 도대체 당신들 눈엔 이 통감이 허재비로밖에 안 보이는가?! 왜 나와는 아무런 상의도 없이 그런 망동을 벌려놓는가 말이요? 아하, 그러니 통감은 이러구저러구 간참말구 당신들의 뒤나 쳐달라는거겠소? 좋소, 내 래일, 아니 지금 당장 본국으로 돌아갈터이니 하세가와나 당신이 내 자리에 앉아 실컷들 해보시오! 어서!》

칼날같이 독이 올라 연방 노성을 질러대던 이등박문은 뒤늦게야 통감의 방에 앉아있는 사나이한테 흘깃 가시눈길을 던졌다.

검은 하오리를 입은 30대의 사나이가 두손을 무릎우에 벌려짚은채 이등을 마주보며 묵묵히 앉아있었다.

둥근 얼굴에 골격이 억세보이는 사나이였다. 짧게 깎은 총이 센 머리, 두드러진 관골, 치찢어진 눈초리 그리고 시커먼 수염속에 깊숙이 묻혀있는 꾹 다물린 입…

통감부의 촉탁이며 일진회 고문인 우찌다 료헤이였다.

이 사나이를 대할 때마다 이등이 자기보다 30년나마 아래임에도 불구하고 슬그머니 위압되군 하는것은 무엇때문일가? 우찌다의 등뒤에 웅크리고있는 검은 권력때문인가? 아니면 사나이의 온몸에서 뻗쳐나오는 살벌한 기백때문인가?

이 시각도 간밤의 사건을 추궁하기 위해 우찌다를 불렀건만 벌써부터 김이 새여나가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그러면서도 이등은 자기가 노기등등해서 기광을 부리는데도 눈

섭 하나 까딱않는 사나이의 거만스러운 패기에 약이 올라 목청을 돋구었다.

《우찌다선생이 한번 말해보시오! 일진회에서 이번 일을 꾸몄다니 누구보다도 선생이 잘 알테지요. 대관절 경운궁에서 빼내왔다는 조선황제의 그 비밀옥새라는게 어디 있소? 나도 구경 좀 해봅시다. 허 참, 기가 막혀서… 옥새는 정체불명의 괴한한테 뺏기웠다지, 일본장교는 살해됐지. 그래 통감 모르게 치렀다는 일이 고작 그런거요? 그 책임을 누가 질테요! 쯧쯧, 철부지들같으니…》

우찌다의 두눈이 시뻘겋게 달아올랐다. 무섭게 울대뼈를 불끈거리며 이등을 바라보던 우찌다는 돌바닥에 무쇠공을 굴리는듯 궁근 목소리로 뜨직이 입을 뗐다.

《일진회의 고문으로서 책임을 통감합니다. 그러나 각하께서 정말로 우리가 하는 일을 철부지들의 망동정도로밖에 치부하시지 않는다면 단언컨대 기꺼이 저는 이 자리에서 사표를 낼 용의가 있습니다.》

이등은 그만 말문이 막히고말았다. 한동안 성을 가라앉히지 못해 씩씩거리던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더니 방 한켠에 있는 벽장으로 다가가 브란디병과 술잔을 꺼내들었다.

록록치 않은 사내였다.

작년에 초대조선통감으로 부임하는 이등박문에게 명치정계의 한 막후거물이 이런 말을 하는것이였다.

《지금 일본에는 비길데 없는 명마가 한필 있습니다만 불행하게도 그 말을 부릴수 있는 인물이 없는것 같습니다. 각하께서 그 말에 자갈을 물리고 한번 부려봄이 어떻겠습니까?》

이등은 그 말에 한번 타보고싶었다. 그렇게 되여 소개받은 인물이 바로 일본우익의 준마였던 우찌다 료헤이였다.

일찌기 《흑룡회》라는 첩보모략단체의 우두머리가 되여 일본의 대륙진출을 위해 조선과 만주, 로씨야가 좁다하게 뛰여다닌 우찌다의 활약상에 대해서는 이등도 잘 알고있었다. 이등은 주저없이 우찌다를 통감부의 조사촉탁으로 임명하여 자기의 개인참모로 삼았다.

과연 우찌다는 특유의 장악력과 음침한 지략으로 일진회와 같은 친일세력을 거머쥐고 조선의 국정동태를 날카롭게 감시하면서 일본제국의 번영을 위해 분주다사한 나날을 보냈다.

그런데 정부나 통감에게도 구애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뜻을 쫓아 《천황》폐하와 국가에 충성한다는 그 방약무인한 태도가 골치거리였다. 거기에다가 언제부터인지 우찌다에게도 군부의 입김이 미치고있었다.

야생말처럼 거칠고 자유분방한 이 사나이를 마음껏 부리자면 어떻게 하나 자갈을 든든히 물려야 할텐데…

술잔에 부은 브란디를 한모금 마시고나서 다시 제자리에 놓은 이등박문은 천천히 돌아오더니 책상을 사이에 두고 우찌다와 마주앉았다. 그리고는 지친 기색으로 하소연을 늘어놓았다.

《미안하오, 우찌다선생. 나이를 먹으면 노여움을 참기가 힘들어지는가보오. 허나 이번 일에 대해서는 실로 유감천만을 금할수 없소. <천황>폐하의 성지를 받들어 조선을 다스리고 광대한 대륙을 개척하자면 우리모두가 일치단합해야 할텐데 그렇게 다들 제가다리로 놀면 이 늙은이 혼자 무슨 용빼는수가 있느냐 말이요.》

그래도 우찌다는 여전히 분이 사그라들지 않는듯 무뚝뚝한 어조로 응대하는것이였다.

《통감각하의 심정을 하세가와대장께 전하겠습니다.》

《그래주면 고맙겠소.》

이등은 밸이 불끈거렸지만 지금은 적당한 때가 아니여서 화제를 돌리고말았다.

《당신들이 빼내왔다는 비밀옥새가 바로 <황제어새>라는거요?》

이등의 물음에 우찌다가 정색해서 대답했다.

《그렇습니다. 조사한바에 의하면 조선황제가 일본을 반대하여 외국에 보낸 밀서들과 국내의 배일세력들에게 보낸 밀지들에는 다같이 그 <황제어새>가 찍혀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미전부터 벼르고있었는데 그만… 하지만 불원간 우리 손에 다시 들어오게 될겁니다.》

우찌다의 눈이 번뜩였다.

이등박문은 량미간에 주름살을 모았다. 언젠가 그도 통감부 경무부에서 압수해온 고종황제의 밀서에 《황제어새》라고 옥새가 찍혀있는것을 본적이 있었다.

외교권을 빼앗은 뒤 고종의 모든 옥새를 통감부가 철저히 관할하게 하고 황제의 손발을 단단히 얽어매느라 그처럼 독을 썼건만 쥐도 새도 모르게 비밀옥새를 품고 허튼짓을 계속해왔으니 정말 소귀신같이 질긴 고종이였다. 이등이 고종의 의뭉스러움에 새삼스레 혀를 터는데 우찌다의 웅글은 목소리가 들려왔다.

《이 기회에 통감각하께 긴히 말씀드릴것이 있습니다.》

이등이 머리를 끄덕이자 우찌다는 거침없이 말을 이었다.

《어찌하여 각하께서는 암암리에 딴꿈을 꾸고있는 조선황제에 대해 결정적인 대책을 취하시지 않습니까? 더우기 그는 근래에 들어와 헤그에서 열리는 만국평화회의에 밀사를 파견하기 위해 끈덕지게 움직이고있으며 이에 대해서는 여러 선들을 통해 각하

께 보고된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도 각하께서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계시니 저로서는 리해할수가 없습니다. 본국정부내에서도 이를 두고 통감부의 태만을 비난하는 지적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이등의 입가에 묘연한 미소가 떠돌았다.

우찌다의 말대로 이등에게 있어서 헤그회의와 관련한 고종의 움직임은 별로 놀라운것이 아니였다.

훌륭한 쟁인바치는 미완성품을 남에게 보이지 않는 법이지.

이등박문은 턱수염을 내리쓸며 아닌보살했다.

《개밥에 도토리같은 조선황제가 인제 와서 무슨 큰일을 치겠다구.》

그러는 이등을 못마땅한 눈길로 바라보며 우찌다는 고집스럽게 말을 이었다.

《저는 단지 헤그회의만을 념두에 두고 말씀드리는것이 아닙니다. 주지하는바이지만 오늘날 일본은 이 나라를 완전히 장악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나라의 외정은 물론 내정전반까지도 통감부가 좌지우지하고있는것이 현실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하께서는 어찌하여 <합병>의 즉시단행을 망설이십니까? 숨김없이 말씀드린다면 저는 각하의 그 우유부단함에 불만을 금할수 없습니다.》

우찌다의 말은 숨가쁠 정도로 단도직입이였다. 느닷없이 그가 《합병》문제까지 거들고나오는 바람에 이등은 당황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제서야 이등은 우찌다가 진작부터 이런 기회를 노려왔다는 것을 깨달았다.

《허허…》

이등은 대범하게 너털웃음을 터치려 했으나 웃음이 목안에서 걸리고말았다.

그의 이마에 피줄이 푸릿하게 살아났다.

《합병》을 즉시 단행해야 한다는 우찌다의 주장인즉 하세가와를 비롯한 군부의 주장이였고 더 정확히는 이등의 최대정적이며 군부의 실권을 틀어쥔 죠슈군벌의 두목 야마가따 아리또모의 주장이였던것이다.

오래동안 권력의 주도권을 놓고 야마가따의 죠슈군벌과 치렬하게 승부를 다투어온 이등이였다.

그가 조선통감으로 될 때에도 죠슈군벌의 반발과 방해가 얼마나 우심했던가. 그러한 그들이 이제는 우찌다 같은 재야강경파들에게까지 손을 뻗쳐 자기를 압박한다고 생각하니 이등은 목덜미가 달아올랐다.

하지만 수염이 허애지도록 정쟁속에서 부대끼며 로회해질대로 로회해진 이등은 이런 때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를 너무나 잘 알고있었다.

이등박문은 입술을 실그러뜨리며 소리없이 웃더니 책상우에 놓인 담배함에서 굵은 려송연 한가치를 꺼내 물었다.

잠시후 자기의 들창코우로 그물그물 피여오르는 담배연기를 바라보며 이등은 우찌다의 도전에 느긋이 응수했다.

《옛말에 사슴을 쫓는자 산을 보지 않는다고 했던가. … 우찌다선생, 나 역시 <합병>을 찬성하지만 모든 일에는 때가 있는 법이 아니겠소. 제국의 식민정책을 현장에서 책임져야 할 나로서는 조급한 <합병>단행이 가져올 후유증을 념려하지 않을수 없소. 일로전쟁을 치르느라 피폐해진 일본의 재정형편도 고려해야 하고 국제렬강의 시선도 의식해야 하거던. 게다가 우리는 일본의 <보

호통치>를 거부하는 조선민중의 반항을 아직까지 수습하지 못하고있소. 때문에 나의 주장은 일단 조선을 <보호국>으로 통치하다가 조건이 성숙되면 <합병>해버리자는거요.》

우찌다가 시뭇이 웃었다. 입술사이로 늘어지게 려송연을 걸고 거드름을 피우는 이등의 모양이 비스마르크의 모습과는 전혀 비슷치 않다는 생각이 들었던것이다.

그래도 이등은 젊은 시절 견문을 넓히려 도이칠란드에 갔다가 《철혈재상》으로 명성이 높던 비스마르크를 만나본 뒤로는 려송연을 입에 무는 등 그를 흉내내면서 《동양의 비스마르크》라는 소리를 듣고싶어한다고 한다.

하건만 우찌다에게는 이등이 구운 게도 다리를 매놓고 먹을만치 소심해빠진 로둔한 정객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다.

저리도 소극적인 이등이니 두번째로 내각을 이끌 때 일청전쟁의 귀중한 전리품인 료동반도를 《3국간섭》에 굴복하여 도로 게워놓는 굴욕을 당할수밖에. 통감관저에서 새여나온 소리를 들으니 밤마다 이등은 자객이 두려워 이리저리로 잠자리를 옮긴다던지…

우찌다는 능청스러운 불꽃이 이는 눈을 내리깔며 입을 열었다.

《최근에 누군가가 쓴 글을 읽어보니 일본은 아시아의 대렬에서 벗어나 서양을 따라야 하고 렬강들의 방식대로 조선이나 중국을 대해야 한다는 후꾸자와 유기찌선생의 <탈아론>을 거론하면서 일청전쟁이 일본의 탈아입문전쟁이라면 일로전쟁은 탈아완결전쟁이라고 력설하였더군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조선을 완전히 <합병>하여 대일본제국을 완성할 때라야 탈아(아시아에서 벗어나는것)는 비로소 완결된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로씨야를 물리쳤다 해서 안심할수는 없습니다. 지금도 서양렬강들이 호시탐

탐 동양을 노리고있는 형세에서 일본의 안전을 확보하고 우리의 국력을 대륙으로 확장하기 위해 <합병>은 빠를수록 좋은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결단코 행동하면 귀신도 길을 낸다고 했습니다. 비스마르크도 큰 문제들은 말이나 다수결에 의해서가 아니라 철과 피에 의해 해결된다고 말하지 않았습니까.》

석가에게 설법하듯 자기를 가르치려드는 우찌다의 건방진 태도가 이등에게는 심히 불쾌하게 여겨졌다.

입으로야 오사까성도 못 세우랴.

이른바 《지사》라고 자처하는 대륙랑인들이라는게 하나같이 저 모양이다. 먹지 않아도 이만 쑤신다는 허세와 무분별한 객기, 자기가 손만 대면 대사는 성사되고 천하는 순식간에 뒤집힐 것이라 생각하는 과대망상…

명치유신의 결과 사무라이신분을 박탈당하고 칼을 차는것조차 금지당한 수백만에 달하는 일본사무라이들은 졸지에 랑인(섬기던 주인을 잃은 무사)이 되여 한지에 나앉게 되였다.

농사를 짓자니 땅을 뚜지기 싫었고 장사를 하자니 밑천이 없었고 장인바치가 되자니 손재간이 없었다. 오직 칼부림밖에 모르는 랑인들이 먹고살기 위한 방도로 택한것이 현양사니, 흑룡회니 하는 패거리를 무어 대륙침탈의 길잡이로 나서는것이였고 일본제국은 구시대의 오물로 폐기해버렸던 그들을 《국권신장》의 수단으로 삼았다.

이른바 《대륙랑인》으로 불리우는 우찌다 같은 《대륙건달》무리들은 그렇게 생겨난것이였다.

하기야 저들에게 저런 기질이 없다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광기와 피가 요구되는 대륙진출의 선봉에 어떻게 내세울수 있으랴고 생각하며 이등은 랭소를 띠웠다.

우찌다의 눈이 음침하게 빛났다. 상대의 마음을 간파하는데 능한 그는 이등박문의 속을 훤히 헤집고있었다.

우리를 두고 허세를 부린다고 비웃지만 자기는 어떤가?

《명치일본의 주역》이라느니, 《<천황>을 보좌하여 유신의 대업을 이룩한 호걸》이라느니 간판은 요란해도 들여다보면 젊었을 적에는 출세의 사다리를 오르기 위해 암살과 방화를 장한듯이 저지르군 하던 비렬한이 아니였던가.

《존왕양이》를 부르짖으며 망동을 일삼던 그 시절 출신이 미천하여 사무라이축에 당당히 끼울수 없었던 신분상의 렬등감을 만회하려고 칼없는 학자까지 암살했다는 이등의 졸렬한 과거가 떠올라 우찌다는 코웃음이 나오는것을 꾹 참았다.

차겁게 굳어진 통감의 낯빛을 보며 우찌다는 자기의 주장이 조심스럽기 짝이 없는 이 늙은 여우에게 전혀 먹혀들지 않으리라는것을 직감했다.

(빈말이 소용없다. 중요한건 실행이다. 우물쭈물할테면 하라지. 우리 흑룡회가 앞장에서 제국의 앞날을 개척해나갈것이다.)

우찌다는 속으로 이렇게 다짐하며 이등의 대답을 더 기다리지 않고 이번에는 일진회의 자금문제를 끄집어냈다.

돈문제가 나오자 통감의 이마살이 대번에 찌프러졌다.

《아니 우찌다선생, 현재 일진회는 통감부로부터 매달 2 000원씩의 기밀보조금을 받고있는데 또 무슨 자금이 필요하다는 거요?》

《통감각하, 각하께서도 잘 아시다싶이 지금 일진회는 각 방면에 걸쳐 제국의 통감정치를 적극 협력해나서고있습니다만 불원간에 치르게 될 <한일합병> 등 우리가 이 땅에서 수행해야 할 중대사들을 생각해볼 때 아직도 그 력량이 미흡하기 그지없는 형

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까운 몇해어간에 일진회원의 수를 한 100만쯤으로 늘이자는것입니다.》

《100만?!…》

이등은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수 없었다.

문득 어제 열렸던 한 회의에서 군부대신 권중현이 일어나 그 자리에 참석한 7명의 대신들을 제외하면 전국민이 남김없이 배일세력이라고 우는소리를 하던것이 생각났다.

과장된 소리가 아니였다.

조선인들로부터 을사5적으로 지탄받는자들이 자객의 손에 걸려 황천객이 될번 했고 지어 우찌다본인까지도 일본헌병대에 신변을 보호받아야만 하는 처지가 아닌가.

사태가 그 지경인데도 일진회원수를 100만으로 늘구겠다며 돈을 달라니 배꼽이 하품할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다.

더군다나 똥 누고 개 불러대듯 일진회를 써먹으면서도 한편으로는 생겨날 때부터 일본군부쪽과 가까왔던 일진회를 은근히 흘겨보고있던 이등으로서는 우찌다의 제의가 별로 반가울리 없었다.

이등이 입가에 쓴웃음을 바르는데 우찌다가 눈에 힘을 모으며 말했다.

《조련치 않은 일이라는걸 모르지 않으나 제국의 장래를 위해 반드시 해내야 할 일입니다. 통감각하, 조선을 통치하는데는 두가지 길이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조선민족을 외국인으로 간주하고 통치하는것인바 영국이 인디아에서 그렇게 하고있습니다. 하지만 그런 제국은 오래 견딜수 없으며 언젠가 인디아는 영국의 지배에서 벗어날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조선민족을 동화시키는것입니다. 즉 조선민족이 일본어를 자기의 모국어로 받아들이게 하고 자기들의 전통과 문화대신 일본의 전통과 문화로 숨쉬게 하

며 자기들 고유의 민족성을 잃어버리게 하여 그들을 일본민족에 용해시켜버리는것입니다. 이렇게 하는것만이 조선을 일본의 영원한 식민지로 만드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러자면 이 땅에 광범한 친일세력을 부식시키는것이 선차적인 문제로 나서는데 일진회의 확대는 이 문제를 푸는 해결책으로 될것입니다. 각하의 깊은 사려를 바랍니다.》

이등박문의 눈가에 음험한 빛이 떠올랐다.

야망에 불타는 우찌다의 얼굴을 날카롭게 바라보던 이등이 떠보듯 넌지시 물었다.

《우찌다선생, 과연 수천년동안 독자적인 문화와 전통을 가지고 단일민족으로 살아온 조선인들을 꽤 동화시킬수 있을가?…》

그러자 우찌다는 시커먼 수염속에서 궁글은 소리로 웃더니 이렇게 대답했다.

《물론 조선민족을 동화시킨다는게 무른 땅에 말뚝박기처럼 헐하지는 않을겁니다. 그러나 결코 불가능한 일은 아닙니다. 반도라는 지리적위치와 오랜 기간에 걸치는 약한 국력으로 인하여 이 땅에는 대국에 굴종하는 사대근성이 뿌리내리게 되였습니다. 이 나라가 강하면 이 나라에 가붙고 저 나라가 강하면 저 나라에 가붙으면서 대국들의 힘을 빌어 살아가는 지배층의 사대정치가 수백여년세월 지속되는 속에 조선인들은 자기 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렸고 국난이 닥쳐오면 큰 나라부터 쳐다보는 사대심이 생겨났습니다. 그러한 조선인들에게 있어서 오늘날의 일본은 동양에서 맨 먼저 문명개화를 이룩하고 청국과 로씨야를 거꾸러뜨린 대국중의 대국입니다. 한즉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사대심을 적극 조장하고 활용한다면 능히 그들을 우리의 의도에 맞게 동화시킬수 있으리라 믿어의심치 않습니다.》

《핫하하…》

이등은 너털웃음을 터뜨렸다. 우찌다의 생각이자 그의 생각과 꼭같았던것이다.

그래, 대일본제국의 앞길을 개척하자면 하세가와의 우직한 밸통도 필요하고 우찌다의 검측한 지략도 필요하다. 요는 그들의 장점과 허점을 제국과 이등자신의 리익에 부합되게 적절히 써먹을줄 아는것이다.

일본정계에서 《조정의 명수》라는 평판을 받는 이등은 이번에도 그에 어울리는 판단을 내렸다.

(역시 이자는 써주면 장수요 버리면 괴수가 될 사나이야.)

원래는 우찌다를 추궁하기 위해 불렀건만 어느새 마음을 고쳐먹은 이등은 그가 제기한 일진회의 자금문제에 대해 반승낙을 하고말았다.

5

우찌다가 물러가자 이등박문은 또다시 벽장으로 다가가 술잔에 남아있는 브란디를 한모금 들이켰다.

독하면서도 달콤한 브란디의 기운이 식도를 태우며 흘러내리자 오전내껏 쌓였던 긴장의 덩어리가 조금씩 풀리기 시작한다.

이등은 술잔을 든채 천천히 제자리로 돌아와 안락의자에 몸을 실었다. 온몸이 느른해왔다. 봄날의 노곤한 해살이 창문으로 비쳐들고있었다.

《흠…》

불현듯 이등이 코웃음을 흘렸다. 통감의 우유부단함에 불만을

토하던 우찌다의 말이 다시금 상기되였던것이다.

(아무리 제노라는 우찌다도 능한 독수리는 발톱을 감춘다는걸 알려면 아직 멀었거던.)

이등은 허옇게 드리운 턱수염을 쓸어내렸다.

헤그밀사문제를 놓고서도 그렇게 말할수 있었다.

이등은 헤그회의가 열린다는 통보를 받은 순간부터 고종이 그 회의에 밀사를 파견할수 있다는것을 예견하고있었다. 아니나다르랴 이등의 예상이 옳았음을 확인하는 정보들이 여기저기에서 날아들었고 마음만 먹으면 고종의 밀사파견을 얼마든지 저지할 수도 있었다.

허나 이등은 고종의 그런 움직임을 모르는체 하기로 하였다.

주권을 빼앗긴 가련한 황제를 동정해서가 아니였다.

사실 이등에게 있어서 겉으로는 어리숙한척 하면서도 돌아앉아서는 내흉스러운짓을 곧잘 꾸미는 고종은 눈에 든 가시나 다름없었다.

틈만 생기면 외국에 일본을 욕하는 밀서를 보내는가 하면 배일세력과 련계를 맺어보려고 지꿎게 준동하는 고종때문에 통감자리를 차지하고나서도 늘쌍 오강뚜껑으로 물을 떠먹는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께름해있는 이등이였다.

생각 같아서는 당장 고종에게서 명색뿐인 황제감투마저 벗겨버리고싶은 충동이 하루에도 열두번은 더 치받쳐오르군 하였다.

하건만 이등은 심사숙고하지 않을수 없었다.

조선과 같이 장구한 기간 중앙집권적인 왕조가 유지되여온 곳에서 비록 망국의 군주라 할지라도 고종이 미치는 영향은 가볍게 대할것이 아니였다. 오랜 세월 조선인들에게 왕은 곧 나라였고 일본에 항거하여 총을 든 대다수의 조선의병들도 임금을 도

와 외적을 쳐물리친다는 근왕을 대의명분으로 내세우고있었다.

때문에 치밀한 타산없이 오이꼭지 따듯 황제를 제거하려 들다가는 되려 뜻밖의 역풍을 맞을수도 있었다.

땅벼락같이 벼르며 때를 노리던 이등은 헤그회의를 맞춤한 기회로 삼게 되였다.

고종이 헤그회의에 밀사를 파견하여 물의가 생기면 그 책임을 물어 황제를 강제로 퇴위시킬뿐아니라 그것을 기화로 조선의 내정권을 완전히 장악하고 《합병》을 촉진시키자는것이였다.

하여 이등은 고종의 거동에 일부러 무관심한 태도를 보이는 한편 헤그회의에 참가하는 일본대표단에 이미 사전통지를 보내고 각국 대표들이 조선밀사들과의 접촉을 거절하도록 선손을 쓰게 하면서 물샐틈없는 그물을 치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우찌다와 하세가와가 통감의 그런 속심도 모르고 덤벼치다가 풀대를 쳐서 뱀을 놀래운 꼴이 되였으니 이등으로서는 화를 낼만도 한 일이였다.

(허, 그러면서도 비스마르크를 거론해?)

사람들은 흔히 비스마르크를 입에 올릴 때면 전쟁도 마다하지 않은 그의 철혈정책에 대해 즐겨 떠들어댄다.

하지만 그러한 강경정책을 로련한 수완으로 안받침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비스마르크가 도이췰란드통일의 대업을 달성할수 있었으랴.

이등박문은 가소롭다고 생각하며 술잔을 마저 비웠다.

갑자기 밖에서 《꽝!》 하는 포소리가 터졌다.

이등은 화뜰 놀라 창문쪽으로 눈길을 돌렸다. 하세가와의 사령부가 있는 필동쪽에서 연기가 풀썩이는것이 보였다. 그제서야 오포를 쏘았다는것을 깨달은 이등은 오전에 하세가와에게서 받

은 모욕이 되살아나 저도 모르게 씹어뱉았다.

《빌어먹을!…》

몇달전부터 정오를 알려 매일 저렇게 오포를 울리는 바람에 수백년을 내려오며 울리던 종로의 보신각종은 아예 벙어리가 돼버리고말았다.

하기는 가끔가다 저 소리에 가슴이 덜컹 하긴 해도 일본군사령부가 직접 쏘아대는 저 대포소리가 날마다 일본의 서슬푸른 위엄을 상기시키며 조선인들의 간담을 서늘케 할테지 하고 생각하며 이등은 애써 짜증을 눌렀다.

그럴 때 비서관이 들어오더니 점심시간이 되였다고 알려주었다. 취기가 시장기를 밀어내서인지 점심생각이 별로 없었다.

이등이 시들해서 머리를 흔들자 비서관이 귀띔한다.

《통감각하, 오늘 점심에는 조선대신들과의 오찬이 예정되여있습니다.》

《오찬?…》

뒤늦게야 통감부의 시정에 대한 조선각료들의 의견을 청취할겸 오늘 오찬을 가지기로 했던것이 생각났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그것은 통감정치가 조선인들의 의견을 받아들여 시행되고있는듯이 광고하기 위한 겉치레놀음에 불과한것이였다.

도대체 통감의 말에 언제나 군말없이 동의하여야만 하는 조선대신들에게서 무슨 의견을 청취한단 말인가.

이등은 귀찮다는 표정을 지으며 쌀쌀하게 뇌까렸다.

《난 그만두겠네. 날 대신해서 총무장관이 오찬을 주관하도록 하게.》

그러자 비서관은 알만 하다는듯 목을 꺾으며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통감각하, 다야마 사다꼬상이 오셨습

니다.》

《사다꼬가?…》

다야마 사다꼬란 이등의 양딸 배정자의 일본식이름이다.

이등의 얼굴이 대뜸 시퍼래졌다. 비서관이 주밋거리며 뒤를 달았다.

《각하께 급히 알려드릴것이 있다고 합니다.》

이등은 안락의자에 몸을 파묻은채 퉁명스레 머리를 끄덕였다.

비서관이 나가고 뒤미처 양장을 한 배정자가 향수내를 풍기며 방에 들어섰다.

덧옷이며 모자를 대기실에 벗어버린 배정자는 감빛브라우스에 검은색주름치마를 받쳐입고있었다. 마흔이 가까울수록 더욱 풍염해지는 정자의 육체가 오늘따라 이등의 부아를 까닭모르게 돋구었다.

《아이참, 아버진 또 점심을 건느시려는가보지요?》

창문곁의 의자에 익숙한 태도로 앉던 배정자가 책상우에 놓인 빈 술잔을 알아보고 호들갑을 피우는 소리였다.

아침부터 때없이 술을 꺼내여 쫄금쫄금 마시다보니 종일 가야 밥 한공기도 변변히 축내기 힘들어하는 이등의 버릇을 잘 아는 정자였다.

배정자는 큰일난듯 눈꼬리가 까부장해서 응석기어린 지청구를 쏟아놓았다.

《그렇게 술만 계속하시니 노상 위장병에 시달리시지요. 의사가 말한걸 잊으셨어요? 위병을 고치려면 술을 꼭 끊으셔야 한다질 않았어요. …》

《듣기 싫다!》

이등이 벌컥 신경질을 부렸다. 앙칼진 가시눈으로 배정자를 노

려보며 이등은 물어뜯듯 따져물었다.

《위병이구 뭐구 대관절 넌 뭘 하느라 돌아치느냐? 지난밤에 한성 한복판에서 일본장교가 살해된걸 아느냐? 일진회것들이 경운궁에서 무슨 일을 벌려놓았는지 알기나 하느냐 말이다!…》

때아닌 때 나타난 배정자를 보니 이등은 그런 일을 사전에 눈치채지 못한 그에 대해 불만이 터져나오는것을 누를수 없었다.

오래전부터 경운궁과 련계가 깊은 배정자에게 궁중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움직임도 놓쳐서는 안된다고 거듭 강조해오지 않았던가.

이등은 하세가와며 우찌다에게서 모욕을 당한것이 전적으로 배정자탓이기나 한듯이 기광이 나서 호통쳤다.

《그래 네가 매수한 상궁이니, 내시니 하는따위들은 뭘 하고 있었다더냐?! 대체 그것들이 네 말을 듣긴 듣는게냐? 흥, 그러니 떠도는 말이 헛소린 아닌게구나. 듣자니 <대안문>을 <대한문>으로 바꾼것두 너때문이라면서?》

배정자의 입술이 새침하니 비틀렸다.

아닌게 아니라 통감부가 설치된 뒤 경운궁의 대문현판이 별안간 《대안문》(大安門)에서 《대한문》(大漢門)으로 바뀌였는데 세간에 파다하게 떠도는 소문인즉 배정자가 양장에 모자를 쓰고 궁안을 들락거리는것을 밉게 본 사람들이 갓 쓴 녀자가 대궐을 드나들면 나라가 망한다고 임금에게 상주하여 갓 쓴 녀인의 모양인 《안》(安)자를 사나이를 뜻하는 《한》(漢)자로 바꾸었다는것이다.

무릎우에 두손을 맞잡고 앉아 꼼짝 못하고 이등의 분풀이를 당하던 정자가 토라진 어조로 한마디 하는것이였다.

《저도 오늘 아침에 우찌다상에게서 간밤의 일을 들었어요.》

《우찌다한테서?!…》

가늘게 쪼프린 이등의 눈에서 파란 불길이 일었다.

우찌다가 정자한테까지 손을 뻗쳤는가? 그러고보니 둘의 나이도 크게 벌어지지 않는다는데 생각이 미쳤다.

홀연 배속에서 질투의 뱀이 똬리를 틀고 몸부림쳤다. 이등은 입새로 랭랭하게 내뱉았다.

《너 그제 밤에두 우찌다를 만났댔냐?》

그제 밤에 정자를 통감관저에 불렀건만 오지 않은 일을 념두에 둔 소리였다.

배정자의 얼굴가에 능갈친 빛이 어른거렸다.

그 녀자는 감정의 찰나를 놓치지 않는 기민한 눈길로 이등을 바라보다가 요사스레 반문했다.

《전 우찌다상을 만나면 안되는가요? 뭇녀인들이 호걸남아를 사모하는거야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이 아닌가요. 아버지도 얼마나 많은 녀인들의 사모를 받아오셨어요. 죠오꼬, 쯔야꼬, 다께꼬, 기미꼬…》

이등이 속옷 갈아입듯 바꾸어댄 기생들의 이름을 알뜰히 꼽는 배정자의 입꼬리에 달콤해하는 미소가 매달려있었다.

그러는 정자를 이등은 죽일듯이 쏘아보고있었다. 하면서도 계집의 요염한 모습앞에 음심이 바짝 동하는것만은 어쩔수 없었다.

솔직한 내심으로 이등에게는 절대순종형의 일본녀자들보다 예쁘면서도 되바라진 배정자의 이런 성미가 더 마음에 들었다.

딴은 배정자의 말이 틀린것은 아니였다.

젊어서부터 도꾜 신바시의 화류계를 좁다하며 휩쓸고다닌 이등박문은 녀자를 권력의 전리품쯤으로 여기면서 일흔을 눈앞에 둔 이날까지도 화려한 호색행각을 멈추지 않고있었다. 통감으로 부

임할 때 급사라고 시치미를 떼며 데려온 신바시기생 죠오꼬만 보더라도 몸값이 무려 1만원이였다니 이등의 녀성탐방이 어느 정도였는지 가히 짐작할만 한 일이다.

정자가 욕사발을 뒤집어쓴 앙갚음으로 자기를 놀리고있다는것을 알아차린 이등은 약이 받쳤지만 요망한 년의 입에서 또 무슨 소리가 튀여나올지 알수 없어 별수없이 말머리를 돌리고말았다.

《그래 급히 알릴 일이라는게 뭐냐?》

그제서야 배정자는 새초롬하던 기색을 가시더니 사르르 눈웃음을 쳤다. 잠시후 정자의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흘러나왔다.

《아버지, 황제의 비밀옥새를 가로챈 조선군 참위가 오늘 저녁에 한강을 건느기 위해 노들나루에 나온답니다.》

이등의 눈에 흰자위가 번뜩였다.

《그게 정말이냐?》

칼날처럼 날이 선 그 물음에 배정자가 목소리를 낮추어 잽싸게 소곤거렸다.

《좀전에 일진회원이 알려준 정보예요. 원래는 참위가 옥새를 경운궁에 다시 들여보내려댔는데 궁성경비가 하도 삼엄해서 하는수없이 한강을 건느려 한다더군요. 아마 옥새를 가지고 삼남일대에 횡행하는 폭도들한테 가려는가봐요.》

이등박문은 눈을 감은채 타산을 굴려보았다.

예상밖에 굴러온 기회였다.

이 기회에 옥새를 제 손에 걷어넣으면 의뭉하기 짝이 없는 조선황제도 골탕 먹이고 안하무인격으로 날치는 하세가와나 우찌다의 코도 납작해지게 할수 있으니 배 먹고 이닦기가 아닌가.

허나 그리되면 헤그회의를 조선황제의 함정으로 만들고 새우로 잉어를 낚으려던 당초의 계획이 글러질수도 있었다. 이를 어

찌한다?…

두손에 떡을 쥔 이등은 어느쪽이 더 큰 떡인가 가늠해보며 선뜻 결심을 내리지 못했다. 그러다가 문뜩 무슨 생각이 뇌리를 찔렀는지 눈을 뜨며 배정자에게 묻는것이였다.

《헌데 이상하구나. 어떻게 일진회원이 그런 정보를 너한테 알려줬느냐? 일진회원이라면 필경 우찌다나 송병준이한테 알려줬음직한데 말이다.》

이등이 머리를 기웃거리자 정자가 곱게 눈을 할기죽거렸다.

《참 아버지두, 참말 이 사다꼬를 숙맥으로 보시는게 아니예요.》

교태가 찰찰 넘치는 그 모습에 이등은 그만 낄낄 웃고말았다.

요물은 요물이였다. 방금전에 욕을 퍼붓긴 했어도 빼여난 미색과 간교한 솜씨로 하여 세간에 《흑치마》로 소문난 배정자가 일본과 이등을 위해 한 일은 결코 허술한것이 아니였다.

고종의 계비인 엄비의 줄을 잡고 황제의 눈에 든 뒤로 정자는 대궐을 제 집 드나들듯 하면서 적지 않은 값진 정보들을 일본에 제공하고 이 나라 조정에서 친로세력을 몰아내는데 한몫 단단히 하였다.

하기에 《을사5조약》을 꾸며내기 위해 조선에 건너온 이등이 손탁호텔에 려장을 풀자마자 제일먼저 만난 인물도 다름아닌 배정자가 아니였던가.

통감정치가 시작된 후에도 정자는 《을사5조약》이 《조인》된 중명전에서 밤마다 연회를 열며 이등의 눈과 귀가 되여 정국의 동향을 살피고 친일여론을 만들어내고있었다.

게다가 늙은 호색가의 가슴에 욕정의 불을 지를줄 아는 미모의 탕녀이기도 하였으니 이등으로서는 배정자를 양딸로 키워온 품이 조금도 아까울것이 없었다.

《아무튼 네 수고가 많다.》

다소 마음이 풀어진 이등이 이렇게 말하며 지친듯 어깨를 움죽거린다.

눈치빠른 정자가 얼른 일어나더니 이등의 등뒤로 다가와 어깨를 주무르기 시작했다.

점심무렵의 통감부청사는 쥐 죽은듯 조용했다.

물 오르는 남산기슭에서 이름모를 새들이 재깔대는 소리가 호젓하니 들려오고있었다.

빈속에 술을 마신지라 취기가 사지에 알딸딸하게 퍼져있는데 정자의 살가운 손길이 젊은 녀자의 야릇한 살내와 어울려 이등의 몸과 마음을 기분좋게 위안하고있었다. 이등이 정자에게 말을 건넸다.

《지금 황제의 동향은 어떠냐? 뭐 전번에도 우릴 두구 <섬오랑캐 이등과 장곡천(하세가와)>이라고 욕질했다면서?》

그러자 배정자가 랭소를 하며 대답했다.

《아무래도 일본에 모든걸 빼앗긴 황제이니 앙심이 클수밖에요. 비밀옥새를 잃어버린 뒤로는 줄곧 한숨만 쉬면서 불안해하고있다더군요. 참 어리석기란, 인제야 다 깨진 사발인데 헤그에 밀사나 보내선 대체 뭘 한담. …》

배정자의 비웃음에 이등도 코방귀가 나갔다.

《흥, 만국공법이 불여대포일방이라 했거늘.》

아무리 요란한 국제법이라 해도 대포 한방만 못하다는 이 말은 당시 일본인들이 흔히 외우던 소리였다.

이등박문은 쓰겁게 웃었다.

생각해보면 명치《천황》과 조선황제는 동갑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천양지차인가.

명치《천황》이 일본을 렬강의 반렬에 올려세우고 도요또미 히데요시도 못 이룬 꿈을 달성하여 조선을 타고앉은 반면에 조선 황제는 500여년 사직을 말아먹고 나라를 송두리채 뺏기우지 않았는가.

사실 지난날 서양렬강에 유린당하고 불평등조약을 강요당하기는 일본도 조선과 다를바없었다.

하지만 일본은 나라의 치욕을 씻고 부국강병을 이루기 위해 이를 갈며 아득바득했고 조선을 삼키기 위해 피를 물고 악을 써왔다. 임오군인폭동때 청국에 선손을 떼운 뒤 10여년을 준비하여 일청전쟁으로 그를 밀어냈고 《3국간섭》으로 로씨야에 밀리게 되자 또다시 10년을 와신상담하여 일로전쟁으로 로씨야를 물리쳤다.

그런데 일본이 그렇게 죽기내기로 달려오는 동안 조선의 황제나 고관들은 한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국력을 키워 대세를 극복하려 할 대신 밤낮 어느 렬강에 붙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할것인가에만 골몰해오지 않았던가. 결국 친일과 친로, 친미와 친청을 넘나드는 번다한 외교를 펼쳤지만 이 땅은 어느덧 렬강들의 각축장으로 화하였고 종당에는 망국의 고배를 마시지 않으면 안되게 된것이다.

지금도 벌려놓고있는짓이란게 마루아래 강아지가 다 웃을지경이다. 강대국들에 호소하여 국권을 회복하겠다고 꿈꾸며 헤그회의를 천재일우의 기회처럼 여기고있는 고종에게 다른 렬강들은 제쳐놓고라도 《조선인들을 위해 일본에 간섭할수는 없다.》고 잘라맨 루즈벨트 미국대통령의 본심만 귀띔해줘도 좀 정신을 차릴는지.

강자앞에서 약자는 언제나 죄인이라는 국제무대의 랭혹한 진리

를 아직도 깨닫지 못한 고종이 딱해보이기까지 하였다.

하긴 조선인들모두가 그렇게 암둔하여 헛되이 남만 쳐다보며 살아간다면 일본의 통치가 오히려 수월하겠건만…

《아버지, 무슨 근심이 있으세요?》

등뒤에서 배정자가 어깨를 주무르며 묻는 소리에 이등은 생각에서 깨여났다. 그러더니 밑도 끝도 없는 말을 불쑥 던졌다.

《사다꼬, 넌 내가 밉지 않느냐?》

《예?…》

배정자가 얼떠름해서 되묻자 이등은 멋적은 웃음을 흘렸다.

《어떻든 너도 근본이야 조선인이 아니냐. 그러니 자기 조국을 욕보인다고 여느 조선인들이나 마찬가지로 날 욕할 때가 있을테지?》

《호호호…》

정자가 웃음을 터뜨렸다. 한동안 할근거리며 간드러지게 웃던 그 녀자는 이윽고서야 여전히 웃음기가 사라지지 않은 목소리로 례사로이 대답하는것이였다.

《난 곳은 조선이지만 절 이렇게 키워준건 아버지이고 일본이예요. 조국이라는것도 선택할수 있는게 아니겠어요. 아버지, 전 가난하고 무력한 이 땅을 조국이라고 생각해본적이 없어요. 제겐 아버지면 그만이예요.》

《허허…》

이등박문은 흠흠해하며 턱수염을 쓸어만졌다.

배정자의 말이 거짓이 아니라는것을 그는 잘 알고있었다. 조선인이라는 의식이 별로 없는 정자에게 있어서 자기에게 은혜를 베풀어준데다 강하기까지 한 일본을 조국으로 받아들이는것은 너무도 자연스러운 일일것이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조선인들이 다 배정자 같은것은 아니였다. 인류사에 전례가 없는 국채보상운동이라는 희한한 광경을 목격하면서, 경향각지에 창궐한 의병들을 진압하라고 매일같이 목대를 세우면서 이등은 지심깊이 끓어번지는 암장과도 같은 조선민족의 저력에 날이 갈수록 등골이 서늘해져갔으며 썩은 생선마냥 부패하고 무능한 이 나라 지배층을 휘여잡는것으로 모든것이 끝나지 않으리라는것을 몸서리치게 예감하고있었다.

그가 《합병》문제를 조심스럽게 대하는 주되는 까닭도 거기에 있었던것이다.

실눈을 짓고있는 이등의 눈거죽속에서 회색눈알이 불안스레 반짝거렸다.

우찌다의 말마따나 이 땅을 영원히 타고앉자면 조선인들을 배정자나 송병준이 모양으로 동화시켜야 하고 그러자면 조선인들의 마음속에 일본에 대한 사대심을 불어넣어야 한다. 방도는 그것밖에 없다.

배정자나 송병준이 왜서 그리도 일본에 충성을 다하는것인가. 제 나라와 민족은 보잘것없으니 일본에 기대여야 부귀영화를 보장받을수 있다고 굳게 믿고있기때문이 아닌가.

그들처럼 모든 조선인들이 자기 민족의 렬등함을 자인하고 대일본제국의 충량한 신민으로 환골탈태하는것만이 자신의 살길이라고 확신하게 하여야 한다. 바로 배정자를 길들였듯이…

이등은 자기의 어깨를 주무르고있는 정자의 손에 제 손을 얹으며 감회로운듯 말했다.

《네 말을 들으니 널 양딸로 삼던 때가 생각나는구나. …》

《벌써 스무해가 되는군요. …》

배정자의 목소리도 제법 축축해진다.

이등은 고개를 주억거리며 조선에서 도망쳐온 애어린 밀양기생 배분남(배정자의 본명)을 처음 만나던 때를 돌이켜보았다.

어딘가 새침하면서도 이따금 상글거릴 때면 눈초리가 먼저 웃군 하는 묘한 매력을 지닌 계집이였다. 대번에 계집이 마음에 들었다.

더우기 대원군과 련관되여있던 그의 아버지가 명성황후세력에 의해 처형되였다는 사실과 어려서부터 기생노릇을 하였다는 점이 각별한 흥미를 끌었다.

자기 조국에 대해 원한을 품고있고 일찌기 정조가 무너진 계집이 일본의 조선병탄에 유용하게 쓰일수 있다는것을 이등은 어렵지 않게 포착하였다. …

이등이 정자의 손을 잡아 넌지시 제곁으로 이끈다.

정자가 가벼이 한숨을 내쉬며 이등이 앉아있는 안락의자의 팔걸이우에 스스럼없이 걸터앉았다.

온몸의 피가 서서히 달아오르는것을 느끼며 이등은 도자기의 겉면처럼 희고 매끈한 정자의 손등을 쓰다듬었다. 어느새 촉촉히 젖어오른 녀자의 손가락들이 이등의 손안에서 맥없이 놀리는 대로 놀았다.

《마음뿐이였지 그간 네게 제대로 못해준것 같다.》

미안한듯 외우는 이등의 소리에 배정자가 감심한 어조로 대답했다.

《별말씀… 아버진 절 극진히 돌봐주셨어요.》

이등의 얼굴에 능청스러운 미소가 떠올랐다.

그때 배분남의 쓸모를 알아본 이등은 계집이 제 집에서 일하며 거처하도록 해주었고 사다꼬(정자)라는 일본이름을 달아주었다. 남편의 엉큼한 속을 읽은 이등의 안해가 정자를 양딸로 들

이자고 제안했다.

이등은 배정자를 경찰학교에 입학시켜 전문적인 밀정교육을 받게 하는 한편 그의 넋속에 남아있는 조선적인것을 깡그리 제거하게 하였다.

그리고 두말할것없이 기회가 생길 때마다 정자의 호함진 육체를 마음껏 즐기며 장차 일본이 거머삼키려 하는 조선반도를 그려보군 하였다. 조선녀인 배분남은 그렇게 일본녀인 다야마 사다꼬로 동화되였다. …

《넌 나이가 들수록 점점 더 예뻐지는구나.》

흥클한 이등의 손이 배정자의 손에서 슬그머니 녀자의 허벅지로 옮겨갔다.

정자의 눈꼬리가 풀어졌다. 복숭아꽃처럼 발기우리해진 두뺨, 브라우스가 터질듯 들떠오른 흐벅진 젖가슴… 무르익을대로 무르익은 중년녀자의 육체가 이등의 눈앞에 있었다.

이등이 물었다.

《사다꼬, 나를 존경하느냐?》

정자의 입에서 외마디소리가 새여나왔다.

《예.》

이등의 두다리사이가 뜨거워났다. 그는 화끈해진 정자의 허벅지를 움켜잡고 갈린 소리로 뇌까렸다.

《존경한다면 순종해야 하느니라.》

정자가 억눌린 신음소리를 질렀다. 주름치마에 감싸져 나른해진 그 녀자의 다리가 경련하듯 파르르 떨린다.

이등의 눈이 흉포하게 충혈되였다. 이런 순간이 그에게는 제일로 좋았다.

사나이의 무상의 희열은 정복의 순간에 있거늘 안에서는 녀자

들을 정복하고 밖에 나가서는 천하를 정복하는 즐거움이 없이야 무슨 살맛이 있을고.

그 순간 이등은 오늘 저녁 한강을 건느려 한다는 조선군관에게서 옥새를 뺏아내야겠다고 결심했다.

그러지 않아도 고종의 골치아픈 그 비밀옥새때문에 늘 찜찜해있던 이등으로서는 모처럼 입안에 굴러든 먹이를 마다하고싶지 않았다.

설사 옥새를 뺏기웠다 해도 렬강들을 구세주처럼 쳐다보는 조선황제이니 지랄을 쳐서라도 헤그회의와 같은 호기를 놓치려 하지 않을것이다. 그때 가서 미리 짜둔 각본대로 얼음에 박 밀듯 만사를 밀어제끼면 자기를 헐뜯던 야마가따나 하세가와의 표정이 어떻게 변할는지 꽤 궁금한걸. …

이등박문은 손을 뻗쳐 전화기를 집어들었다.

《경무총장을 대라!》

어느 틈에 벌써 이등의 다른 손이 배정자의 가슴으로 엉금엉금 기여오르고있었다. …

6

(그놈이구나!)

오석구는 쥐눈이 찢어지도록 그쪽을 노려보았다.

나무상자를 걸머멘 사내 하나가 방뚝에서 내려와 나루배가 있는쪽으로 가고있었다. 삿갓을 깊숙이 눌러써서 얼굴은 가려볼수 없어도 헌헌한 기골에 씨엉씨엉 걷는 걸음새가 틀림없는 김상건이였다.

저쯤에서 어슬렁대는 행상군에게 황겁히 눈짓을 보낸 오석구는 삿갓을 쓴 사나이를 향해 소래기를 질렀다.

《게 섰거라!》

거의 때를 같이하여 행상군이 나루터 주막집에서 쏟아져나온 한무리의 사내들과 함께 삿갓을 쓴 사나이를 에워쌌다. 그들의 손에는 벌써 권총이 쥐여져있었다.

바지가랭이에서 비파소리가 나게 달려간 오석구가 못박힌듯 굳어져버린 사나이의 삿갓을 떨리는 손으로 벗겼다.

다음순간 오석구의 얼굴이 락태한 고양이상이 돼버리고말았다.

말총같이 덮인 구레나룻, 쑥 들어간 우멍눈… 붙들린 사나이는 김상건이 아니였던것이다.

《그자가 틀림없는가?》

행상군으로 변장한 왜헌병이 다가서며 잡아비틀듯 따져묻는다. 오석구가 목구멍에서 웃음소리를 짜내며 변명했다.

《헤헤… 곤도중위님, 제가 잘못 본것 같소이다.》

대바람에 곤도의 목덜미가 노기로 부풀어올랐다.

곤도는 믿을수 없다는듯 붙들린 사나이에게서 나무상자를 뺏아 와락 열어제꼈다. 상자안에서 녀자들의 화장품이며 바느실이며 패물따위들이 쏟아져나왔다.

보아하니 방물장사같았다.

《빠가야로(바보자식)!》

독이 오른 곤도가 씨벌이는 소리였다.

오석구가 독수리앞의 메추라기모양 울상이 되여 쩔쩔매는데 따귀라도 갈길듯 석구를 노려보던 곤도는 침을 내뱉더니 부하들과 함께 제 위치로 돌아가버렸다.

오석구도 이를 다그어물며 제자리로 되돌아왔다.

후미진 강기슭에서 습한 바람이 불어왔다. 지난밤의 봉변때 모자를 잃어버린지라 뒤통수를 빡 밀어 얼마 남지 않은 석구의 머리칼이 강바람에 개버들처럼 아양을 부렸다.

(김상건 이놈, 오늘 내 손에 걸려들기만 해봐라.)

오석구는 독살스레 마음을 공그르며 불꽃이 방끗방끗 튀는 눈으로 사위를 휘둘러보았다.

저녁무렵이 되자 나루터를 나드는 사람들이 꽤 많아졌다.

독이며 시루를 키가 넘게 지게에 동여진 장정도 있었고 괴춤에 장죽 하나를 지르고 슬렁슬렁 걸어가는 갓쓴 늙은이도 있었으며 젖먹이를 업은채 다 팔지 못한 광주리들을 포개여 머리에 인 아낙네도 있었다.

까칠한 검둥개 한마리가 나루막앞에서 기슭에 매놓은 배를 물끄러미 쳐다보며 꼬리를 흔드는데 허리굽은 사공은 이물에 걸터앉아 사람들이 다 타기를 기다리며 곰방대에 담배를 우겨넣고있었다.

적막이 깃들기 시작하는 저녁대기를 찢어발기며 기적소리가 울

려온다. 얼마 멀지 않은 곳에 있는 철교우로 시커먼 기차가 연기를 뿜으며 지나는 모습이 눈에 띄였다.

한강에 철교가 놓이기 전보다는 퍽 한적해졌지만 아직도 이 노들나루는 여러 나루들과 함께 한강을 건느는 중요한 길목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있었다.

초조히 《히로》표 일본담배 한대를 붙여문 오석구는 치미는 조바심을 쓰거운 담배연기와 함께 꿀떡 삼켰다.

(분명 김상건이가 오늘 저녁에 노들나루로 나온다고 했는데… 혹시 칠성이란 놈이 날 속인건 아닐가?…)

칠성이란 오석구와 한고향마을에서 산 손아래사람이였는데 시위대에서 병정노릇을 하고있었다.

한고향사람이라고는 하나 향리집안인 석구의 집은 농군집안인 칠성이의 집과 어울린적이 없었고 그런것으로 하여 오석구는 한성에서 칠성이와 몇번 마주쳤어도 별로 아는체 하지 않았었다.

그러한 곽칠성이 오늘 아침에 급작스레 자기를 찾아왔을 때 오석구는 저으기 어리둥절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더구나 석구를 놀라게 한것은 곽칠성이 가져온 쪽지였다.

뜻밖에도 거기에는 함께 의병이 되자면서 결심이 서면 저녁에 노들나루로 나오라는 김상건의 글이 적혀있는것이 아닌가.

곽칠성의 말이 어뜩새벽에 병영파수를 서러 나갔더니 지나가던 거지애가 자기한테 전해주더라는것이였다.

《…제가 평소에 김참위럴 많이 따랐지라오. 그래서 저한테 그런 쪽지럴 보내온가봐요. 쪽질 보구나니까니 등골에서 살얼음이 서걱거리는것 같더랑께요. 글쎄, 아무리 김참위럴 따른다 해도 어떻게 릉지처참당할게 뻔한 그런 일에까지 머릴 들이밀수 있겠

습니껴. 게다가 간밤에 김참위럴 잡겠다구 일본헌병대까지 들이닥쳤던걸 봐선 필시 뭔가 심상치 않더랑께요. 그래 골머릴 앓다가 이렇게 형님얼 찾아왔어라오. 어쨌건간에 이런 일얼 상론할데라구야 이 한성안에서 석구형님밖에 더 있능기라오. …》

듣고보니 한성에 인연이라군 꼬물도 없는 칠성이같은 촌무지렁이로서는 십분 그럼직도 한 일이였다.

여하튼 오석구에게는 아닌밤중에 차시루떡이 아닐수 없었다.

간밤에 일본장교를 따라 대한문에 갔다가 혼자 살아남은탓에 밤새껏 일본헌병대에서 지독하게 닥달질을 당한 그였던것이다.

이 정보를 헌병대에 알려 김상건을 붙잡게 하고 그가 가로채갔다는 황제의 비밀옥새를 일본인들이 다시 손에 넣게 한다면 오석구는 일거에 자기의 결백을 증명하고 잃어버렸던 신임을 되찾을수 있었다.

비단 그뿐이랴. 운이 트이면 출세의 기회까지 톡톡히 잡을는지도 모른다.

아닌게 아니라 《을사5조약》이 날조된 뒤 많은 일진회원들이 일본의 비호밑에 벼슬길에 오르고있었는데 그중에는 군수는 물론 도의 장관격인 관찰사에까지 오른자들도 있었다.

자기라고 그것들보다 뭐가 모자라서 그냥 통변노릇이나 하고 있으랴.

석구의 가슴속에서 야심의 검붉은 피가 울컥 솟구쳐올랐다.

본래 오석구의 고향은 전북 익산이였다.

고을관가의 호방아전이였던 그의 아버지는 《오갈퀴》라고 불리울만치 온갖 부정협잡으로 백성들의 고혈을 짜내던 흡혈귀였다. 그의 붓놀림 한번에 숱한 집들이 얼토당토않게 들씌워지는 가렴잡세로 껍데기를 벗기웠고 그렇게 후려낸 재물로 시골아전의 집

은 재상집 못지 않게 흥청거렸다.

그러던 갑오년의 어느 겨울날 격노한 농민들이 밀려와 탐욕무도한 《오갈퀴》를 처단하고 그의 집을 불살라버렸다.

오석구는 졸지에 천길나락으로 굴러떨어졌다. 남은 식구들은 외가로 가고 맏이였던 그는 아버지의 지기가 있는 군산으로 갔다.

거기서 그는 일본인미곡상의 집에 아이를 돌보는 하인으로 들어가게 되였고 그 과정에 일본말을 익히면서 일본의 문물을 동경하게 되였다. 그리고 몇해후에는 주인의 신임을 얻어 서사노릇까지 하게 되였다.

본바탕이 상전에게 붙어사는 아전의 자식이여서 그랬던지 오석구는 일본인들에게 붙어사는 요령을 어렵지 않게 터득하였고 그들의 턱찌끼를 얻어먹는 쏠쏠한 재미에 일본인들의 천지로 화해가는 세상의 변천을 달갑게 받아들였다.

어차피 종노릇을 할바치고는 큰집 종노릇을 하는것이 더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이 일찌감치 생활신조로 굳어졌기에 오석구는 선참으로 일진회원이 될수 있었고 일본과 로씨야사이에 싸움이 터지자 주저없이 일본군의 통변으로 자원해나설수 있었던것이다.

(뭐니뭐니해도 부귀와 권세를 누리자면 일본사람들의 눈에 들고봐야 해. 필경 이 정보를 가져가면 그 사람들도 날 달리 보게 되렷다.)

오석구의 눈에 달이 떴다. 허나 당장 헌병대에 달려가려고 뒤마려운 강아지마냥 덤벼치던 그는 미심쩍은 생각을 털어버릴수 없어 다시한번 저울질해보았다.

정말로 이런 값비싼 정보를 일본헌병대에 가져가는게 땅수일가?

암만 생각해봐도 조폭하고 우직스럽기 짝이 없는 하세가와의

패거리들이 그 값을 제대로 쳐줄상싶지 않았다.

그럼 송병준이한테 가져가봐?

그건 더욱 아니다. 민충이 쑥대에 올라간것처럼 건방을 떨어도 송병준은 어디까지나 일본인들의 말구종에 불과한자였다.

어느 길이 출세의 지름길인가?

긴가민가 바재이던 석구의 생각은 어쩔수없이 통감인 이등에게로 기울어졌다.

통감정치가 시작되자 일진회의 적지 않은 축들이 일본군과의 관계보다 통감부와의 관계에 더 신경을 쓰면서 약삭바르게 움직이고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일본《천황》의 특별한 신임을 받는 이등통감이야말로 이 땅의 모든 권한을 거머쥔 최고권력자가 아닌가.

옳거니! 우둔한 놈이 곰 잡는다고 출세의 지름길을 타려면 아예 이등통감의 줄을 잡아야 한다. 헌데 무슨 수로?…

밤송이같은 턱수염을 매만지던 오석구의 머리에 불쑥 이등의 양딸 배정자가 떠올랐다.

통감이라는 막강한 배경을 등대고 각계의 요인들을 치마자락에 휘감아 주무르는 흑막속의 녀인, 그 녀자의 눈에 든 사내들은 한해도 못되여 벼락출세를 한다는 소문이 항간에까지 자자하게 퍼져있었다.

오석구는 저도 모르게 무릎을 탁 쳤다.

배정자를 찾아가자. 그 녀자가 이등의 애첩이고 밀정이라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니 황제의 비밀옥새와 관련한 중대한 정보가 있다는것을 귀띔하기만 하면야 제가 만나지 않고 견딜라구.

마침 처켠으로 친척되는 사람이 배정자의 집에서 청지기로 일

하기에 오석구는 지체없이 련락을 띄웠다.

아니나다를가 련락을 받은 배정자는 즉시 만나자는 전갈을 보내왔다.

오석구는 배정자가 일러준대로 통감부 문관들이 주로 드나드는 화월이라는 료정의 어느 뒤골방에서 그 녀자와 조용히 마주앉았다.

그가 김상건에 대한 정보를 넘겨주자 배정자의 얼굴에 희색이 넘쳐났다.

배정자는 오석구의 수고를 거듭 치하하면서 일본제국은 석구와 같이 앞을 내다볼줄 아는 반도청년들에게 결코 무관심하지 않을 거라고 달콤한 소리를 아낌없이 늘어놓았다.

오석구는 입이 헤벌어졌다. 그 녀자의 말이자 다름아닌 이등통감의 말로 들려왔던것이다.

마침내 출세의 탄탄대로가 열리는가.

의미심장하게 상글거리는 배정자의 앞에서 그는 너무너무 감지덕지하여 일본을 위해 분골쇄신할 자기의 결심을 몇번이고 곱씹어 외웠다.

그 다음의 일은 예상한대로였다.

이등통감의 불호령이 떨어지자 통감부 경무부와 일본헌병대가 발칵 뒤집혔고 간밤의 사건을 목격한 유일한 증인인 오석구도 일본인들이 그물을 친 여기 노들나루로 나오게 되였다.

물론 곤도를 비롯한 일본헌병들은 이런 소동을 일으키게 한 정보의 제공자가 바로 오석구라는것을 알리 만무했다. …

갑자기 손가락이 따거워나는 바람에 석구는 후닥닥 놀랐다. 담배가 다 타드는것도 모르고 상념에 빠져있었던것이다.

그는 짜증스레 꽁초를 획 뿌려던지고나서 나루터로 오는 사람

들을 서캐 훑듯 뜯어보았다. 하건만 그처럼 눈알을 곤두세우고 찾는 김상건의 모습은 좀처럼 나타날줄 몰랐다.

(이러다 종시 김상건이 걸려들지 않으면?…)

겁이 더럭 났다. 그리되면 배정자를, 그보다는 황송무지하옵게도 이등통감을 속인것으로 되지 않는가.

모처럼 맞닥뜨린 행운의 기회를 억울하게 놓쳐버리는것은 물론 진노한 통감의 미움을 사 쫄딱 신세를 망칠수 있다고 생각하니 오석구는 간이 콩알만해졌다.

하루새 몰라보게 여윈 그의 뺨에서 쥐가 뛰놀았다. 오석구는 흔들리는 마음을 애발스레 부여잡았다.

(아무튼 오늘은 그자와 결판을 봐야 할텐데. …)

벌써 두번째로 김상건에게 걸려 된경을 치른 오석구였다. 그가 김상건에게 처음으로 혼난것은 두해전이였다.

을사년이 저물어가던 그날 오석구가 스즈끼라는 일본순사와 함께 동대문일대의 배오개장거리를 지나고있을 때였다.

불시에 어디선가 왜말이 섞인 서투른 조선말소리가 화난듯이 들려왔다.

《빠가! 가라!》

눈길을 돌리니 청메뚜기같이 생긴 왜인약장사가 약광고하는것을 구경하던 대여섯살쯤 된 계집애를 쫓고있었다.

목이 터지게 약광고를 해도 사가는 사람이 없으니 애꿎은 어린애한테 화풀이를 하는 모양이였다.

《가라, 가라!》

왜장사군이 오도카니 앉아있는 계집애의 정갱이를 구두발로 몰강스레 걷어찼다. 그바람에 어린애가 나동그라지면서 숨 넘어갈듯 자지러지게 우는데 왜장사군이 시끄럽다며 또다시 아이를 걷

어차려들었다.

그때 상투바람의 웬 사내가 허겁지겁 달려와 왜인의 등덜미를 나꾸어챘다.

《이놈아! 아이는 왜 때리느냐?!》

보매 아이의 아버지인것 같았다.

왜장사군이 눈깔을 까뒤집더니 대뜸 사내한테 달려들어 따귀를 갈기며 소리지르는것이였다.

《나니(뭐라구)? 죽기나싶소까?》

사내의 눈에서 불이 번쩍했다.

《이놈의 새끼!》

사내는 이렇게 부르짖으며 왜장사군의 멱살을 움켜잡고 귀통을 드세게 쥐여박았다. 그러자 주위에서 지켜보던 사람들도 와르르 모여들어 왜인에게 욕설을 퍼부었다.

《을사5조약》이 공포된지 얼마 안되는 때여서 조선사람들의 반일감정이 여느때없이 날카로워있던 시기였다.

그런데다가 권력을 등에 업은 왜인장사군들의 횡포에 늘 기를 못 펴고있던 조선장사군들은 때를 만난듯 쌓였던 울분을 터뜨렸던것이다.

사람같지 않은 쪽발이라고, 당장 아이한테 잘못을 빌라고, 다시는 얼씬도 하지 말라고 벌집 터진듯 떠들썩하는 성난 사람들의 틈사리에 끼여 왜장사군은 허둥거리며 갈팡질팡했다.

뜻밖의 광경앞에 오석구가 어쩔바를 몰라하는데 옆에 있던 스즈끼순사가 《고노야로》를 씹어뱉으며 뛰여갔다.

스즈끼는 왜장사군을 몰아대는 흰옷입은 사람들에게 쌍욕을 해대며 마구 밀어제꼈다.

그제서야 정신을 차린 오석구도 황급히 그리로 달려가 듣기 싫

은 비린청으로 게목을 질러댔다.

《썩 그만두지들 못해요! 일본순사가 온걸 못 보나 말이예요! 다들 잽혀가야 정신들 차리겠어요?!…》

칼을 찬 일본순사가 들이닥치는통에 사람들이 물러났다. 엉겁결에 입을 다문 그들의 모양을 보니 오석구는 서슬이 딩딩해났다.

그런 멋에 일본사람들을 따라다니는 그였다.

지금껏 《해라》를 하던 량반들까지도 일본사람들에게 붙어다니는 자기를 알아보고는 하루아침에 《하소》로 말투를 고치는 꼴을 보면서 석구는 정승집 개는 정승대접을 받고 백정집 개는 백정대접을 받기마련이라는 자기딴의 세상리치를 날마다 신바람나게 체험하고있었다.

오석구는 스즈끼가 들으라고 더욱 목에 피대를 돋구어 고아댔다.

《일본사람들 노엽히면 어찌되는지 알지요! 장사구 뭐구 싹 다 말아먹구 아주 그냥 신셀 망치구만단 말이예요!…》

그러는데 방금전까지만도 도적개 몰리듯 하던 왜장사군이 악의에 차서 스즈끼에게 조선놈들이 자기를 죽이려 했다고 아부재기를 치는것이였다.

스즈끼는 우악스레 눈망울을 굴려 조선사람들을 휘둘러보다가 좀전의 그 아이아버지를 가리키며 왜장사군에게 뇌까렸다.

《오이, 저놈을 묶어라!》

순사가 넘겨주는 포승을 받아쥐고 왜장사군이 호기등등해서 아이아버지에게로 다가가자 둘러섰던 사람들속에서 다시금 격분한 목소리들이 터져나왔다.

《저 약장사놈이 애꿎은 아이헌테 먼저 발길질을 했소!》

《왜 죄없는 사람을 잡아가는거요?!》

《도둑이 매를 든다더니 허 참…》

스즈끼는 칼자루를 눌러쥐며 험상궂게 눈을 지릅떴다.

《죄가 있는지 없는지는 가서 조사해보면 안다! 그냥 그렇게 떠들면 모조리 다 잡아가고말테다!》

스즈끼가 왜말로 이렇게 으르딱딱거리자 오석구도 순사를 본따 눈을 지릅뜨며 조선말로 옮겼다.

(이런 미련한 백성들이라구야, 일본사람들한테 엇섰댔자 하루 강아지 범한테 덤벼드는 격이라는걸 아직도 깨닫지 못하다니.)

일본의 위세이자 자기의 위세라고 생각하는 석구였다.

시키지도 않았건만 그는 제가 마치 순사이기나 한듯이 달려가 억이 질린 아이아버지를 잡아묶는 왜장사군을 거들어주었다. 사방에서 륙실헐 놈이라느니, 망둥이같은 놈이라느니 하는 귀따가운 욕소리들이 들려왔지만 스즈끼의 두눈에 흡족해하는 빛이 떠도는것을 보니 석구에게는 그깐 소리들이 개짖는 소리만치도 여겨지지 않았다.

그때였다.

난데없이 《멈춰라!》 하는 고함소리가 터지더니 기골이 름름한 조선군대 참위가 모여든 사람들을 헤치며 나서는것이였다. 여러명의 병정들이 그의 뒤를 따르고있었다.

스즈끼도 오석구도 혼맹이가 빠져 어리벙해있는데 참위는 단박에 병정들을 시켜 묶이운 사람의 포승부터 풀어주었다.

그러고나서 불이 펄펄 타는 부리부리한 눈으로 스즈끼를 찍어보며 말했다.

《난 시위대 참위 김상건이다. 순사라면 응당 만사를 공정하게 대해야 할게 아닌가. 그런데 해를 끼친자는 그대로 놔두고 되려

해를 입은 사람을 붙잡아가는건 웬 까닭인가? 당신네 일본경찰들 눈엔 조선사람들은 리유불문하고 다 죄인으로 보이는가?!》

이를데없는 그 소리에 여기저기서 호응하는 소리들이 장작불 튀듯 튀여나왔다. 오석구가 굳어진 혀를 가까스로 놀리며 김참위의 말을 통변하자 스즈끼의 상통에 검푸른 피가 솟구쳐 퍼졌다.

스즈끼는 악에 받쳐 코구멍을 벌름거리며 호통을 뽑았다.

《건방지게, 일본경찰이 하는 일에 조선군대가 무슨 상관인가? 너희들도 일본사람들의 지휘를 받아야 한다는걸 잊었는가?!》

오석구가 스즈끼의 말을 잽싸게 옮겨 외웠다.

김참위의 솔잎같은 눈섭이 부르르 떨렸다. 고통과 치욕, 분노가 뒤엉킨 눈길로 스즈끼를 후려갈길듯 노려보던 참위가 불을 토하듯 입을 열었다.

《황궁과 도성의 안녕을 지키는것은 시위대의 임무다. 일단 우리 관할지역에서 일어난 사태인것만큼 그대로 지나칠수 없다!》

이렇게 쏘아붙인 김참위는 병정들을 돌아보며 당장 왜장사군을 포박하라고 벼락령을 떨구었다.

순식간에 병정들이 달려들어 죄없는 조선사람을 결박했던 포승으로 왜장사군을 꽁꽁 묶어놓았다.

왜장사군이 스즈끼를 바라보며 급해맞은 소리를 지르는데 지켜보던 사람들이 잘한다느니, 십년 묵은 체증이 쑥 내려간다느니 하며 저마다 속시원해하는것이였다.

《칙쇼!》

스즈끼가 이를 사려물며 칼을 뽑으려들었다. 김참위는 그러는 왜순사를 헌신짝보듯 하며 병정들을 향해 추상같이 호령했다.

《듣거라! 누구든 군무를 방해하는자가 있거든 용서치 말라!

다들 알았는가?》

김참위의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기세가 오른 병정들의 입에서 우렁찬 소리가 터져나왔다.

《옛!》

쇠도끼처럼 시퍼런 조선군인들의 그 기상과 점점 모여드는 사람들의 심상치 않은 웅성거림에 기가 질렸던지 스즈끼는 끝내 칼을 뽑지 못하였다.

《요—씨(좋다).》

스즈끼는 입새로 이렇게 부르짖으며 다급히 꽁무니를 사렸다.

일이 그쯤되자 바빠맞은것은 오석구였다. 홀연 끈 떨어진 뒤웅박이 돼버린 그가 스즈끼를 따라 비실비실 뺑소니치려는데 김참위의 입에서 거듭하여 된벼락이 떨어졌다.

《저자에게도 포승을 지워라!》

이리하여 오석구 역시 포승에 묶인 신세가 되고말았다.

《이보시오 김참위, 나야 통변밖에 한게 없는데 어째서 애매한 사람까지 욕보이는거요?》

비굴과 허세는 쌍둥이라더니 왜순사앞에서는 그렇듯 기고만장해서 지랄치다가 막상 주인잃은 개신세가 되자 죽을상이 되여 빌붙는 루추한 그 몰골에 낯을 찡그리며 김참위는 경멸조로 내뱉았다.

《죄를 따진다면 왜인들한테 알랑거리느라 불쌍한 자기 동포를 구박하고 민심을 소란케 한 당신의 죄가 저 왜장사군보다 더하다는걸 아직도 모르겠는가?!》

둘러선 사람들도 오석구를 손가락질하며 저마끔 된욕을 퍼부었다.

《에잇, 더럽다!》

《가서 왜놈 보발이짓이나 해라!》

보발이란 걸어다니면서 급한 소식이나 문서를 전달하는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였는데 당시 조선에 파견되여오던 왜놈관리들중에는 제 첩을 보발의 지게에 얹어서 부임지로 날라가는자들도 있었다.

결국 《왜놈 보발이짓이나 하라.》는건 왜놈의 첩년들이나 지게에 얹어서 나르라는 소리로서 너절한 왜놈의 앞잡이들에게 배알는 욕설이였던것이다.

김참위의 처분에 따라 그날 포승을 진 왜장사군과 오석구는 왜순사가 묶어가려던 아이아버지에게 끌려 사람들의 조소속에 배오개장거리를 한바퀴 돌지 않으면 안되였다.

그후 오석구는 김참위를 앙갚음하기 위해 일본인들을 등에 업고 피눈이 되여 날치였고 결과 김상건은 조선군부가 관할하는 륙군감옥서에 갇히게 되였다.

허나 군부와 사회계의 배일세력들이 여러모로 힘쓴 덕에 김상건은 몇달후 감옥에서 놓여나올수 있었다. …

오석구는 부글대는 부아통을 삭이느라 또다시 담배를 붙여물었다.

그때 당한 수모를 생각하면 금방 피가 거꾸로 솟는데 원쑤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고 간밤에 또 김상건과 맞다들려 졸경을 치를줄이야.

가슴속에서 돌같은 앙심이 꿈틀거렸다.

어떻게 하나 그자에게 두번씩이나 혼뜨검을 당한 값을 곱으로 되돌려주리라 윽벼르며 오석구는 피발이 선 눈으로 락조가 비낀 나루터를 훑고 또 훑었다.

여전히 방뚝에서는 나루배를 타려는 사람들이 띄염띄염 그치

지 않고 내려오고있었다.

엿판을 멘 코흘리개며 쭈그렁밤송이같은 농군들, 두엄내 나는 촌색시들… 그런가 하면 등짐을 진 구종들을 거느리고 양복차림에 개화장을 짚으며 여봐란듯이 걸어오는 개화군의 모습도 보인다.

바위같은 잔등에 등짐을 걸머지고 고개를 수굿한채 성큼성큼 걸음을 옮기는 구종들의 모습이 오석구의 눈뿌리를 이상하게 잡아끌었다.

(혹 김상건이 하인으로 변장한건 아닐가?)

오석구는 두눈을 도사려 구종들을 하나하나 뜯어보기 시작했다.

주인의 왼쪽에서 따르는 구종은 버쩍 마른 몸에 지게걸음을 하는 모양이 김상건은 아니였다. 그럼 오른쪽에서 따르는 구종은?…

《담배불 얻읍시다.》

옆으로 지나가던 행인이 건늬는 소리였다. 오석구는 구종들한테서 눈길을 떼지 않은채 귀찮은 파리 쫓듯 담배불을 넘겨주었다.

가만, 주인의 오른쪽에서 따르는 녀석은 왜 저리도 낯판을 잔뜩 수그렸는가? 혹시?…

다음순간 오석구의 심장이 갈비뼈밑에서 흠칠했다.

등골이 죄여들었다. 담배불을 청하던 행인의 목소리가 너무나 귀에 익다는 생각이 뒤늦게야 뇌리를 때렸던것이다.

짜릿한 전률에 사지가 뻣뻣해오는것을 느끼며 석구는 천천히 눈길을 돌렸다.

과연 김상건이 눈앞에 서있었다.

머리를 수건으로 질끈 동인 흰옷차림에 괴나리보짐을 지고 담

배불을 붙이는 그의 태도는 태연자약하기 그지없었다.

오석구의 울대뼈가 꿀꺽 울렸다.

김상건의 그 모습을 대하니 금시까지 앙앙불락하던 기세는 간데 없이 사라져버리고 가슴이 벌벌 떨려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당장에라도 김상건이 지난밤처럼 자기의 이마빡에 시꺼먼 총구를 들이댈것만 같았다.

싸워보기도 전에 주눅이 든 개마냥 오석구가 겁에 질려 쩔쩔매는데 김상건이 담배불을 돌려주며 흔연스레 묻는다.

《날 기다리던 모양이지?》

혐오로 이글거리는 그의 눈빛이 석구의 면상을 뚫을듯이 강렬하다.

오석구의 낯빛이 해쓱해졌다. 뭔가 말하려고 입을 벌리기는 했지만 가드라든 혀를 좀처럼 놀릴수가 없었다.

김상건은 석구의 그런 꼴을 지켜보다가 쓰겁게 씩 웃더니 돌아서서 나루배가 있는 곳으로 씨엉씨엉 걸어가는것이였다.

오석구가 온몸을 와들와들 떨며 곤도를 향해 벙어리시늉을 했다.

곤도가 김상건에게로 마주 왔다. 그자가 허리춤으로 손을 가져가는 순간이였다.

별안간 김상건이 비호같이 내달아 곤도의 동가슴을 발길로 걷어찼다.

곤도가 헉!— 하며 나가넘어지자 주막집에서 왜놈들이 우르르 달려나왔다.

김상건은 눈을 부릅뜨며 우뢰치듯 고함을 내질렀다.

《이놈들!—》

그러더니 권총을 뽑아들고 연방 갈겨대며 왜놈들을 맞받아 달

려나갔다.

어찌나 그 기세가 무서웠던지 달려들던 왜놈들중 더러는 비명을 지르며 너부러지고 더러는 얼혼이 나가 거미새끼처럼 흩어져 달아났다.

주막앞에 왜놈들이 끌고 왔는지 말 한필이 매여있었다. 내처 그리로 달려가 고삐를 푼 상건은 번개같이 말우에 올라타더니 세차게 투레질하는 말을 휘여잡아 냅다 몰기 시작했다.

나루터의 여기저기서 매복했던 놈들이 쓸어나오며 마구 총질을 해댔다. 총알이 가로세로 휙휙 날아왔다.

(네까짓 놈들이 날 잡아보겠다구?)

병정시절 기마술을 익힐 기회가 있었던 김상건은 말이라면 꽤 자신이 있었다.

그는 달리는 말잔등에 바싹 엎드린채 연신 말배때기를 걷어찼다.

귀뿌리에서 바람이 아우성치고 강가의 밭뙈기들이 씽씽 맞받아 날아왔다. 머리우로, 귀전으로 총알이 아츠럽게 스쳐간다.

갑자기 말이 거세게 울부짖으며 곤두박이를 쳤다. 그 서슬에 김상건도 허궁 내동댕이쳐져 밭뙈기에 나딩굴었다.

쑤시는 아픔속에 머리를 쳐들고보니 말은 총탄에 맞아 한켠에서 버둥거리는데 멀지 않은 곳에서 왜놈들이 목이 찢어져라 소리를 질러대며 따라오고있었다.

김상건은 등에 진 괴나리보짐을 더욱 단단히 비끄러맸다. 그리고는 권총을 틀어쥔채 벌떡 일어나 홑몸으로 내달리기 시작했다.

얼마쯤 달리니 한강철교가 나졌다. 김상건은 방뚝으로 달려올라갔다.

그가 방뚝에 올라섰을 때 돌연 《다레까(누구얏)?》 하는 기

겁한 소리와 함께 요란한 총소리가 터졌다.

순간 뜨거운 쇠몽둥이가 왼쪽어깨죽지를 후려치는듯 한 호된 충격과 함께 상건은 앞을 막아나선 누르스름한 형체에 대고 방아쇠를 당겼다. 찢어지는 비명소리와 함께 나자빠지는 몸뚱이를 보니 철교를 지키던 왜놈병졸이였다.

김상건은 비칠거리며 철교에 들어섰다.

호흡이 가빠왔다. 숯불을 삼킨것처럼 목이 타들었다. 그는 쓰러질듯 휘청대는 몸을 가까스로 지탱하며 간간이 놓여있는 침목들을 디디고 나갔다.

시커먼 강물이 천길심연인양 발밑에서 꿈틀거리고있었다. 무정하게 뻗어나간 철길이 어지러이 좌우로 흔들거린다.

하건만 상건은 토막숨을 헉헉 내뿜으며 얼기설기한 트라스의 철골들이 감옥의 철창인양 둘러싸고있는 철길우를 강잉히 걸어나갔다.

조선사람들의 피와 땀이, 한숨과 목숨이 배여있는 철길이였다.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왜놈감독들의 채찍을 맞아가며 하나하나의 침목을 놓았고 얼마나 많은 농부들이 이 철길때문에 하루아침에 땅을 빼앗기고 류랑의 길을 헤매고있는가.

그렇게 놓은 철길로 왜놈들은 조선을 집어삼킬 저들의 군대를 실어왔고 이 땅의 기름진 옥백미와 금은보화를 쉬임없이 실어가고있었다. 오죽하면 아이들까지도 《양귀는 화륜선을 타고 오고 왜귀는 철차 타고 몰려든다》는 동요까지 지어부르고있으랴.

그러한 철길로 지금 이 나라의 한 사나이가 원한품고 걸어가고있는것이다.

추격하던 왜놈들도 철교에 들어섰다. 야멸차게 고아대는 소리가 등덜미를 물어제낄것처럼 따라오는데 위협하듯 쏘아대는

총알들이 철골에 부딪치고 레루에 튕겨나며 채찍마냥 윙윙거렸다.

상건도 놈들을 향해 권총을 쏘며 필사의 힘을 다해 걸음을 다우쳤다. 그러던 그가 철교의 중간어름에 거의 다달았을 때였다.

또다시 날아온 총알이 다리를 꿰뚫는 바람에 상건은 오금을 꺾으며 주저앉고말았다.

고통스러운 경련의 파문이 그의 얼굴에 번져갔다. 어깨며 다리에서 그칠새없이 피가 흘러나오고있었다.

김상건은 깜빡깜빡 흐트러지는 의식을 가다듬으며 달려오는 왜놈들을 향해 방아쇠를 당겼다.

빈 격철 떨어지는 소리가 맥없이 울렸다. 총알이 떨어진것이였다.

드디여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것을 깨달은 상건은 권총을 내던지더니 점점 가까이 오는 왜놈들을 지그시 쏘아보며 피나리보짐을 풀었다.

둘둘 뭉그린 군복속에서 붉은 비단보에 싼 네모진 물건이 나타났다.

다름아닌 간밤에 그가 빼내온 황제의 옥새함이였다.

조심스레 옥새함을 쓸어보고난 김상건은 아프도록 그것을 옆구리에 꽉 끼며 안깐힘을 다해 몸을 일으켜세웠다.

온통 피자박이 된 흰옷바람에 붉은 보꾸레미를 낀채 가슴을 떡 벌리고 버티여선 상건의 모습이 석양볕에 반사되여 불덩이처럼 황황 타번졌다. 달려오던 왜놈들도 그 기개에 아연해져 주춤 굳어져버렸다.

상건은 총에 맞은 다리를 끌며 철교의 가녁으로 다가가 서늘

하게 번쩍거리는 철골에 몸을 의지했다.

저녁해가 진홍색불길을 토하며 벌판 저 너머로 힘겨웁게 넘어가고있었다. 멀리 하늘가에 쇠기러기소리가 아득한데 락조가 비낀 강물우로 돛배 하나가 마포쪽을 향해 떠가는 모습이 보였다.

불현듯 상건의 눈앞에 대동강의 모습이 겹쳐왔다. 대동강을 허리에 휘감은 모란봉이며 그곁에 형제처럼 나란히 떠있는 릉라도의 봄을 다시 보고싶었다.

고향이 그리웠다. 어머니가 그리웠고 안해가 보고싶었다.

작년 가을 고향에 가서 성례를 치르고 온 뒤 안해가 임신했다는 소식을 듣고도 여태 찾아가보지 못한 상건이였다.

그래도 태여날 자식의 이름만은 미리 지어보냈다. 현무라고.

어릴적에 동네아이들과 같이 올라가 놀군 하던 모란봉의 현무문을 떠올리며 강토를 지켜 용맹하였던 고구려조상들처럼 후세에 자랑스러운 남아가 되기를 바래서 지은 이름이였다.

헌데 바라던 아들대신 딸이 생기면 어쩐다?…

김상건의 찢어진 입귀에 한줄기 미소가 비낀다. 그러나 그 미소는 인츰 사라져버리고말았다.

악의에 번뜩이는 눈자위들이 다가오고있었다. 살기띤 호흡소리들마저 이제는 똑똑히 들려오고있었다.

무섭게 노려보는 상건의 피빛안광에서 몸서리치게 하는 섬찟한 의미를 읽었던지 왜놈장교가 졸병들을 멈춰세우고 누군가를 앞에 내세웠다.

김상건은 생쥐같은 오석구의 상통을 알아보았다.

어떻게나 숨이 턱에 닿게 쫓아왔던지 그자의 입아귀에 게거품이 덕지덕지 말라있었다. 왜놈들을 등대고 나선 오석구는 제법

득의양양해서 가늘고 새된 비린청으로 떠벌였다.

《김참위, 대세를 따르기 바라오. 일본이 솟는 해라면 조선은 지는해요. 뭣때메 다 망한 나라를 위해 헛된 피를 흘리는거요. 일본사람들도 김참위의 무사다운 충절과 용맹이 부질없이 썩는걸 가석하게 생각하고있소. 인제라도 마음을 돌려먹구 옥새를 바치시오. 그러면 일본사람들은 당신을 용서하고 부귀영달의 길을 열어주겠다고 하오. 목숨이 아깝지 않소?…》

김상건은 뾰족한 턱을 들까불며 간살을 부리는 석구의 몰골을 역겹게 바라보았다.

대체 저놈한테 나라란 어떤걸가? 추우면 입고 더우면 벗어던지는 핫바지같은걸가? 혹은 길을 가다가 하루밤 묵고나서면 그만인 주막집같은건지도 모르지.

피를 바쳐 지켜야 할 나라도 모르고 겨레붙이도 모르는 저런 놈이 짐승과 뭐가 다르단 말인가.

상건은 비루먹은 개를 보듯 멸시에 찬 비웃음을 던지며 가증스러운 매국노를 준렬히 꾸짖었다.

《목숨이 아깝지 않은가구? 아깝구말구. 나라고 왜 제 목숨이 귀하지 않겠느냐. 하지만 너처럼 왜놈의 개노릇을 하면서 살고싶진 않다. 당장 이 자리에서 사람답게 목숨을 버릴지언정 왜놈 사타귀나 핥으면서 백년천년을 살고싶진 않단 말이다! 사람이면 사람값을 해라, 이 더러운 놈!》

그러고난 김상건은 옆구리에 끼였던 옥새함을 와락 두손으로 그러안으며 왜놈들을 향해 벽력같이 노성을 터뜨렸다.

《이놈들아! 옥새를 바치라구?! 감히 어디다 대구 이 나라의 신성한 물건에 함부로 손을 대겠다는거냐! 조선사람들이 다 죽은줄 아느냐! 네놈들이 날 열백번 죽인다 해도 옥새는 절대로

못 다친다!》

원한과 분노, 증오로 짓타는 불길이 상건의 부리부리한 두눈에서 이글거리고있었다.

문뜩 그의 눈앞에 량기탁이며 리준의 얼굴들이 떠올랐다.

그는 입속으로 절절히 부르짖었다.

《부탁합니다!…》

왜놈들이 달려들었다.

순간 김상건은 마지막 남은 힘을 모아 철골을 떠박지르며 옥새함을 그러안은채 허공으로 몸을 던졌다.

무심히 느물대며 흘러가는 검푸른 한강이 사나이를 강심깊이 삼켜버렸다. …

그날 밤 량기탁은 집으로 찾아온 시위대의 고수머리병정을 통해 김상건의 최후를 알게 되였다.

병정의 이름은 곽칠성이였다.

그때 거기서는 량기탁과 리준 그리고 기별을 받고 대궐에서 은밀히 빠져나온 박상궁이 모여앉아 옥새를 경운궁에 들여보낼 방도를 의논하고있던중이였다.

너무나도 뜻밖의 소식앞에 억이 막혀 꺼멓게 질려있는 그들에게 칠성은 왜서 김상건이 스스로 그런 길을 택했는지를, 어이하여 자기가 형처럼 믿고 따르던 그를 왜놈의 개에게 일러바치지 않으면 안되였는가를 눈물을 삼키며 들려주었다.

《…상건형은 헤여지면서 저더러 꼭 운강선생님얼 찾아가 사연을 전해달라구 당부했지라오. 그래서 이렇게…》

떨리며 흐트러지던 칠성의 목소리가 흐느낌에 잠겨 끊어져버렸다. 비통하게 이그러진 그의 얼굴에 눈물이 어지러이 번져 흘러내리고있었다.

량기탁은 우두커니 천정만 쳐다보다가 바람에 부러지는 수수목처럼 철썩 고개를 떨구고말았다. 그러는 그의 우묵한 눈구석에서도 눈물이 번쩍거렸다.

량기탁은 그제서야 비로소 모든것을 깨달을수 있었다. 헌걸스레 웃으며 작별하던 김상건의 마지막모습이 못견디게 눈앞에 밟혀와 가슴벽을 뻐근하게 하였다.

장한 사나이였다.

태를 묻은 이 땅과 겨레들의 존엄을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 의로운 사나이였다. 저 하나의 안위만을 돌보느라 여념이 없는 비루한 무리들이야 어찌 불같은 그 뜻과 기개를 헤아릴수 있으랴.

량기탁은 숨을 헐떡거리며 터져나오는 오열을 목구멍으로 힘겹게 삼켰다.

박상궁도 흘러내리는 눈물을 걷잡지 못하는데 리준이 주먹으로 방바닥을 내려치며 끝내 격정을 터뜨리고야말았다.

《통분하다, 통분해!》

분노와 슬픔에 충혈된 그의 두눈으로 금시 온몸의 피가 뿜어져나오는것 같았다.

리준은 저세상사람이 된 김상건을 향해 목메여 부르짖었다.

《김참위!— 부디 안심하고 눈을 감으시오! 우리 기어이 그대가 바친 목숨을 헛되이 하지 않을테요!—》

비분에 떨리는 리준의 목소리가 통절한 여운을 남기며 모두의 가슴을 밑바닥까지 흔들어놓았다. …

그후 리준을 비롯한 밀사들은 비밀옥새가 찍힌 고종의 신임장을 받아안고 헤그로 출발하였다.

허나 그들의 꿈은 산산이 부서져버리고말았다.

헤그의 렬강들에게 있어서 국권을 빼앗긴 망국의 군주가 쥐여보낸 조선밀사들의 신임장은 뒤간의 휴지장보다도 못한것이였고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시대에 약자의 목소리는 메아리조차 들리지 않는 가냘픈것이였던것이다.

그토록 고대하던 국권회복의 서광대신 헤그로부터 날아온 리준의 비보를 전해듣던 날 량기탁도 곽칠성도 약소민족의 서러운 숙명을 통탄하며 피눈물을 뿌리고 또 뿌렸다.

제 2 장

1926년 여름

1

《다야마상, 이렇게 뜻밖에 뵈오니 참말로 반갑기 이를데없소이다.》

오석구의 윤기도는 뺨이 기쁨으로 떨렸다.

왜 그렇지 않으랴. 《합병》과 함께 경찰제복을 입은 자기가 오늘처럼 배를 퉁기며 권세개나 누릴수 있게 된데는 바로 이 배정자의 입김이 적지 않게 작용하였던것이다.

그 나날 석구는 정자의 끈을 놓칠세라 단단히 부여잡고 고등계와 보안계를 넘나들며 경부보로, 경부로, 경시로 승진하여 이렇게 조선인으로서는 쉽지 않은 도경찰부 보안과장의 경찰요직에까지 올라앉게 되지 않았는가.

배정자도 여윈 강아지마냥 볼품없던 상판에 제법 볼살이 늘어지고 군턱이 진 오석구의 잔등을 다독이며 반색을 보였다.

《호호, 나도 오석구씨를 만나니 얼마나 반가운지 모르겠어요. 석구씨가 경찰일선에서 제국을 위해 용전분투하고있다는 얘기를 자주 들었어요.》

오석구는 배정자의 말이 마치 총독이나 경무국장의 입에서 흘러나온 치사이기라도 한듯 황공함을 금치 못해하였다.

딴은 그런 소리를 들을법도 하였다.

경찰이 된 첫날부터 일본상전들의 확고한 신뢰를 얻기 위해 동족사냥에 안달발광해온 석구였다. 설사 자기의 친족벌이라도 일본에 반항하는 《불령선인》이라면 가차없이 잡아들이고 소작쟁의나 로동쟁의는 물론 묘지분쟁에까지 이마빼기를 들이밀면서 극성스레 날치는 석구의 기광에 일본인경찰들마저 혀를 내두를 정도였다.

그렇지만 배정자앞에 선 오석구는 목구멍으로 조심스레 웃음소리를 짜내며 연신 허리를 굽신거렸다.

《헤헤, 다야마상께서 돌봐주시지 않았더라면 어찌 저의 오늘을 생각이나 할수 있겠습니까.》

하긴 이 총독부청사에 들어서면 누군지 모를 얼굴들에도 무턱대고 허리를 굽신거리는것이 그의 체질화된 습성이기도 하였다.

20여년간 일본사람들을 섬겨오는 과정에 출세의 곧은길을 달리자면 친일성에 못지 않게 상전의 헌데라도 주저없이 빠는 천부적인 아첨이 중요하다는것을 뼈에 새긴 석구로서는 늘쌍 그렇게 저자세로 처신하는것이 오히려 마음 편했다.

잠시 회포를 나누고난 두사람은 탁자를 사이에 두고 마주앉았다. 양복을 입은 사내 하나가 차를 가져다놓고 사라졌다.

한여름의 뙤약볕이 창유리에서 바글대고있었다.

배정자가 석구에게 차를 권하더니 자기도 차잔을 들어 발름발름 향내를 맡아본다. 오석구는 얼굴에 살이 올라 더욱 작아보이는 쥐눈을 반들거리며 차를 들념도 못한채 배정자를 지켜보았다.

그 녀자는 옷자락과 팔소매에 화려한 매화꽃을 수놓은 기모노를 입고있었다. 쉰고개를 훨씬 넘어선 나이는 숨길수 없어 눈꼬리며 입모서리에 잔주름이 잡히기 시작했어도 아직 요염한 때가

가시지 않은 얼굴이였다.

자기의 유력한 보호자였던 이등박문이 안중근에 의해 저승객이 된 이후에도 배정자의 암약은 그치지 않았다.

《합병》후 일본헌병대의 촉탁이 되여 총독부의 무단통치를 뒤바라지하느라 독기를 뿜던 배정자는 씨비리로 출병하는 일본군을 따라가 일본에 대한 충성과 고급밀정으로서의 기량을 유감없이 과시하였다. 그후에도 일본외무성 촉탁으로, 조선총독부 경무국 촉탁으로 임명되여 봉천(심양)과 상해, 남경 등지를 동분서주하며 조선의 독립운동자들을 잡아내고 친일밀정단체를 만들어내는데서 특출한 솜씨를 보인 배정자, 비록 몇해전에 일선에서 은퇴하였지만 여전히 촉탁이란 명목으로 총독부의 급료를 받는 한편 땅투기로 막대한 재산을 긁어모으고있는 이 녀인의 무시할수 없는 영향력을 오석구는 잘 알고있었다.

그러한 배정자가 다른 곳도 아닌 여기 총독부 경무국의 밀실로 자기를 불렀으니 석구로서는 반가우면서도 은근히 긴장해지지 않을수 없었다.

오석구의 불안한 심리를 넘겨짚었던지 차 한잔을 머금고 얼마간 동안을 두던 배정자가 이윽고 천천히 입을 열었다.

《좀전에 미쯔야경무국장각하를 만났어요.》

《경무국장각하를요?!》

저도 모르게 받은기침이 나갔다. 오석구는 뒤목을 꼿꼿이 세우며 부동자세를 취했다.

배정자가 말을 이었다.

《경무국장각하의 말씀이 며칠전 정체불명의 괴한들이 창덕궁에서 내관으로 있던 사람의 집에 뛰여들어 고종의 옥새를 내놓으라고 했다는거예요.》

《옥새라니요?…》

오석구의 눈빛이 멍청해졌다.

배정자는 차잔을 내려놓더니 따지는듯 한 눈길을 석구에게 박으며 묻는것이였다.

《오석구씨, 황제어새가 생각나세요?》

《?…》

어릿어릿 돌아가던 오석구의 눈알이 갑자기 굳어져버렸다.

근 스무해세월의 두터운 안개발을 헤치며 그날의 서느러운 광경이 섬뜩하니 되살아났던것이다.

아찔한 철교밑으로 흘러가던 검푸른 한강, 옥새함을 그러안고 뛰여내리던 피투성이의 사나이… 멸시에 찬 눈빛으로 자기를 노려보며 개 욕하듯 꾸짖던 김상건의 무시무시한 모습이 후려칠듯 눈앞으로 다가들었다.

오석구가 숨이 막힌듯 선뜻 대답을 못하는데 배정자의 말소리가 들려왔다.

《그 괴한들이 내놓으라고 한 옥새인즉 다름아닌 황제어새라는군요. 흥미있는건 황제어새를 찾는자들이 비단 그자들만이 아니라는거예요.》

점점 아리숭한 말만 늘어놓는 녀인앞에서 오석구는 어리뼝뼝해지고말았다. 석구가 고개를 기우뚱하며 중얼거렸다.

《모를 일입니다. 황제어새야 그때 그자와 함께 한강에…》

흘게빠진 소리를 하는 석구의 그런 꼴을 배정자의 비웃는듯한 눈초리가 잽싸게 훑고 지나갔다.

정자는 단호히 잘라말했다.

《그러니 답은 명백해요. 조선군대 참위와 함께 한강물속에 사라졌다는 그 옥새함에는 옥새가 없었다는거지요.》

《예?!… 그럼 그때 김상건이 빈 옥새함을?!…》

오석구가 아연해하자 배정자가 고개를 끄덕였다.

《결국 우리가 그자의 고육지계에 넘어간셈이지요. 옥새가 한강에 처박혔는데도 불구하고 어떻게 돼서 헤그밀사들이 황제어새가 찍힌 고종의 신임장을 가지고 갈수 있었는지 인제야 석연히 리해되요. 실은 나부터도 그때 고종의 신임장이 황제어새를 경운궁에서 빼내오기 이전에 이미 만들어진거겠거니 하고 무심히 넘겨버렸었지만 말이예요.》

배정자의 목소리는 랭담하게 울렸다.

오석구는 얼친 물고기모양 입을 헤벌린채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럼 김상건이 고종의 비밀옥새를 쫓는 일본인들의 이목을 허튼데로 돌리기 위해 일부러 함정에 뛰여들었단 말인가.

모골이 송연해졌다.

무서운 놈, 일본사람들한테 굽신거리기 싫다고 목숨마저 아끼지 않다니.

죽은 정승이 산 개만도 못하다고 일본사람들의 개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살아야 락을 보지 죽어 한강의 물고기밥이 된 다음에야 국권회복이라는건 어따 쓰고 나라니, 동족이니 하는건 뭐 말라비틀어진건가. 그런다고 망한 나라가 되살아나고 삶은 닭이 꼬끼요할텐가. 미친놈 같으니. …

김상건이 죽어서도 자기를 조소하고있다고 생각하니 오석구의 심장이 독거미인양 꿈틀거렸다.

그러면서도 한가닥의 의문만은 여전히 풀리지 않아 석구는 배정자에게 물었다.

《헌데 리해되지 않습니다. 인제 와서 죽은 고종의 옥새가 무슨 소용에 닿기에 괴한들이 그걸 찾는걸가요?》

그러자 그 녀자의 입가에 야릇한 미소가 번졌다. 배정자는 거느시 의자에 등을 기대더니 담배 한가치를 꼬나물었다.

오석구가 약빠르게 일어나 성냥을 그어주고 재털이까지 받쳐다 놓는다. 잠시후 정자가 다시 입을 열었다.

《여태껏 경무국에서도 고종의 옥새문제에 대해 그런 식으로 치부하면서 별로 주목해오지 않은건 사실이예요. 허지만 알고보니 그렇게 보잘것없게만 여길 문제가 아니더군요. …》

파르스름한 담배연기사이로 비쳐오는 그 녀자의 눈빛이 밀정다운 흥분으로 반짝이고있었다.

배정자는 표정과 억양을 미묘하게 분칠하며 꿍져두었던 보따리를 조금씩 내보이기 시작했다.

《조사해본바에 의하면 고종은 상해에 있는 덕화은행(당시 도이칠란드계은행)에 거액의 내탕금(임금이 개인적으로 쓰던 돈)을 예금해두었다고 해요. 그런데 그 돈을 찾자면 청구서에 반드시 고종의 비밀옥새인 황제어새를 찍어야만 한다질 않나요.》

《아…》

그제야 어렴풋이 깨도가 된다는듯 오석구가 고개를 주억거렸다.

헌즉 고종의 내탕금을 손에 넣으려고?…

납쪼각같이 뿌예있던 석구의 빼대대한 눈에 금시 생기가 돌기 시작하자 배정자의 어조도 한층 달아올랐다.

《황제어새에 눈독을 들이는자들이 노리는게 바로 그거예요. 상해에서 입수한 정보를 들으니 달포전에는 일확천금을 꿈꾸던 웬 사기한들이 가짜황제어새를 찍은 청구서를 가지고 덕화은행에서 돈을 뽑으려다가 허탕을 치고말았다더군요, 흠. … 현재 총독부에서도 상해에 있는 고종의 내탕금을 빼내기 위해 각방으로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 황제어새를 손에 넣지 못한 조건에서 쉽게 락관할 일은 못돼요. 총독부가 제일 우려하는건 고종의 비밀자금이 국내나 해외의 독립운동단체들의 주머니에 들어가는거예요. 하긴 근래에 와서 불령선인들의 독립운동이 침체기에 빠져든것만은 분명해요. 만주의 독립군들도 군사활동은 거의나 없이 관할구역에 틀고앉아 군자금이나 거두러 돌아다니는 형편이고 상해에 요란스레 <림시정부>간판을 내건 정객들도 청원외교나 벌리면서 감투싸움으로 세월을 보내고있어요. 그런가 하면 작년에 생겨난 조선공산당 역시 내부의 파쟁으로 조용한 날이 없구요. 그러나 마음을 놓을수는 없어요. 석구씨도 잘 아다싶이 <합병>이 된지도 15년이 넘었지만 조선민중의 반일감정은 여전히 총독부의 가장 큰 두통거리로 되고있어요. 얼마전에 리왕(순종)의 장례식을 계기로 일어난 소요만 놓고봐도 그렇지 않은가요. …》

배정자가 절반도 타지 않은 담배를 비벼끄며 독기어린 한숨을 쏟았다. 내외의 신문들이 《6.10만세사건》이라고 떠드는 그날의 광경이 떠올라 오석구의 얼굴도 대뜸 우거지상이 돼버리고말았다.

《합병》후 일본에 의해 《천황》의 손아래신하격인 《창덕궁리왕》으로 격하되여 조선사람들의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진줄로만 알았던 순종이 아닌가. 그러한 순종의 죽음이 기미년의 만세함성뒤 또다시 그렇듯 조선사람들의 울분을 터뜨리는 기폭약이 될줄이야.

리왕의 상여가 지나가는 종로거리에 새하얗게 뿌려지던 격문들, 열두어살안팎의 보통학교 학생들까지도 소리를 합쳐 터치던 《독립 만세!》의 함성, 대포까지 끌어내여 위협하는 일본군경들한테 맨주먹으로 달려들던 시위군중들…

오석구는 피가 머리우로 올리뻗치는것을 견딜수 없어 친일선

배의 앞이라는것도 잊고 목구멍밑에 눌러두고있던 비린청을 뽑았다.

《하 참, 반디불로 남산을 태우겠다구 덤벼드는 그런 우매한것들을 보면 가소롭기 짝이 없다니깐요. 물수 없으면 짖지도 말랬다구 제깟것들이 만세나 부른다구 대일본제국이 꼼짝이나 하겠습니까, 흥. 다른게 없다고 봅니다. 아직까지도 <합병>을 거역하는 후떼이 센징(불령선인)들은 아주 그냥 이잡듯 사정없이 박멸해버려야 합지요!》

증오에 차 욕지거리를 퍼붓는 오석구의 쥐눈에서 새파란 살기가 튀여나왔다.

그의 언동은 결코 가식이 아니였다. 일본인들의 덕분에 권세와 재부를 차지한 석구에게 있어서 일본제국은 곧 하내비였고 일본인들이 없는 세상에서 산다는것은 상상조차도 하기 싫었다.

하기에 그는 일본제국의 원쑤를 자기의 원쑤로 여겼고 독립이라는 말을 듣기만 해도 눈에 칼을 세우군 하였던것이다.

배정자의 얼굴에 회심의 미소가 떠올랐다. 경찰로서의 촉각과 자질이 좀 모자라긴 해도 일본제국에 대한 충성도만은 나무랄데 없는 오석구였다.

총독부가 요구하는 조선인들이 바로 이런자들이였다.

바늘로 이마빡을 찔러서 일본인의 피가 나올만큼 동화된 조선인들, 대일본제국이 먹여주고 지켜주지 않으면 한시도 살아갈수 없다고 믿는 조선인들이야말로 총독부가 그려보는 멀지 않은 앞날의 조선인상이 아닌가.

배정자 역시 현명한 조선인들이 갈길은 그 길밖에 없다고 믿어의심치 않기에 오석구의 분노에 공감을 표시했다.

《옳은 말이예요. 오늘 석구씨를 만나자고 한것도 그때문이예

요. 이전에 이등통감께서 <황실개혁>의 명분으로 조선황실재산의 대부분을 통감부가 장악하도록 하신 까닭이 뭐겠어요. 통감정치를 위한 자금확보문제도 있었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황실의 재산이 독립운동자금으로 류용되는것을 차단하기 위해서가 아니였겠어요. 친로파관리였던 리용익이 제일은행에 예금했던 수십만원의 거금을 통감부가 세인들의 비난을 무릅쓰고 탈취한것도 그 때문이였지요. 우리도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고종의 내탕금이 불온분자들의 손에 들어가지 못하게 해야 해요. 뿐더러 고종의 비밀자금에 눈독을 들이는 국내와 해외의 독립운동세력들을 황제어새를 미끼로 해서 일망타진해야 하고요. 난 오석구씨에게 이 일을 맡기면 기대에 어긋나지 않을거라고 경무국장각하께 제안했어요.》

《예? 제가 말입니까?!…》

오석구가 제 귀를 의심하며 엉거주춤 궁둥이를 쳐들었다.

그러는 석구를 저울에 달아보듯 찬찬히 눈여겨보던 배정자는 눈웃음을 치며 말을 계속했다.

《물론 일의 성격으로 봐선 고등계의 소관이지만 석구씨도 한때 고등계형사였고 더우기는 이미전에 황제어새사건에 관여한적이 있는지라 적임자라고 생각한거예요. 경무국장각하께서도 쾌히 동의하셨고요.》

오석구의 심장이 물을 차고 뛰여오르는 망둥이처럼 푸닥거렸다.

자기가 총독부 경무국장의 안중에 든것이다.

출세의 기회를 붙잡기 위해 노상 권력주변에 똥파리처럼 달라붙는 오석구부류의 인간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귀가 번쩍 뜨이는 소리가 아닐수 없었다.

이 기회에 공을 세우면 떡함지에 엎어질테지만 그러지 못하면 경무국장은 더 말할것도 없고 배정자까지도 자기를 칠푼짜리 돼지꼬리만치 여길거라고 생각하니 석구의 속은 벌써부터 달아오른 가마속의 개미마냥 급해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하지만 황제어새라는 행처불명의 물건을 미끼로 불온세력을 일망타진한다는게 어디 떡 먹듯 쉬운 일인가.

오석구는 배정자의 권유를 한입에 닝큼 삼키고싶었지만 선뜻 방책이 떠오르지 않아 우는것 같은 웃음을 지어보였다.

《황송합니다. 저를 관심해주시는 다야마상의 그 은총에 무슨 말루 인사를 올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헌데… 경무국장각하의 뜻을 받들자면 속히 황제어새부터 장악하는게 급선무인데 아직 어디에 있는지조차 분명치 않으니…》

배정자의 내리깐 눈길이 깔보는것처럼 보였다. 얼마쯤 침묵이 흘렀다. 불현듯 그 녀자의 입에서 가느다란 소리가 흘러나왔다.

《짚이는데가 있긴 한데…》

순간 오석구의 눈이 까뒤집혔다. 석구는 온몸이 귀가 되여 석달가뭄끝에 비구름 쳐다보듯 배정자를 바라보았다.

정자가 얄궂은 미소를 흘리며 속생각을 내비쳤다.

《황제어새를 노리는자들의 눈초리가 하나같이 창덕궁에 집중되는걸 봐서 고종의 비밀옥새는 십중팔구 거기에 있는가봐요.》

《창덕궁에요?…》

오석구의 미간이 쪼프려졌다.

창덕궁에서 고종의 옥새를 맡을만 한 인물이 대체 누구인가? 아들인 순종은 이미 저세상사람이 돼버렸고 현재 궁실에서 제일 큰어른은 순종의 안해인 윤대비가 아닌가. 그럼 윤대비가?!…

두사람의 눈길이 음험하게 맞부딪쳤다. 묻는듯 한 석구의 눈빛

에 배정자가 틀림없을거라는듯 고개를 끄덕인다.

오석구는 숨을 끊고 벽우의 한점을 독스럽게 노려보았다.

그렇다면 윤대비가 옥새를 깊숙이 감추었을텐데 어떻게 뺏어낸다?… 골동포에나 가져가야 제격일 망한 나라의 옥새이건만 시아버지가 죽는 순간까지 한사코 부둥키고있었을 왕조의 마지막옥새를 호락호락 내놓을리는 만무하지 않은가.

오석구가 떡 본 도깨비마냥 허발을 치며 어찌해야 할지 몰라 안달아하는데 배정자가 넌지시 묻는것이였다.

《석구씨도 풍문을 들었을테지요. 요새 윤대비의 부친인 윤택영후작이 빚군들 성화에 쩔쩔맨다면서요?…》

난데없이 윤대비의 부친소리가 튀여나오는통에 오석구는 얼떠름해졌다.

아닌게 아니라 순종의 장례를 치른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요즘 신문들에서는 윤택영의 빚추문에 대해 겨끔내기로 떠들고있었다.

그도 그럴것이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 여기저기서 수백만원에 달하는 돈을 돌려 남양원님 굴회 마시듯 꿀꺽하고는 빚독촉을 피해 6년전 베이징으로 도주했던 윤택영이니 아무리 국상을 치르기 위해 귀국한 순종의 장인이라 할지언정 빚군들이 가만있겠는가.

국장이 끝나기 바쁘게 채권자들이 벌떼같이 몰려들어 소송을 제기한다, 법원의 호출에 눈코뜰새가 없다 하며 신문들이 법석대는걸 보면 윤택영이 당하는 빚단련도 어지간한 모양이다.

듣자하니 윤택영은 빚군들의 닥달질이 두려워 창덕궁 내전에 들어박힌채 빚을 갚도록 도와달라고 딸에게 때없이 애걸하고있다는지. …

하건만 총독부의 허가없이는 단돈 한푼 쓸수 없는데야 효심이

깊다는 윤대비인들 무슨 뾰족한 수가 있으랴.

생각하면 어처구니없는노릇이였다. 한때는 부원군이니, 후작이니 하며 서슬푸른 위세를 떵떵거리던 윤택영이 오늘에 와서 빚군들한테 쫓기는 들개신세가 될줄이야.

참으로 알다가도 모를게 인생이라고 생각하며 오석구는 속으로 혀를 찼다.

다음순간이였다. 홀연 그의 뇌리에 배정자가 던진 물음이 되살아났다.

번개처럼 떠오르는것이 있었다. 석구의 미간이 서서히 열리더니 쾌심의 미소가 안개처럼 피여났다.

역시 밀정으로 잔뼈가 굵은 배정자가 달랐다.

오석구의 입에서 탄성비슷한 소리가 새여나왔다.

《아, 알만 합니다.》

두사람의 득의어린 웃음소리가 방안을 울렸다.

얼마후 배정자가 정색을 하며 말했다.

《대일본제국의 운명이자 우리의 운명이예요. 우린 제국에 저항하는 사소한 싹도 절대로 방임해둘수 없어요. <천황>폐하의 홍대하옵신 성지를 받들어 반도를 내지의 영원한 일부분으로 만들어야 한단 말이예요. 그렇게 하는것이 이등각하와 같으신 은사들의 혼백을 조금이나마 위로하는 길이기도 해요.》

배정자가 뒤말을 흐리더니 손수건을 꺼내 눈꼬리를 찍었다.

이등박문이 안중근의 총에 사살되였다는 급보를 듣고 그 자리에서 실신하여 여러달째 일어나지 못하다가 《한일합병》소식에 접하자 병석에 누워있으면서도 만세를 불렀다는 배정자이다.

그 녀자의 골수에 박힌 투철한 친일정신앞에 새삼스레 탄복하며 오석구도 슬픈양 코구멍을 벌룩거렸다. 그러는데 배정자가 이

내 얼굴에 웃음의 분칠을 해보이며 석구를 격려했다.

《이번 기회에 한번 솜씨를 보이세요. 석구씨도 언제까지고 보안과장자리에만 머물러있을순 없지 않아요. 참, 듣자니 아들도 우리 일을 한다면서요?》

사람을 손바닥에 올려놓고 어르는 정자의 능갈친 솜씨앞에 오석구는 불판우에 놓인 엿가락처럼 금시 녹아들었다.

《예, 오주엽이라고 규슈제대 법과를 졸업하구 현재 고등계에서 근무하고있소이다. 헤헤, 그놈이 벌써 그리된걸 보니 나도 인젠 고달픈 이노릇을 그만두구 자그마한 기업이나 하나 차려볼가 하는 생각도 가끔 합니다마는…》

배정자가 어이없다는듯 앙천대소를 했다.

《호호호… 오석구씨답지 않군요. 이왕 제복을 벗을바엔 따분하게 주산알이나 주무르고있겠어요. 당당하게 행정관료로 진출해서 군수가 되고 도참여관도 되여야지요.》

《흐흐…》

오석구가 너무 좋아 피이쩍은 웃음소리를 킬킬 흘리였다.

경찰계에서 어느 정도 승진한 이후 일본사람들의 눈에 들어 행정관료로 옮겨앉아 군수와 도참여관을 거쳐 도지사의 자리에까지 바라오른 행운아들을 석구는 얼마나 부러워했던가.

실은 그의 욕심을 면바로 찌른 정자의 말이였지만 오석구는 아닌보살하며 딴전을 부렸다.

《제가 거기까지야 어찌 감히…》

그러거나말거나 배정자는 속생각이 다 있다는듯 고개를 끄덕였다.

《이번 일만 잘되면 그 문제는 내게 맡기세요.》

오석구는 후닥닥 몸을 일으켰다.

그는 너무도 감지덕지하여 퉁탕대는 가슴을 간신히 누르며 배정자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부르짖었다.

《분골쇄신하겠습니다, 다야마상!》

그 순간 오석구는 얼마전에 관할지역의 한 지주가 뢰물로 섬겨바친 옛 서화진품을 오늘중으로 당장 배정자에게 건네줘야겠다고 결심했다.

(내친김에 아들놈도 소개할겸 주엽이가 직접 들고 가게 하면 꿩먹구 알먹기렷다.)

석구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2

《기생을 불러라!》

종로 인사동의 사동궁에서 백주대낮에 술취한 고함소리가 터져나왔다.

사동궁은 고종의 아들이며 순종의 이복동생인 리강이 살고있는 집이다. 노상 주색에 빠져 무위도식하는 집주인인지라 담장너머에서 어슬렁대며 감시하던 왜놈경찰도 픽 쓴웃음을 웃는다.

오래지 않아 기생을 태운 인력거가 분향기를 날리며 당도했다.

대문이 열리고 인력거가 사동궁 뜰안에 들어섰다. 껑충한 아래도리에 지하족을 신은 인력거군이 인력거를 리강이 거처하는 사랑채의 한옆에 끌고 가 세우자 삼회장저고리를 차려입고 가야금을 든 기생이 내리더니 하인을 따라 사랑채안으로 들어갔다.

혼자 남은 인력거군이 머리에 동였던 수건을 풀어 땀을 씻고있는데 하녀 하나가 총총히 다가와 손에 든것을 내미는것이였다.

《삯을 받으시와요.》

인력거군은 흔연히 삯을 받아 웃도리주머니에 넣으며 인사치레를 했다.

《고맙소이다.》

그리고는 머리수건을 다시금 질끈 동여매더니 팽이처럼 몸을 돌려 인력거를 끌고 출발했다.

하늘은 칙칙하니 흐려있었다. 사동궁밖을 나서자마자 인력거군의 걸음이 차츰 빨라졌다. 그러다가 나중에는 인력거채를 겨드랑이까지 들어올린채 부리나케 달리기 시작했다.

인사동길을 따라 안국동 네거리에 이른 인력거는 거기서 다시 느린 비탈길을 올라가 화동의 골목길로 접어들었다. 옹기종기 들어앉은 초가집들을 지나 얼마쯤 들어가니 꺼멓게 퇴색한 대문이 나타났다.

인력거가 대문앞에 멈춰서자 기다렸던듯 문이 삐걱 열리며 늙수그레한 청지기가 나왔다. 인력거군은 청지기에게 말없이 인력거를 맡기고 대문안으로 들어섰다.

밖에서 보기와는 달리 꽤 큰집이다. 행랑마당을 지나 중문을 넘어서니 안마당과 기윽자로 된 안채가 나졌다.

쇠락한 가세를 말해주듯 물러앉은 한쪽추녀가 쓸쓸하게 비껴왔다.

인품이 넉넉해보이는 늙은 녀인이 대청마루로 나오며 물었다.

《어찌되였나?》

머리는 반나마 세고 눈주름에는 다난했던 세월이 얹혀있어도 흰 모시적삼에 정결하게 쪽머리를 한 녀인의 모습에는 탈속한 녀승과도 같은 고고한 기품이 어려있었다.

《분부대로 받아왔소이다, 마나님.》

인력거군이 공손히 대답하더니 사동궁에서 삯으로 받은 지전을 꺼냈다. 사내는 녀인앞으로 다가가 지전갈피속에 끼여있는 쪽지를 넘겨주었다.

쪽지를 받아든 녀인이 너누룩한 어조로 말했다.

《수고했네.》

인력거군은 대답대신 허리를 굽석하고는 들어올 때와 다름없이 조용히 사라졌다.

중문이 닫기자 쪽지를 펼쳐보고난 녀인이 나직하게 긴숨을 쏟는것이였다. 이윽고 녀인은 안방으로 향했다.

영창문을 드르륵 열고 들어서니 무명적삼차림의 고수머리사나이가 방안에 앉아있다가 배허벅우에 두손을 모아붙이며 벌떡 일어났다.

초조해하는 사나이의 눈길을 받으며 아래목의 보료우에 가앉은 녀인은 사나이가 자리에 앉자 다소 흥분된 어조로 말을 꺼냈다.

《사동궁에서 전갈이 왔소. 의왕(리강의 봉호)께선 고종황제폐하의 비밀옥새를 십중팔구 윤대비마마께옵서 간수하셨을것으로 짐작하고계시오. 하긴 나도 그렇게 짐작했소마는…》

《그렇소이까?》

이렇게 중얼거리는 사나이의 여윈 얼굴에 긴장이 서려있었다.

강파른 모습이였다. 자귀로 찍어낸듯 푹 꺼진 볼편이며 억세여보이는 턱에는 수염터가 꺼칠한데 고수머리카락이 한뭉치 드리운 거무스레한 이마에는 흉터가 깊숙이 패여있었다.

거치른 세월을 살아온듯 사나이의 눈이 이따금 감때사납게 번뜩인다.

사나이는 다름아닌 곽칠성이였고 녀인은 왕년에 고종황제를 가까이에서 섬기던 박상궁이였다.

친형처럼 의지하던 김상건을 왜놈들에게 잃고 조선군대마저 강제로 해산당하자 의분에 불을 질러 의병이 된 칠성은 스무해가까이 동료들과 함께 《왜멸복국》의 뜻을 품고 조선국내와 만주, 로령땅을 수없이 넘나들며 갖은 고생을 치르어왔다.

그 세월 장백의 골짜기들과 만주의 황야에 그들이 뿌린 피와 눈물은 얼마였던가. 때로는 총을 안고 수림속에서, 바위틈에서 밤을 지내기도 하고 때로는 왜놈들의 흉탄에 숨진 동료의 눈을 오장이 찢기는 슬픔속에 감겨주기도 하며 어느덧 만주의 한 독립군부대의 별동대장이 된 곽칠성은 군자금을 모연하기 위해 이렇게 압록강을 넘어 서울까지 온것이다.

그가 군자금때문에 국내에 들어온것은 처음이 아니였지만 이번에 받은 임무는 류다른것이였다.

어떻게 하나 이번 길에 황제어새의 행방을 알아내라는것이였다.

칠성이 떠나올 때 상부에서 내려온 총관령감이 그를 붙들고 신신당부했다.

《우린 거론끝에 자네에게 그 일을 맡기기로 하였네. 자넨 국경을 많이 넘나들어서 국내사정에 밝은데다가 고종황제의 비밀옥새에 관계한 사람들도 알고있질 않나. 곽군, 부디 성공을 바라네. 루차 말했지만 황제어새만 손에 넣으면 고종황제가 남긴 거금은 그대로 독립성전을 위한 군자금으로 될걸세. 허니 이번 길에 군자금모연에 지장이 있더래도 옥새의 행방을 알아보는 일만은 절대로 소홀히 하지 말게.》

황제어새라는 말을 근 20년만에 다시 들은 그 순간부터 곽칠성의 가슴속에서는 검붉은 화염이 피여오르고있었다.

그에게 있어서 황제어새는 임금이 남긴 거금이고 군자금이기전에 그토록 망막에 아프게 새겨진 김상건의 마지막모습이였다.

자기의 귀뺨을 후려치며 꾸짖던 김상건의 성난 목소리가 어제런듯 귀전을 무섭게 때려왔다. 이 땅의 남아다운 그 희생을 헛되게 할수 없다는 심장의 웨침소리가 사나운 파도마냥 흉벽을 쾅쾅 두드렸다.

그렇다. 그 누구의 명령에 떠밀려온 길이 아니였다. 자기자신의 량심의 명령에 화답하여 칠성은 피를 끓이며 이 길에 나선것이였다.

곽칠성은 무거운 눈빛으로 방바닥을 응시하며 생각에 잠겼다.

윤대비가 황제어새를 간수한것이 틀림없다면 그를 설득하는것외에 별도리가 없지 않는가.

하건만 저자거리의 려염집도 아니고 총독부의 철통같은 감시속에 있는 구중궁궐의 녀인을 설득은커녕 만날 방법조차 묘연하니 어찌한단 말인가.

설사 윤대비를 만난다 해도 왜놈들의 칼날이 항시 목을 겨누고있는 살벌한 판국에서 옥새를 독립운동에 선뜻 내놓으리라고는 장담하기 어려운 일이였다.

칠성은 저도 모르게 불한숨을 내뿜었다.

국내로 들어올 때 받은 임무는 황제어새가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는것이였지만 막상 옥새의 행방을 어렴풋이나마 파악하고보니 우물을 발견하고도 드레박을 찾지 못해 물을 못 들이키는 목마른 길손마냥 마음이 갈급해나는것을 참을수가 없었다.

그러는데 박상궁이 천천히 자기의 생각을 말하는것이였다.

《황실을 지켜보는 왜인들의 눈길이 여간 사무럽지 않으니 맞춤한 기회를 봐서 내가 의왕께 청을 넣겠소. 윤대비마마께옵서는 대의를 아는분이시니 의왕께서 나서시여 말씀드리면 외면하시지 않을거요.》

곽칠성은 미심스러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며 박상궁에게 물었다.

《정말로 사동궁에서 이 일을 도와나서리라 믿소이까?》

나라가 망하고 백성들은 피눈물속에 왜놈의 종살이노릇을 하고있는데도 매일같이 술만 마시고 기생이나 끌어들이는 위인이 어떻게 위험천만한 이런 일에 발을 들여놓을수 있다고 믿는지 그로서는 좀처럼 리해되지 않았다.

칠성의 속마음을 들여다본듯 박상궁이 조용히 웃었다.

《그 어르신네에 대해 불미한 소리들이 많지만 기실 황족들가운데서 일본을 제일 미워하는분이 의왕이신줄 아오.》

박상궁의 말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것이였다.

본의든 강요때문이든 일본의 꼭두각시가 되여 비루한 삶을 이어가는 고종의 일족들가운데서 그래도 옛 황족의 자존심을 지켜 오기라도 부리는 유일한 인물이 바로 의왕 리강이였던것이다.

《한일합병》직후 벌어진 연회판에서 울분을 누를길 없어 강주정을 부리던 리강이 자기를 나무라는 데라우찌에게 《이놈, 무엇이 어째? 너 죽고 나 죽자!》고 권총을 뽑아들었다는 일화며 어느 술자리에서 이전 대신들을 향해 《우리 아버지를 팔아먹은 놈들이 여기 있구나!》 하고 호통을 쳤다는 일화들은 지금도 궁인들의 입에 종종 오르내리군 하는 이야기거리였다.

그렇듯 왜적들과 매국역신들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맺혀있는 리강이기에 안중근에 의해 이등박문이 사살된 뒤 자기를 일본에 사죄특사로 보내기로 한 리완용내각의 결정을 완강하게 거절했던것이고 기미년의 만세함성이 터지자 독립된 제 나라의 평민이 될지언정 일본의 황족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고 선언하며 서울을 탈출하여 중국으로 망명하다가 단동에서 일본경찰에 붙들려 강제

송환당한것이 아니겠는가.

그후 총독부의 혹독한 감시속에서 연금상태에 놓이게 된 리강은 절망감을 달래기 위해 주색에 빠지기도 하고 그러다가는 때없이 천장에 대고 권총을 쏘아대기도 하면서 괴롭고도 허무한 세월을 보내고있었다.

그러나 그러한 방종속에서도 왜적에 대한 증오와 독립에 대한 미련은 여전히 리강의 가슴속에 잉걸불처럼 이글거리고있어 오늘처럼 기회만 생기면 독립운동을 돕기 위해 제나름으로 왼심을 쓰군 하였던것이다.

곽칠성은 리강의 그런 리면에 대해 자세히는 알지 못했지만 믿음이 비낀 박상궁의 낯빛을 보니 얼마간 마음이 놓여 결심을 내렸다.

《사정이 그러하다면 현재로서는 상궁마나님의 생각을 따르는 길밖에 다른 방도가 없을것 같소이다. 헌데 왜놈들이 언제 냄새를 맡고 달려들지 모르는 형편에서 일을 지내 늦추다가는 랑패를 보기 쉽소이다. 되도록 이른 시일내에 기회를 마련해보시오이다.》

박상궁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소. 고종황제폐하의 마지막옥새를 섬오랑캐들의 손에 더럽혀서야 절대로 안되고말고. 그 옥새를 지키려 목숨까지 내댄 김참위가 지하에서 우릴 지켜보고있질 않소. …》

상궁의 목소리가 초불처럼 떨렸다.

칠성은 울컥 목이 메여왔다. 스무해가 되여오는 오늘까지도 김상건을 마음 한구석에 소중히 간직하고있는 박상궁이 고마웠다.

고종황제가 세상을 떠난 뒤 궁을 나왔지만 임금을 섬기던 지밀나인의 지절과 기품을 흐트림없이 지켜오는 상궁이였다.

임금을 욕보이고 황실을 유린한 섬오랑캐들을 상전의 원쑤이자 자기의 원쑤로 증오하는 상궁이기에 독립전에 나선 사람들과 일찍부터 줄을 잇고있는것이고 반백이 된 오늘까지도 독립을 위한 일이라면 이렇듯 외면할줄 모르는것이 아니랴.

곽칠성이 눈을 슴벅이며 아무 말도 못하는데 박상궁이 문득 생각난듯 묻는다.

《참, 평양에서 산다는 김참위의 처자들은 무고하오?》

칠성은 박상궁의 자상한 기억력에 재삼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예, 얼마전에 소식을 들었는데 다들 별고없이 지낸다 하오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칠성의 얼굴에 비로소 빙그레 미소가 떠올랐다.

웃을 때면 신통히도 아버지를 방불케 하는 김상건의 유복자인 현무가 생각났던것이다. 이태전 황해도에 가는 길에 들려본것이 마지막이니 인젠 그녀석도 장정꼴이 다 잡혔을테지.

곽칠성은 어떻게든 이번 길에 꼭 찾아가봐야겠다고 속다짐을 굳게 했다.

그러는데 박상궁이 좀 기다리라고 이르더니 웃방으로 올라갔다.

잠시후 상궁은 비단수건에 싼것을 들고나와 칠성의 앞에 펼쳐보이는것이였다. 뜻밖에도 금가락지와 은비녀가 아닌가.

《변변치는 못하오만 군자금에 보태주오.》

박상궁이 하는 말이였다.

칠성은 당황해하며 상궁을 만류했다.

《그러지 마시오이다. 상궁마나님께선 전번에도 적지 않은 군자금을 기부하시지 않으셨소이까.》

하지만 박상궁은 도리머리를 흔들었다.

《비록 내인이긴 하나 나도 왜적들에게 원한을 품고 사는 조선의 망국노요. 이 집을 통채로 팔아서라도 나라가 독립되는 날을 볼수만 있다면 무엇이 아깝겠소.》

사무친 소망이 상궁의 눈에 눈물같이 배여 후르르 떨었다.

곽칠성은 그 모습을 보기가 괴로워 눈길을 떨구고말았다.

어찌 박상궁뿐이랴. 왜놈들의 발굽에 짓밟혀 치욕을 씹고있는 조선사람모두가 일일천추로 갈망하는 독립의 날이 아닌가.

그런데 독립군이라 일컬으는 자기들은 이 불쌍한 겨레들을 위해 해놓은게 대체 무엇인가? 그래도 한때는 압록강과 두만강을 넘어다니며 왜놈병영을 친다, 주재소를 답새긴다 하고 기세를 들날리기도 했었건만 인제 와서는 괴멸되고 흩어지다 남은 오합지졸의 부대들이 다도해의 섬들처럼 여기저기 널려져 니전투구의 세력다툼만 일삼고있지 않는가.

그러면서도 염낭이 불룩하게 륙혈포를 차고 군자금을 거두러 다닐 때마다 칠성은 과연 자기들한테 동포들의 피땀이 배인 돈을 요구할 자격이 있기나 한가 하는 가책감에 가슴이 찔려나는 것을 어쩔수 없었다.

지금도 마찬가지였다. 자기를 떠내보내면서 상관들은 황제어새를 손에 넣기만 하면 당장에 변을 낼것처럼 큰소리들을 쳤지만 똑똑한 방략도 없이 목침을 집어던지며 파쟁으로 여념이 없는 그들이 설사 백만금을 손에 쥔들 큰일을 이루랴싶어 칠성의 마음은 더더욱 무거워지기만 했다.

그러던 칠성은 정신을 번쩍 차렸다. 불이 펄펄 타던 김상건의 눈길이 눈앞에 다가들었던것이다.

(안된다. 상건형이 목숨으로 지켜낸 옥새를 왜놈들에게 뺏겨서

는 안된다!)

김상건의 피값이 헐값이 되게 할수 없었다. 김상건이 목숨을 바쳐 새겨준 피타는 당부를 저버릴수 없었다.

칠성의 관자노리에서 피줄이 살아올라 꿈틀거렸다.

구름장틈새로 잠간 새여나온 한가닥의 오후해살이 간신히 울안으로 넘어와 대청마루에 흘러들고 영창문을 통해 용케 안방에까지 스며들었다.

박상궁이 장판우에 번지는 희미한 해살을 귀한듯 손끝으로 쓸어본다. 허나 해살은 이내 자취를 감추고말았다.

박상궁이 구슬픈 어조로 말했다.

《정녕 그 내탕금이 나라찾는 일에 쓰이게 된다면 얼마나 좋겠소. 그리된다면 구천에 계시는 상감마마께옵서도 편히 눈을 감으실게요. 나라를 빼앗기고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시던 우리 상감님을 생각하면 지금도 마음이 쓰리오. …》

지난날을 처연히 회상하는 상궁의 멍한 눈빛이 서러웠다.

더 앉아있기가 힘들었다. 곽칠성은 박상궁에게 당분간 서울에 머무르면서 기다릴테니 소식이 있으면 알려달라고 부탁하고나서 자리에서 일어섰다.

밖을 나서니 부풀어오른 흐린 하늘이 육중한 덩어리마냥 머리우로 흘러가고있었다.

색날은 밀짚모를 눌러쓰고 골목에서 나온 곽칠성은 천천히 종로방향으로 걸어내려가기 시작했다.

점쟁이 하나가 길섶에 자리를 펴고 앉아 찾아온 사람에게 옥추경을 외워주는 모습이 눈에 띄웠다. 양은장수며 땜쟁이가 골목길을 돌고있었다.

《양은 바꿔요, 양은.》

《솔 때워요, 냄비 때워요.》

그러는데 그 소리들을 누르며 어느 골목에서 장작개비를 쥐고 뛰쳐나온 아낙네가 달아나는 애녀석을 쫓아가며 화가 나서 고아친다.

《요 우라질 녀석 같으니, 게 서지 못해!…》

얼마쯤 내려가느라니 안동별궁의 두꺼운 돌담이 두길도 더 되는 높이로 길게 펼쳐져있었다. 별궁의 담장너머로 오래된 은행나무 한그루가 꾸부정히 서서 고적한 뜰안을 굽어보고있었다.

50여년전 순종의 세자책봉식이 조선봉건왕조사상 가장 화려하게 거행되였다는 안동별궁도 지금은 쓸쓸하게 비여있고 부속건물들에 궁에서 나온 얼마 안되는 궁녀들만이 거처하고있다고 한다. 조선의 왕권을 무력화하려는 일본의 책동으로 오래전에 많은 궁녀들이 궁에서 쫓겨났고 쫓겨난 이들은 궁궐근처의 떡집이며 조선옷집에 주저앉아 궁중음식을 가르치거나 궁중복식을 선보이면서 생계를 이어가고있었다.

돌담을 벗어나 행인들의 왕래가 한결 잦아진 안국동 네거리를 건너서자 칠성은 주위를 둘러보았다.

북악산을 등지고 왼쪽으로는 창덕궁이, 오른쪽으로는 경복궁이 지척에 바라보였다.

이 땅의 진짜주인이 누군지 알라는듯 경복궁을 가로막은채 도성전체를 굽어보는 모양새로 오만하게 솟아있는 조선총독부 신청사의 반구형지붕이 눈뿌리를 붙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경복궁을 짓눌러 조선의 기맥을 끊어버리고 백성의 뇌리에서 옛 왕조에 대한 기억과 미련을 지워버리겠다는 왜놈들의 심보가 뻔드름히 들여다보이는 흉체였다.

어둑하니 흐려진 칠성의 얼굴에 비분의 그늘이 어른거렸다.

저걸 짓는데 근 57만가마니의 쌀에 해당한 돈이 들었다던 어느 신문기사가 생각났다. 조선사람들의 등껍질을 벗겨 수탈한 그처럼 엄청난 돈으로 왜놈들이 벌려놓은짓이란게 대체 어떤것이였던가.

수백여년의 력사가 슴배인 경복궁의 대부분 전각들은 되는대로 뜯기워 여기저기로 팔려나가고 궁궐의 오른쪽 망루인 서십자각에 이어 궁궐담장도 헐리다나니 왼쪽 망루인 동십자각만이 찌그러진 네거리 한가운데 외따로 내버려져있었다.

소문을 들으니 경복궁의 정문인 광화문도 총독부 신청사의 정면을 가리운다 하여 머지않아 어느 구석진 곳으로 귀양살이를 가게 된다고 한다.

어찌 경복궁뿐이랴. 퇴위된 고종황제가 쓸쓸한 말년을 보낸 덕수궁은 원래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훼손되였고 새로 들어선 일본인중학교에 밀려난 경희궁의 전각들은 코를 떼여 귀에 갖다붙이고 귀를 떼여 코에 갖다붙이듯 여기저기로 옮겨져 지금은 정문인 흥화문만이 폐허같은 빈터를 지키고있을뿐이다.

그런가 하면 창경궁도 어디선가 잡혀온 동물들이 서식하는 동물원으로, 식물원으로 변모되고말았으니 조선을 타고앉은 왜놈들이 제일 큰 품을 들이고있는것은 다름아닌 조선민족의 자존심을 여지없이 짓밟음으로써 렬등감과 굴종의식을 심어놓는것이였다.

곽칠성은 아프도록 심장이 쿵덩쿵덩 고동치는것을 느끼며 견지동길을 따라 걸음을 계속 옮겼다.

양복점이니, 모자점이니 하는 잡다한 간판들이 이어진 길가에 일본상점들도 적지 않았다. 견지동을 지나 공평동을 끼고 좀 걸어가느라니 화신상회의 간판이 보이는 종로 네거리가 나졌다.

전차가 종을 치며 느릿느릿 굴러온다. 왜놈군대 고관을 태운

시꺼먼 세단차가 먼지를 일으키며 지나갔다.

오가는 사람들이 더욱 빈번해졌다. 양복차림에 가방을 들고 바삐 걷는 사나이도 있었고 상투를 틀고 갓을 쓴채 팔자걸음을 하는 로인도 있었다. 볕에 타서 거무테테한 장정이 소달구지를 몰고 가는데 버선에 구두를 신은 사내가 자전거를 타고 마주왔다.

겨드랑이에 빈 밥곽을 낀 젊은이 하나가 아래를 내려다보며 울상이 되여 서있다. 젊은이의 발밑에서 좁쌀봉지가 쏟아져 나딩굴고있었다. 유까다(일본인들의 여름옷)의 소매자락을 너펄거리며 걸어가는 왜인들이 그 모양을 보며 키득거렸다.

길건너편에 몰락한 량반의 사랑채모양으로 퇴락해가는 보신각의 정경이 비쳐왔다. 보신각의 종소리를 들은지도 까마득한 옛날이다. 3.1만세운동이 일어났을 때 누군가가 한번 크게 종을 울리고 달아난 일이 있었다 한다. 종각모퉁이의 로점주위로 거지애들이 어정거리고있었다.

칠성은 눈길을 왼쪽으로 돌려 종로경찰서를 바라보았다.

경찰서의 옥상우에 되바라지게 솟은 원통형시계탑이 살기를 풍기며 눈을 찌르고들었다. 매국은 합법이 되고 애국은 불법이 되는 식민지의 뒤틀린 질서를 강요하듯 시계탑의 정면과 량측면에 붙은 3개의 시계가 제각기 서로 다른 시간을 가리키고있었다. 경찰서의 현관앞에서 칼을 찬 순사가 아래배에 힘이 그득해서 사위를 두리번거린다.

누를길 없는 증오에 숨이 꺽 막혀왔다.

얼마나 많은 애국지사들이 원한의 저 종로경찰서에 붙잡혀가 형언할수 없는 고초를 당하였던가. 제 나라를 사랑하고 침략자들에게 빌붙지 않은것이 죄라 하여 야수들은 살을 지지고 뼈를 으스러뜨리고 피를 말리며 갖은 고통을 들씌우고있었다.

그러면서 왜놈들은 거리낌없이 지껄인다. 《조선놈은 두들겨패야 말을 듣고 명태는 두들겨야 맛이 난다.》고. 그런즉 놈들에게 있어서 조선인은 사람이 아니라 길들여야 할 짐승이고 맛을 들여야 할 명태에 불과한것이니 망국노의 신세는 얼마나 눈물겨운것인가.

종로경찰서를 노려보던 곽칠성은 입안에 피가 고인듯 한감을 느끼며 또다시 무거운 발걸음을 옮겼다.

종로 네거리를 건너 관철동을 지나서 빨래하는 녀인들의 방치질소리가 들려오는 광통교를 넘어서니 남대문쪽으로 넓게 뚫린 번화가의 량쪽으로 서양풍의 건물들이 줄느런히 서있었다.

울긋불긋한 간판을 높이 매단 상점들에는 일본상품들이 쌓여있는데 거리의 구석구석마다에서 무언지 모를 이국적인 냄새가 풍겨왔다. 인도로 다니는 행인들가운데도 왜인들이 눈에 많이 띄였다.

느긋해서 이를 쑤시며 걷는 유까다바람의 사내들이며 게다를 달달 끌며 따라서는 녀인들, 누런 금이발을 드러내고 낄낄거리며 왜말을 주고받는 양복쟁이들… 그가운데 간간이 주항라 두루마기를 걸쳤던가 양복조끼 앞자락에 금시계줄을 늘어뜨린 상류층으로 보이는 조선사람들의 모습도 보였다.

남대문쪽으로 갈수록 딸깍딸깍 게다짝을 끄는 소리들이 점점더 소란스러워졌다.

그 광경을 바라보며 걷는 칠성의 얼굴은 암울하게 흐려있었다.

전번에 와보았을 때보다도 더한층 왜놈의 세상으로 변모된 서울이였다.

원래 서울의 중심은 광통교밑을 흐르는 청계천의 북쪽이였다. 궁궐과 종묘사직, 주요관청과 지배층의 거주지가 청계천의 북쪽

에 있었고 남쪽은 중인들과 하층민들이 살던 곳이였다.

그런데 40여년전 남산기슭에 일본공사관이 둥지를 튼 때로부터 도성의 중심은 서서히 청계천이북으로부터 이남으로 옮겨지기 시작하였다.

청일전쟁발발후 저들의 거류민수가 빠르게 늘어나자 일본은 전쟁에서 승리한 기세를 몰아 거류지역을 본격적으로 확장했다. 진고개에서 남대문사이에 새 도로가 뚫어지고 일본인들의 주택과 상점, 우편기관과 주재소 등이 명동일대에까지 쓸어들었다.

로일전쟁을 계기로 일본은 방대한 침략무력과 폭발적으로 불어나는 거류민들을 배경으로 청계천의 남촌을 더욱더 왜식으로 뒤바꾸어갔다.

단순히 일본인거류민들의 생활공간을 넓히기 위해서만이 아니였다. 보다는 일본인들의 새 거주지인 남촌과 전통적인 조선인들의 거주지인 북촌의 차이를 하늘땅으로 만들어 《문명한 일본》이 《락후한 조선》을 다스려야 한다는 저들의 론리를 정당화하기 위해서였던것이다.

《합병》후에도 총독부는 도로확장 등 《개발》사업을 청계천이남에 집중하면서 조선의것은 냄새조차 나지 않게 말살해나갔다. 조선은행이며 동양척식주식회사 등 이 땅을 수탈하기 위한 기관들이 남촌에 다투어 들어섰고 백화점들과 상점같은 류통망들도 이 지역에 많이 생겨났다.

그뿐인가. 오랜 유래가 깃든 남촌의 마을이름들도 얼토당토않은 일본식한자어로 마구 뜯어고쳐 진고개는 《본정》, 명동은 《명치정》, 소공동은 조선주둔 일본침략군사령관이였던 하세가와의 성을 따서 《장곡천정》 하는 식으로 《창지개명》을 하였다.

일본인들의 거주지는 명동과 구리개를 넘어 청계천변으로 뻗다

못해 지금은 북촌까지 먹어들어오는 형편이였다.

총독부를 등에 업은 일본상인들의 밀물같은 침투앞에 조선상인들은 나날이 령락하여갔고 조선사람들은 차례차례 도성의 중심을 왜놈들에게 내여준채 변두리로 밀려나가고있었다.

결국 오늘에 이르러 서울의 중심은 청계천의 남쪽으로 확연히 옮겨진것이다.

토목적삼차림의 한 아낙네가 크다만 보퉁이를 머리에 이고 쫓기듯이 큰길을 건너갔다. 아낙네의 손에 잡힌 아이가 배가 고픈지 연신 칭얼대며 따라가고있었다. 무겁게 지게짐을 걸머진 중늙은이가 오그라든 볼편을 푸들거리며 골목에서 나온다.

가난에 결박당하고 강심살이에 주름깊은 그들의 꺼칠한 얼굴들은 화사하게 차려입고 거드름스레 유유자적하는 일본인들의 모습과 판이한 대조를 이루고있었다.

쓰라린 아픔이 칠성의 가슴속으로 불길마냥 번져왔다.

이 땅은 남의 땅이였다.

북악산과 남산은 예나 다름없고 한강수의 흐름도 여전하건만 이 땅의 주인행세는 왜놈들이 하고있었다. 이 땅의 백성들의 생사여탈권을 거머쥔자들도 왜놈들이였고 이 땅의 산과 들을 처분할 권한도 왜놈들에게 있었다.

지어 놈들은 남산을 비롯한 삼천리 곳곳에 신궁과 신사라는것을 세워놓고 백의민족의 얼마저 저들에게 가져다 바칠것을 강요하고있으니 실로 이 땅에서 조선사람들은 남의 집 곁방살이를 하는 이방인이나 왜놈들의 노비가 아니고 뭐란 말인가.

불현듯 칠성의 눈앞에 고종황제를 생각하며 서러워하던 박상궁의 모습이 떠올랐다.

시퍼런 대낮에 두눈을 편히 뜬채 500여년의 사직을 강도들에

게 빼앗긴 고종황제의 원통한 심정은 가히 짐작이 가는 일이다.

허지만 아무리 황제가 비탄속에 몸부림쳤다 할지라도 왜적들의 총칼에 몰려 마소처럼 부림당하고도 모자라 정든 고향과 농토에서 쫓겨나 타향만리를 헤매고있는 하많은 백성들의 비참한 신세에야 어찌 비길수 있겠는가.

어떻든 고종황제야 허수아비로 쓸쓸한 말년을 보냈을망정 제집에 앉아 환갑나이에 고명딸까지 보면서 여생을 지내다가 숨을 거두지 않았던가.

흔히들 리완용이 나라를 팔아먹었다고 말한다. 그러니 리완용만 아니였더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것이라는건가?

하다면 나라가 그 지경이 되도록 옥좌에 앉아있던 황제는 무엇을 하고있었단 말인가.

한시바삐 일본에 맞서 제 힘을 키울 생각은 않고 큰 나라들만 쳐다보면서 귀중한 리권들을 헐값으로 넘겨주었는가 하면 바른말에 귀를 기울일 대신 무당이나 점쟁이들의 말만 들으면서 부패무능의 수렁속에서 허송세월하지 않았던가.

국권을 강탈당할 때 이른바 황족들가운데 왜놈들에게 항거하는 시늉이라도 한자가 있었던가?

한명도 없었다. 을사5적중의 하나인 리지용은 고종황제의 오촌조카였고 《한일합병조약》이 공포되기 전날 기녀와 창부를 불러모아 밤새도록 연회판을 벌려놓은 리재면은 고종황제의 형이였다.

나라가 망할 때 300여명에 달하던 전국 13도의 군수중 총독부 군수는 못하겠다고 사표를 내던진자가 과연 누가 있었던가?

단 한명도 없었다. 그때껏 순종의 신하임을 자처해온 봉건조선의 군수전원이 하루아침에 왜왕의 신하로 돌변하여 총독부 군수

로 둔갑해버린것이다.

물론 사대부들가운데는 민영환이나 조병세와 같이 지조를 지켜 목숨을 끊은이들도 없지는 않았다.

허나 망국의 국치일을 돌아볼 때마다 기가 막히는것은 나라를 팔아먹은 공으로 왜국으로부터 상을 받은 이 땅의 관리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점이다. 마땅히 사직과 운명을 같이했어야 할 수많은 관리들이 《합병》후 왜왕으로부터 귀족의 작위를 받았고 은사금을 받았다.

리완용을 위시한 매국노들에게 무더기로 훈장이 지급되는 바람에 표훈원은 해를 넘기면서까지 훈장을 제조하기에 눈코뜰새가 없었다고 한다. 나라는 망했어도 훈장은 풍년이였던것이다.

망국노가 된 비통함에 겨레가 호곡하고 이 땅의 이름없는 백성들이 피를 뿌리며 왜적에게 항거해나설 때 나라를 망하게 한 대가로 왜왕이 던져준 돈과 훈장을 받아들고 희희락락한 무리들이야말로 개나 버러지와 무엇이 다르단 말인가.

백성의 머리우에 군림하려고만 했지 나라와 백성앞에 지닌 책임에 대해서는 아닌보살하던 통치배들이였다.

황제와 관리들의 머리속에 들어찬 생각은 단 하나 개인과 가문의 부귀영화였거늘 그러한 《어른》들밑에서 어찌 나라가 망하지 않을수 있고 어찌 백성들이 도탄에 빠지지 않을수 있으랴.

곽칠성의 입에서 불같은 한숨이 터져나왔다.

사람에게는 자기가 돌아가야 할 집이 있어야 한다. 하건만 왜놈들에게 나라를 빼앗기고 고향을 빼앗긴채 정처없이 떠돌아다니는 조선사람들에게는 돌아갈래야 돌아갈 집이 없었다.

얼마나 많은 동포들이 왜놈들에게 모욕당하고 착취당하고 고문당하고 학살당하고있는가.

얼마나 많은 조선사람들이 얼어터지는 만주벌과 씨비리로, 풍랑사나운 하와이와 아메리카로 헐벗겨 쫓겨가고있는가.

그들이 조상의 뼈가 묻힌 고국산천을 다시 밟을 날이 정녕 있기나 할가. 불쌍한 백의민족에게 빼앗긴 집을 되찾아주고 나라를 되찾아줄 어른은 과연 이 하늘아래 없단 말인가.

칠성은 울분으로 태질하는 가슴을 부여안고 발길이 가는대로 계속 걸음을 옮겼다. 그러는 그도 이 시각 자기가 김상건이 목숨을 던진 한강철교를 향해 가고있다는것을 깨닫지 못하고있었다.

3

경복궁옆 간동에 자리잡은 윤택영의 집 사랑채안은 악마구리 끓듯 하였다. 집주인측과 일여덟명의 채권자들사이의 담판이 벌써 몇시간째 치렬하게 벌어지고있었던것이다.

저녁무렵이 가까와오고있었다. 하건만 악에 받쳐 펄펄 뛰는 빚군들의 기세는 좀처럼 수그러들줄 몰랐다.

엷은 천으로 지은 하오리에 하까마(가랭이가 넓어서 치마처럼 된 일본인들의 아래옷)를 걸친 본정의 일본인부자 가또가 맞은켠에 앉아있는 윤택영의 대리인을 향해 류창한 조선말로 고아댔다.

《도대체 그게 무슨 낮도깨비같은 소리요! 전답을 담보로 내돈 15만원을 차용해가서는 7년이 지나도록 원리금을 갚지 않고있다가 인제 와서 한다는 소리가 채권액의 1할만 받고 빚을 탕감해달라고? 여보시오! 아무리 왕지네 회쳐먹을 비위이기로서니

세상에 그런 도적놈의 심보가 어데 있소! 누굴 미시리로 아는 거요!…》

가또가 분김에 옆에 놓인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쳤다.

그바람에 탁자우에 놓여있던 재털이에서 담배꽁초 두어개가 튕겨져나와 방바닥에 나딩굴었다.

가또에게 지지 않겠다는듯 다른쪽에서 땅개소리처럼 카랑카랑한 목소리가 기광을 떨었다.

《15만원이락꼬? 항, 난 윤후작으게 30만원얼 대여해준 사람올시다, 30만원! 한달기한으로 30만원얼 빌려줬소만 9년 8개월하고도 닷새를 지내보낸 오늘꺼지도 리자넌커녕 원금조차 받지 못했단 말씀잉기라오. 이봐요. 서변호사, 30만원이 뉘 집 비루먹은 강아지이름인가 하능기요? 앙!》

발까지 탕탕 구르며 과따치는 목소리의 임자는 3년전 서울로 이사온 전라도 함평의 대지주 최박만이였다. 인정머리라고는 새알꼽재기만큼도 있어보이지 않는 최가의 꼬부장한 고리눈이 사납게 희번덕대고있었다.

그는 《합병》후 동척의 앞잡이로 왜놈들을 위해 극성을 부린 덕에 함평벌과 그 린근에선 황새가 10리밖에 날아가 앉아도 최박만의 논밭이라는 말이 나돌 정도로 많은 땅을 그러모은자였다.

그러한 최가가 순종의 장인이며 후작이라는 윤택영의 후광을 믿고 고리대를 놓았다가 그만 날벼락을 맞은것이다.

윤택영의 대리인인 서변호사가 손수건으로 연신 이마전을 훔치며 맥빠진 변명을 늘어놓았다.

《채권자제씨들의 불만을 모르는바 아니오이다. 그래서 이렇게 고두백배 사죄를 올리는게 아니겠소이까. 사실 그간 후작각하께

서도 부채상환때문에 여간만 뇌심초사를 하신게 아니오이다. 뚝섬에 락화생재배도 시도해보셨고 자제분이 미두에도 손을 대보았었지요. 마지막엔 총독부에까지 도움을 청했었소이다. 물론 일이 여의치 않아 어느 하나도 소기의 결과를 거두지는 못했지오만 중망이 깊으신 후작각하의 진심이야 어델 가겠소이까. 보십시오. 부채를 상환하느라 커다란 이 집에 변변히 남은게 뭐가 있소이까. …》

서변호사가 손을 휘둘러 너렁청한 사랑방안을 가리켜보이며 딱한 표정을 지었다.

아닌게 아니라 어제날에는 부원군이였고 오늘에는 후작인 세도가의 집치고는 너무도 초라한 정경이였다.

마호가니나무로 만든 프랑스제가구들과 임금이 하사한 서화며 서양그림들, 금빛추가 흔들거리던 기다란 벽시계와 바닥에 깔았던 푹신한 고급주단, 창가를 장식했던 호화로운 비로도휘장이며 천정에 드리웠던 번쩍거리는 장식등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폐가처럼 텅 빈 방안에는 어느 려인숙에 놓였던것인듯싶은 의자들과 탁자들 그리고 《수여남산》(남산처럼 장수하라는 뜻)이라는 색날은 현판만이 댕그러니 눈에 띄울뿐이였다.

서변호사의 목소리가 자못 절절하게 울렸다.

《채무문제때문에 물설은 이국땅에서 여섯해동안이나 환국을 못하시고 간난신고하시는 후작각하의 고충도 헤아려주시오이다. 그보다도 부친의 일로 자나깨나 념려하시는 대비전하의 심경은 오죽하시겠소이까. 사사로운 채무문제인 까닭에 총독부에서도 이래라저래라 간섭은 못하고있으나 창덕궁과 관계되는 일인지라 내심 채권자제씨들의 선처를 바라고있소이다. 아무쪼록 인지상정으로 살펴들주시기를 바랄뿐이오이다.》

그러나 아무도 귀를 기울이지 않는 그 사설은 눅거리빵부스레기처럼 방바닥에 흩어져버리고말았다.

무섭게 으르렁대는 소리들이 어지러이 터져나왔다.

《듣기 싫소! 그따위 소리나 듣자고 우리가 여기 온줄 아시오!》

《렴치두 가죽안에 있다는데 허 참, 남의 큰돈을 넙적 삼키구서 여태껏 수염을 내려쓸더니만 되려 제편에서 인지상정을 거들다니.》

《흥, 개입에설랑 상아가 돋는댑디껴?》

서변호사가 어쩔바를 몰라하며 장지문이 굳게 닫긴 옆방쪽으로 도움이라도 청하듯 눈길을 보냈다.

사랑방곁에 달려있는 그 방에 다름아닌 화제의 주인공인 윤택영이 있었다.

윤택영은 앙바틈한 몸을 안락의자에 깊숙이 파묻은채 꿀꺽꿀꺽 화를 삼키고있었다.

입귀로 축 처진 그의 코수염이 경련을 만난듯 가늘게 떨리는데 땀방울이 송골송골 돋은 움푹 패인 관자노리에서는 혈관이 풀떡거리고있었다. 몇가닥의 머리카락이 푸스스 흐트러진 벗어진 이마우에 어찌된 영문인지 푸릿한 멍자욱이 나있었다.

순종의 장례때문에 베이징에서 서울로 도적고양이처럼 몰래 돌아온 후 채권자들이 두려워 두달 남짓한 동안 창덕궁 내전에 들어박힌채 밖에 얼씬도 하지 않던 윤택영이였다.

하지만 국상도 이미 끝나고 머지않아 졸곡을 마치면 눈에 홰불을 켜들고 기다리던 채권자들이 아귀처럼 달려들터인데 그 성화를 무슨 수로 막는단 말인가. 더군다나 3년전부터 진행되여오는 자기에 대한 파산재판이 막바지에 이르러 드디여 선고가 눈앞

에 닥쳐왔는데도 채권단과의 막후협상이 좀처럼 진전을 보지 못하자 그는 급해나지 않을수 없었다.

법원이 자기한테 파산을 선고하면 부동산을 포함한 전 재산이 채권자들에게 넘어가는것은 물론 《품위실추》를 리유로 후작의 작위까지 박탈당해 모든 례우가 중지될것이니 그래도 지금껏 총독부가 씌워준 귀족의 감투라도 있어 간신히 버티여오던 윤택영으로서는 눈앞이 아뜩해지는 일이였다.

차라리 귀찮은 모든것을 피해 다시 베이징으로 달아뺄가 하는 생각도 우럭우럭 치솟았지만 천리타향에서 귀양 아닌 귀양살이를 계속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참담해지는 심정을 금할수 없었다.

바빠맞은 윤택영은 친지들과 머리를 맞대고 변통수를 의논했다.

그렇게 해서 마련한 새 협상안이라는게 100명이 훨씬 넘는 채권자들한테 빚진 돈 350만원의 1할인 35만원만 물어주고 나머지 빚돈은 탕감하자는것이였다. 윤택영은 서울장안에서도 손꼽히는 갑부인 형 윤덕영에게 35만원을 마련해주소 하고 부탁했다.

그런데 형이라는 사람은 대뜸 눈알을 곤두세우며 벌컥 화를 내는것이 아닌가. 평생 형을 등쳐먹다 못해 나주막엔 빚바라지까지 시키며 체면을 깎는다는것이였다.

윤택영은 억이 막혀 말이 나가지 않았다.

누가 누구를 등쳐먹었다는건가? 부원군인 동생을 둔 덕분에 상감의 척신이 되고 서슬푸른 세도를 뽐내며 시종원경자리에까지 바라올라갔던게 대관절 누구인가?…

제 주제에 체면을 운운할 계제가 되나? 고종황제의 국장때 장

례식을 주관하는 관리에 임명한다는 첩지를 다량으로 위조하여 《량반이 될수 있는 마지막기회》라고 광고하며 팔고 다니다가 꼬리를 밟혀 망신한게 누구인데, 각종 사기사건에 련루되여 경찰서와 법원을 제 집 드나들듯 하는게 누구인데 뻔뻔하게 그 입으로 체면을 외워대는건가.

동생이 개 몰리듯 빚군들한테 몰려 이역살이를 하고있을 때 세인들의 손가락질도 아랑곳하지 않고 서울장안에서 제일 큰 프랑스식저택까지 인왕산기슭에 어여번듯하니 세워놓은 형이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다른 궁지에 빠진 동생을 쉰 떡 보듯 하는 윤덕영의 태도앞에 윤택영은 젖먹은 밸까지 뒤집혀와 견딜수가 없었다.

그는 형인 대갈대감과 주먹다짐까지 하며 대가리가 터지게 싸웠고 윤택영의 이마에 난 멍도 그래서 생긴것이였다.

결국 35만원은 윤덕영이 부담하기로 락착이 되였지만 정작 난감한 대목은 그 다음부터였다.

어차피 다 받기는 케가 그른 빚인지라 대부분의 채권자들은 마지못해 새 협상안을 수용했지만 받아야 할 빚돈이 엄청나게 많은 일여덟명의 대채권자들만은 협상안을 거부하며 법대로 하자고 마지막까지 버텼던것이다.

난사가 아닐수 없었다. 비록 머리수는 일여덟에 불과해도 과반수의 채권을 그러쥐고있는 그들이 도리를 친다면 협상의 결말은 불보듯 헨둥한것이였다.

물에 빠져 지푸래기라도 붙들고싶은 심정이 된 윤택영은 울며겨자먹기로 창덕궁 담장밖을 나와 소고집을 부리는 채권자들을 간동의 자기 집에서 한번 만나보기로 하였다.

하면서도 시퍼렇게 독이 오른 빚군들앞에 나설 담은 도저히

생기지 않아 이렇듯 대리인만 내세우고 자기는 옆방에 숨어 하회를 지켜보고있었던것이다.

그런데 빚군들의 행악질은 예상했던것보다 더 험악했다.

그전 같으면 땅바닥에 코를 박고 고개를 쳐들 엄두조차 내지 못했을 천한것들이 아닌가. 그러던것들이 갑작졸부가 되였다고 거들렁대면서 귀족을 누데기만치도 여기지 않는 꼴을 보느라니 아무리 낯바닥에 철판을 두르고 웬간한 욕질은 담배 한모금 들이키는 정도로 례사롭게 넘겨버리는 윤택영이건만 목에 피대가 점점 더 동해오르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치받치는 분기를 애써 참느라 윤택영이 가쁜숨을 헐헐거리는데 최박만의 야살궂은 목소리가 다시금 귀청을 두들겼다.

《빚얼 갚느라 남은게 하나도 없닥꼬? 하항— 눈 가리고 아웅하지 마시소. 7년전에 난 총독부에 수차 청원해서도 해결얼 못 보는지라 일본인변호사헌테 의뢰해설랑 윤후작의 동산얼 집행하게 했었지라오. 헌데 윤후작의 소유재산이란게 고작해서 300여원에 불과한게 아닝기요. 내 눈이 다 의심스럽더랑께. 조선귀족얼 대표하는 어른의 재산이 달랑 300여원이라니 어디 말이나 되능게라오. 아니나다를가 웬걸, 차압딱지럴 뗀지 한해도 못되설랑 후작어른이 일본인헌테 전답문서럴 잽히고 4만원얼 차입했다는게 아닝기요. 고급가옥 한채에 1만원얼 부르던 때니까니 4만원이 어디 작은 돈잉게라오. 그렇게 약차한 돈으로 전에 하다가만 집수리공사를 재차 벌려놓았지라오. 항, 빚군헌테 물어줄 돈은 300원밖에 없다면서도 흥야라붕야라할 돈은 암만이고 샘 솟듯 하더랑께. …》

(개똥쇠같은 놈!)

채권자들가운데 협상안을 제일 한사코 반대해나서는자가 바로

저 최박만이다. 돈을 얼려낼 땐 촌부자라고 우습게 봤었는데 알고보니 벼룩이가죽도 벗기려드는 지독한자였다.

눈을 지릅뜨고 사랑방쪽을 노려보는 윤택영의 귀가에 중구난방으로 고아대는 소리들이 또다시 후려쳐왔다.

《그러게 발뺌할 틈사리가 없게 재산추적을 깐깐스레 해야 헌다니! 엉뚱한데다 숨겨놓은 재산이 있을수도 있는거구 또 타인의 명의로 옮겨놓았을수도 있으니껀요. 그리구 그런 사실이 드러나면 페일언하구 재산은닉죄로 고소를 해야 헙니다!》

《거 듣자니 윤후작이 돌연히 북경으로 가게 된건 창덕궁 리왕전하로부터 받은 비밀임무때문이라는 소문도 있더군요. 예전에 덕수궁 리태왕전하(고종)께옵서 원세개에게 개인적으로 금화 30만원을 꾸어주신 일이 있었는데 그 증서가 근래에 발견된지라 윤후작이 원세개의 유족한테서 빚을 받기 위해 증서를 가지고 중국에 건너간거라더군요.》

《흐하하…》

누군가가 너털웃음을 쳤다.

《삶은 소대가리가 다 웃겠소. 설사 리왕전하가 원세개에게서 받을 돈이 있었다손치더라도 <채무왕>으로 평판이 자자한 윤후작한테 그런 중임을 맡겼을라구요. 차라리 고양이한테 반찬단지를 맡겼으면 맡겼지. … 하여튼 윤후작이 하는 일은 알다가도 모르겠습디다. 아무리 국상이라 해도 100여명의 채권자들이 윽벼르고있는 여기로 돌아올 생각을 하다니요. 차라리 이 기회에 국상을 핑게삼아 할복자결이라도 하였으면 충신칭호라도 들을텐데. 흐흐흐…》

좌중에 폭소가 인다.

온몸을 발가벗기우는듯 한 모욕감으로 윤택영의 얼굴이 푸들

푸들 뛰였다. 우는 얼굴에 벌 쏘듯 야지랑을 떠는자는 좀전의 가또였다.

윤택영은 당장 사랑방으로 짓쳐들어가 가또의 나불대는 주둥아리를 쥐박고싶은 충동에 턱을 덜덜 떨었다.

송장메뚜기같은 놈! 지금은 저렇게 큰 부자연하며 건방을 피우지만 근본을 캐보면 저 가또란자도 한갖 생선장수출신이 아니던가. 그런 미천한 놈이 청일전쟁때 조선에 건너와 군대용달을 맡아 기반을 다졌고 그뒤로는 조선조정의 전매품인 인삼을 불법으로 재배하고 가공해서 거부가 된것이다.

이 땅에서 으시대는 왜놈갑부들이 다 그런 식으로 일확천금을 하고 득세를 하였다.

서양가구를 전문하던 어떤자는 조선관청들에 사무용가구들을 도맡아 공급해 거부가 됐고 또 어떤자는 몰락하여 락향하는 량반들의 집에서 골동들을 헐값에 사들여 거부가 되였다. 심지어 손가락 하나 까딱않은채 일본인의 배경이 필요한 조선인들의 회사에 이름만 빌려주고 돈을 번자들도 있었다.

그렇게 성공한 왜인들은 세인들앞에서 자신의 성공을 불굴의 투지와 피땀어린 노력의 결과라고 뻐젓이 포장하군 하였다.

허나 어떤 식으로 돈을 벌었든 그들의 성공의 배경에는 하나같이 일본의 권력이 도사리고있지 않았는가. 일본이 조선의 모든것을 틀어쥐고있는 덕에, 일본군대가 총칼로 뒤받침해준 덕에 조선인들의 재산은 왜인들에게 있어서 벼락맞은 소고기였고 왜인들은 무른 땅에 말뚝박듯 거침없이 성공의 신화를 써나갔던것이다.

윤택영의 입에서 땅이 꺼지도록 괴로운 한숨소리가 새여나왔다.

한때는 임금의 장인으로 뭇사람들의 공경을 받던 자기가, 《합병》후 일본으로부터 제일 높은 작위와 최고액의 은사금을 받았던 자기가 어데서 굴러다니던 말뼉다귀인지도 모를 가또나 최박만 같은자들한테 거지발싸개취급을 당할줄이야.

하긴 비단 윤택영뿐이 아니였다. 나라를 팔아먹은 대가로 일본의 작위를 받은 이른바 《조선귀족》들중 대부분이 겨우 10여년안에 그 많던 재산을 탕진하고 간신히 생계를 유지해가고있었다.

어떻게 되여 그런 일이 벌어졌던가.

원래 조선봉건왕조시대에는 귀족제도가 없었다. 어이없게도 《조선귀족》은 조선이 사라진 이후에 생겨났다.

《한일합병》과 함께 《조선귀족령》을 공포한 일제는 저들의 길잡이노릇을 한 친일매국노들에게 후작, 백작, 자작, 남작의 작위를 주었고 그리하여 황족과 척족이 사라진 이 땅에 귀족이라는 새로운 무리가 생겨나게 되였다.

일본으로부터 작위를 받은 대다수의 귀족들은 명문거족의 후예들로서 워낙 물려받은 유산이 많았었고 봉건조선의 고위관료로 있을 때 부정부패로 긁어모은 재산 또한 방대하였었다. 게다가 작위와 함께 왜왕의 은사금까지 두둑이 덤으로 받다보니 《합병》직후 리완용을 비롯한 많은 매국귀족들이 조선에서 30대자산가의 반렬에 들어있었던것이 결코 우연한것이 아니였다.

그러나 동족을 팔아넘긴 덕에 명예도 줏고 재산도 불쿤 역적들이였건만 잃어버린것도 있었으니 그것은 다름아닌 더없이 소중한 권세였다.

조선을 집어삼킨 뒤 권력의 중심에서 조선사람들을 철저히 배제한 일제는 저들에게 아부굴종하는 친일귀족들까지도 총독부의 허수아비자문기관인 중추원의 한직으로 돌려놓았다. 개원이래 10년

가까이 한차례도 소집되지 않은 중추원에서 친일인사들이 하는 일이란 고문서를 뒤적거리며 총독정치에 참고할 조선의 옛 관습과 제도 같은것들을 조사하는것이였고 그들이 받는 급료는 총독부 관리들에 비하면 너무나 보잘것없는것이였다.

지난날 높은 벼슬자리에 앉아 배꼽이 오강꼭지가 되도록 백성들을 수탈하고 뢰물을 받아먹다가 하루아침에 권세라는 여의주를 왜놈들에게 스스로 섬겨바친 친일귀족들에게 있어서 그것은 뽕밭이 바다가 된것 같은 기막힌 현실이 아닐수 없었다.

《귀족》의 벙거지는 얻어썼어도 실권이 없었고 어제날의 고관대작이였어도 문밖을 나서면 증오에 찬 백성들의 눈총이 돌멩이마냥 날아들군 하였다.

별수없이 친일귀족들은 으늑한 집구석에 바퀴처럼 숨어 무료한 나날을 보낼수밖에 없었다. 밖에 나가봐야 할 일이 없고 집안에는 금의옥식이 가득한데다 흥청망청하며 떵떵거리던 옛시절의 버르쟁이는 여전하였으니 그들이 어떻게 세월을 보냈을지는 자상히 설명하지 않아도 뻔드름한 일이다.

주색잡기와 부화사치가 그들의 일상사였고 날마다 친일귀족집들의 대청마루에서 쏟아져나온 돈뭉치들이 장사치들의 지갑과 노름군들의 염낭속으로, 기생아씨들의 속치마속으로 이리저리 흩어져갔다.

하건만 권세를 부려야 재물이 계속 들어오고 부귀영화를 줄창 이어갈게 아닌가. 이전날에 긁어모은 재물이 아무리 많다한들 돈들어올 구멍수가 막혀버렸는데야 오뉴월 땡볕아래 말라가는 시궁창이나 다를것이 무엇이랴.

몇해가 지나자 친일귀족들의 재산은 바닥이 나기 시작했다.

술값에 몰려서, 기생한테 줄 화대가 모자라서, 아편을 맞자니

돈이 없어서 집을 팔고 땅을 팔고 나중에는 투전질과 사기협잡에 절도죄까지 저지르다가 경찰서에 들락날락하는 귀족들이 점점 늘어만 갔다.

거기다가 엎친데 덮친 격으로 터지는 가족들사이의 재산싸움은 작위 하나만으로는 도무지 막아낼 도리가 없었다.

친일에 앞장선 공로와 황족이라는 신분덕에 경술국치이후 왜놈들로부터 백작의 작위를 받고 중추원 고문이 된 을사5적 리지용의 경우만 봐도 그렇지 않은가.

본래 지독한 노름군이였던 리지용은 《합병》후에도 가산을 탕진하며 투전에 미쳐 돌아치다가 순사에게 발각되여 태형 100대의 판결을 받는 망신을 당했는가 하면 그로 인해 백작의 례우마저 몇년간 정지당해야만 했다. 그러고도 그 버릇을 버리지 못해 끝내는 패가망신하고 지금은 비좁은 세방으로 옮겨가 방세조차 내기 어려워 전전긍긍하고있다니 실로 부유하고 귀해지기는 어려워도 가난하고 천해지기는 쉬운것이 세상의 리치인것 같다.

윤택영은 시르죽은 눈길로 사랑방을 바라보며 비맞은 스님처럼 중얼거렸다.

《처마가 낮으면 머리를 수그리지 않을수 없지. …》

빚군들한테 걸어보았던 실낱같은 미련마저 여지없이 끊겨져나가자 윤택영은 그칠새없이 울려나오는 기승스러운 목소리들에 침을 뱉으며 방을 나섰다.

4

비청거리며 향방없이 발을 내딛다보니 뒤뜰안이다. 담장가의 향나무아래 허름하니 바랜 참대의자 하나가 한적히 놓여있었다.

윤택영은 그리로 다가가 무너지듯 의자에 주저앉았다.

우산처럼 퍼진 늙은 향나무가지들에 석양의 치마자락이 맥없이 걸려있었다. 구불구불 뒤틀린 향나무가지들을 보니 꼭 구겨지고 뒤틀어진 자기 신세를 보는것만 같았다.

윤택영이 만사람을 경악케 하며 《채무왕》으로 군림하게 된데는 그럴만한 사연이 있었다.

1904년에 황태자이던 순종의 첫 안해 민씨가 세상을 떠나자 한다하는 세도가집들에서는 저마끔 자기 가문의 녀자를 순종의 후실로 들여보내기 위한 동궁계비책봉운동을 맹렬하게 벌렸다.

윤택영도 자기 딸을 황태자비로 앉히기 위해 눈에 황달이 떠서 뛰여다녔다.

어떻게 해야 황실과 사돈을 맺어 권세를 떨쳐볼수 있을가? 뭐니뭐니해도 관건은 누가 더 큰돈을 쓰는가 하는것이였다. 돈에 침 뱉는자 없고 돈으로 틀어막아서 안되는 일은 재채기뿐이라지 않는가.

한데 어이하랴, 그에게는 그런 큰일을 치를만 한 돈이 없었으니. 오히려 몇해전에 꾸어쓴 10만원에 가까운 남의 빚돈도 여직 갚지 못해 당장 강제집행을 당해야 할 판이였다.

보통사람들 같으면 그런 형편에서 황실의 사돈자리를 넘본다는것은 꿈도 꿀수 없는 일이다.

허지만 윤택영은 범상한 인물이 아니였다. 누가 그랬던가. 마음을 좁게 쓰면 바늘 하나 꽂을데가 없지만 마음을 크게 쓰면 천하도 얻는다고.

욕심과 비위살이 곰의 발바닥도 찜쪄먹을만치 두꺼웠던 그는 채권자에게 불원간 자기가 황실의 인척이 되니 그때 갚으마고 약속하고 강제집행을 잠시 미루도록 하였다. 그리고는 온갖 감언리설을 다하여 여기저기서 50만원에 달하는 거금을 꾸어다가 고종의 계비인 엄비에게 바쳤고 결과 이태후 끝끝내 자기의 셋째딸을 동궁계비로 들여보내는데 성공하였다.

윤택영은 일약 황태자의 장인이 되였고 한해뒤에는 순종이 등극함에 따라 임금의 장인이 되였다.

그렇게 극성을 부려 권세도 얻고 명예도 얻었건만 윤택영에게는 아직도 골치거리가 남아있었다.

빚단련이였다. 그가 딸을 국모로 앉히고 나라의 부원군이 되자 고리대를 놓고 기다리던 빚군들이 범벅덩이에 쉬파리 붙듯 달려들었다. 어지간한 돈이였으면 황실을 등대고 그렁저렁 메꿀수도 있었겠지만 워낙 엄청난 액수인지라 단김에 소뿔 빼듯 갚아버릴 수 있는 빚이 아니였다.

급해맞은 윤택영은 덮어놓고 순종을 찾아가 《상감마마, 장인 빚 좀 갚아주시옵소서.》 하며 생떼를 부렸다. 자기가 진 빚을 상감인 사위가 대신 갚아달라니 역시 그다운 넉살머리였다.

한들 명색뿐인 상감에게 돈이 있어야 얼마나 있었겠는가.

입이 닳도록 순종에게 간청해도 허사로 그쳐버리자 이번에는 통감부에 손을 내밀었지만 사위도 못 갚아주는 빚을 왜인들이 대신 갚아주겠다고 나설리는 만무한것이였다.

그렇다고 단념할 윤택영이 아니였다.

기회가 생길 때마다 그는 리왕직(일제가 몰락한 봉건조선의 왕실과 왕족들을 감시하고 장악관리할 목적으로 설치하였던 식민지 통치기구)과 통감부를 뻔질나게 찾아다니며 자기 빚을 갚아달라고 물귀신처럼 끈덕지게 물고늘어졌다.

귀신도 빌면 듣는다더니 마침내 절호의 기회가 찾아왔다.

《한일합병조약》이 공포된 뒤 일제가 윤택영의 친일공로와 순종의 장인이라는 지위를 참작하여 후작의 작위와 수십만원의 은사금을 내려준것이다.

윤택영은 입이 함지박만 해졌다. 빚보따리를 완전히 털어버릴 돈은 못되였어도 그런대로 채권자들을 무마할수 있을 정도는 되였던것이다.

헌데 도리여 그것이 더 큰 사달을 불러올줄이야 어찌 알았으랴.

윤후작이 딸을 황태자비로 들여보내기 위해 얻어쓴 빚을 청산한다는 소문이 떠돌자 어디서 나타났는지 난데없는 무리들이 암치뼈다귀에 불개미 달라붙듯 덤벼든것이다.

《왜 나는 쏙 빼놓고 다른 사람 돈만 갚느냐.》고 다그어대는 그들인즉 윤택영이 새까맣게 잊고있던 또 다른 채권자들이였다.

그러니 동궁계비책봉운동을 위해 빌린 돈은 윤택영이 진 빚가운데서 빙산의 일각이였던셈이다.

누구나 살아가면서 빚을 질 때가 있다. 그렇지만 빚을 대하는 태도는 사람마다 똑같지 않다.

대개의 사람들은 빚을 멍에로 여기면서 한시바삐 벗어던지려고 서두르는 반면에 빚을 즐기는 렴치좋은 비게덩어리들도 있다.

안 빌려줘서 못쓰지 빌려준다면 천금인들 마다하랴. 아무리 큰

빚을 졌어도 있으면 갚는것이고 없으면 배를 째도 못 갚는게 아닌가. 이런 배심을 가지고 제 돈 가져다 쓰듯 빚을 가져다 쓰는것도 재능이라면 《재능》일것이다.

윤택영이 바로 그런 《재능》을 가진 인간이였다.

돈이 모자라면 쭈물대지 말고 빌려야 한다. 빚진 돈도 아무튼 내 돈이 아닌가. 아무렴, 제 털 뽑아 제 구멍에 꽂으며 궁상맞게 살바엔 빚낟가리를 깔고앉아서라도 풍청거리며 사는게 잘난 놈이구말구.

윤택영은 배포가 두둑해서 빚돈 끌어들이기를 례사로 여겼다. 뜨르르한 저택도 빚으로 지었고 주지육림의 연회들도 빚으로 차렸으며 총독부 고관들도 빚으로 구워삶았다.

허나 빚진 돈은 분명 《내 돈》이 아니거늘 쓸 때는 좋고 갚으려면 속이 알짝지근해도 내 돈 아닌 《내 돈》이라는 빚의 본성이야 갈데가 있겠는가. 빚군들의 참을성에도 한계가 있기에 언제건 갚아야만 하는것이 빚인것이다.

윤택영이 당장 급해맞은 부채만 상환하는 시늉을 하고 대부분의 부채에 대해서는 이붓아비 제사날 미루듯 채무리행을 차일피일 미루자 괄시를 받은 채권자들은 독이 오르기 시작했다.

리왕전하의 장인이니, 후작이니 하는 방패를 내들고 이 피탈 저 피탈 얼렁방귀만 뀌는 윤택영과 씨름질하다 못해 채권자들은 총독부에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수차례 청원을 하였다. 하지만 총독부가 시끄럽게 여기며 개입하려들지 않자 빚군들은 법원과 끈질기게 교섭해 윤택영이 소유하고있는 동산의 강제집행에 들어갔다.

그런데 기가 찬노릇이였다.

작위로 보나 가문으로 보나 《조선귀족》의 거두급이라 할

윤후작의 집안에 남아있는 재산이라군 겨우 몇백원어치에 불과하지 않은가. 빚단련에 너무 시달려 눈치가 도가집 강아지같은 집주인이 어느새 재산을 날래게 빼돌린것이 분명했다.

홍두깨가 치밀어오른 빚군들은 집달리를 시켜 윤택영의 가옥에 돌아가며 차압딱지를 붙이게 하고 경매에 내걸었다.

지어 안주인의 옷가지까지도 경매에 붙여지는 수모를 면치 못했으니 안주인이 누구인가. 여느 주막집 아낙네가 아니라 다름아닌 옛 상감마마의 장모가 아닌가.

집안망신이기 전에 창덕궁의 망신이고 딸자식과 사위의 망신이였건만 윤택영에게는 개구리대가리에 찬물끼얹기였다.

이상한것은 빚 잘라먹고 오리발 내밀기로 서울장안에 정평이 나있는 윤후작임에도 그에게 빚을 내주는 고리대군들이 이후로도 그치지 않았다는것이다. 윤택영의 얼렁수에 넘어갔다기보다 그를 미끼삼아 총독부나 리왕직을 상대로 한몫 톡톡히 잡아보겠다는 빚군들의 흑심때문이였을것이다.

속이 시꺼멓기는 윤택영도 마찬가지였다.

이왕 빚을 질바엔 크게 지는게 낫다. 1 000원 빌린 사람이 추가로 1만원을 빌리기는 힘들어도 1 000만원 빌린 사람이 추가로 1만원을 빌리기는 누워서 떡먹기이다.

그런데다가 채권자들은 큰 빚을 진 채무자일수록 서뿔리 대하지 못하지 않는가. 채무자의 심기를 잘못 건드려 채무를 미루거나 떼먹기라도 하면 채권자는 앉은자리에서 쪽박을 찰수도 있으니까.

그럴진대 빚을 내준 놈이 애를 졸이게 생겨먹었지 빚진 놈이 안달복달할게 뭐란 말인고.

목구멍을 넘기면 뜨거움을 잊는다고 생각하며 윤택영은 그후에

도 계속 빚을 얻어 허영에 찬 생활을 이어갔다.

빚을 져서 호화로운 생활에 탕진하고나면 차압이 들어오고 경매를 당하고, 다시금 빚을 져서는 탕진하는 악순환이 10년을 두고 되풀이되였다.

그동안에 빚더미는 점점 더 불어나고 윤택영의 집으로는 문턱이 닳도록 집달리가 찾아들어 차압딱지를 붙이고 돌아갔다. 나중엔 왜왕이 준 꽃병이며 고종이 보낸 서첩 등에까지 차압딱지가 떠덕떠덕 붙었다.

제가 진 빚이 얼마나 되는지 윤택영 본인도 똑똑히 아는것 같지 않았다. 빚군들이 몰려와 차용증서를 내밀고 재판을 걸면 그제서야 《썼나보다.》 하는 식이였다.

그렇게 빚단련과 소송에 시달리던 6년전 어느 여름날 윤택영은 아들과 함께 한달후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말을 남기고 슬그머니 베이징행 기차에 몸을 실었다.

밤낮으로 찾아와 행악을 부리는 빚군들의 성화독촉에 더이상 견뎌배기기도 어려웠거니와 자신들이 자리를 비운 동안 대리인을 시켜 거덜이 나고 남은 가산이라도 정리해서 빚군들에게 노나주려고, 그렇게 해서 다문 얼마간이라도 빚을 갚는 흉내를 내고 부채를 탕감받아보려는 의도에서였다.

그러나 약속한 한달이 지나고 그해가 저물도록 윤택영은 돌아올수가 없었다. 그들부자가 중국으로 도피한 뒤 채권단과의 교섭이 날로 악화되였기때문이였다.

채권자들은 무리를 지어 빚받이소송과 사기횡령소송을 제기하다 못해 윤후작부자에게 산 사람을 경제적으로 죽은 사람으로 선언함이나 다름없는 파산선고를 내려줄것을 법원에 신청하였다.

하는수없이 윤택영은 채권자들과의 교섭이 타결되기를 기다리며 흙바람 맵짠 이역땅에 언제까지고 머물러있지 않으면 안되였다.

베이징에 도착한지 두어날도 지나기 전에 그의 입에서 벌써 환국하고싶다는 소리가 흘러나왔다.

그래도 고국에는 빚으로 지은 집일망정 덩실한 제 집이 있었고 《채무왕》이라고 손가락질을 당할망정 리왕의 장인이고 후작이라는 위세가 있었건만 이국땅에서 그는 빚군들에게 쫓겨다니는 초췌한 도망자에 불과할뿐이였다.

게다가 꽁지가 빳빳해서 뱅소니쳐온 신세다보니 주머니의 로자도 넉넉치 못했다.

윤택영의 우는소리를 전해듣고 이따금 창덕궁에서 생계비를 보내주기도 했었지만 왕실의 일체 재산을 총독부가 철저히 틀어쥐고있는 형편에서 그 돈이라야 뻔한것이였다.

거지의 씨가 따로 있는게 아니였다. 난생처음 끼니를 거를가봐 걱정해야 하니 목이 메여들었고 주머니가 가벼우니 자연 어깨가 축 처져내렸다.

환락에 지쳐빠졌던 지난날이 그리웠다. 턱짓으로 남을 부리군하던 그 시절이 못견디게 눈에 밟혀왔다. 고달픈 타향살이가 한해두해 길어질수록 윤택영의 입에서는 고국에 돌아가고싶다는 소리가 입버릇처럼 더 자주 튀여나왔다.

하건만 수백만원의 빚과 100여명의 빚귀신들이 뒤끓는 고국으로 돌아간다는것은 섶을 지고 불속에 뛰여드는것이나 마찬가지였다.

윤택영은 창덕궁의 사위와 딸에게 줄곧 인편을 띄워 총독부에 잘 이야기해서 제발 자기 빚을 해결해달라고 간절히 졸라대

군 하였다.

장인의 그 정상을 보기가 하도 딱해 한번은 순종이 왜인들과 련계가 깊은 리완용을 불러 총독과 협의해보라고 부탁한적이 있었다.

평소에 윤씨의 집과 대면조차 잘하지 않던 리완용도 돈소리에는 귀가 솔깃했던지 총독을 찾아가 량전하께서 항상 슬퍼하시니 리왕직의 예산중에서 몇달분을 떼여 채무문제를 해결할수 없겠는가고 제의했다.

총독은 난색을 지었다. 그러지 않아도 재산을 송두리채 들어먹고 오늘은 리왕직으로, 래일은 총독부로 찾아다니며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옛 황족들과 귀족들의 등쌀에 진저리를 치는 판인데 윤후작에게만 특혜를 베푼다면 뒤감당은 어쩌겠느냐는것이였다.

그토록 목이 빠지게 고대했건만 종내 창덕궁에서 숨통이 열리는 소리가 들려오지 않자 윤택영은 절망에 빠지고말았다.

헌즉 고국으로 돌아갈 날은 묘연하단 말인가. 돈이 없이야 뒤집힌 거북 한가지인데 어떻게 이 낯선 땅에서 허구한 세월을 살아간단 말인가.

별다른 수가 없었다. 타향에서 알거지신세를 면하자면 귀족의 체면이고 뭐고 다 집어던지고 호구지책을 마련해야만 했다.

군자 말년에 배추씨장사 한다고 오래동안 주먹궁리를 하던 끝에 엿장사를 해볼가 하고 생각한 윤택영은 장사밑천을 마련해달라고 창덕궁에 또 기별을 띄웠다. 엿장사를 시작할 돈마저 남의 돈을 빌려 마련하려 했으니 과연 《채무왕》이라는 별명이 아깝지 않은 윤택영이였다.

그러던 올해 4월 좋든싫든 윤택영이 환국하지 않으면 안될 불

가피한 일이 일어났다.

순종의 부고를 받은것이다. 막상 채권자들이 잔뜩 이를 갈고 있는 곳으로 들어가자니 아귀지옥으로 뛰여드는것만 같아 속이 떨려났다.

허나 이 기회가 아니면 영영 고국땅을 밟지 못할수도 있었기에 이러구저러구를 따질 계제가 못되였다.

윤택영은 쥐가 숨어들듯 살금살금 국내로 들어왔다. 본래 같으면 신분이 신분인지라 위풍당당히 귀국했을테지만 혹 빚군들이 진을 치고 기다리면 어쩔가싶어 서울로 직접 들어올 대신 캄캄한 밤에 문산역에서 내렸고 거기서 마중나오게 한 리왕직 자동차를 갈아타고 몰래 창덕궁의 옆문인 금호문을 통해 입궐했다.

그뒤 두달이 넘도록 윤택영은 채권자들을 피해 창덕궁 내전에 수인마냥 붙박혀있으면서 원쑤진 집보다 빚진 집 문앞을 지나기가 더 어렵다는것을 처절히 절감했다.

어떻게나 이번 길에 쫓기는 들개신세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조바심치며 그는 친지들을 내세워 채권단과의 협상을 시도한다, 총독부에 청을 넣는다 수염의 불끄듯 덤벼쳤다. 그랬건만 빚군들은 저렇듯 더욱 기광이 뻗쳐서 날쳐대니 인제는 어찌해야 하는가.

지난 일들을 멍하니 돌아보는 윤택영의 목구멍으로 뻣뻣한 경련이 치밀어올랐다.

또다시 머나먼 타향으로 귀양살이를 가야 한단 말인가. 칼바람이 옷자락을 물어뜯는 골목길과 불기없는 려관방에서 또다시 고독과 절망을 하염없이 삼켜야 한단 말이지.

철새들도 돌아올 때가 정해져있건만 자기에게는 돌아올 기약

조차 없다고 생각하니 와락 눈물이 쏟아져나오는것을 주체할길이 없었다.

그러고있느라니 느닷없이 뒤쪽에서 찾는 소리가 들려온다.

《후작각하.》

윤택영은 황망히 손수건을 꺼내 짓물린 눈굽을 훔치고나서 구겨진 얼굴을 돌렸다.

빚군들한테 붙잡혀 진땀을 뽑던 서변호사가 이마전을 훔치며 다가와 알리는것이였다.

《각하, 채권자들이 돌아갔소이다.》

《흥.》

윤택영은 맥없이 코웃음을 쳤다.

들어보나마나 결말이야 뻔할테지. 씹어먹을것처럼 떠들어대던 빚군들의 목소리가 되살아나 윤택영이 넌더리를 떠는데 서변호사의 입에서 뜻밖의 소리가 나왔다.

《헌데 저, 최박만씨가 각하를 꼭 뵙겠다고 기다리고있소이다.》

순간 윤택영의 목에 피줄이 파드득 일어섰다.

지독한 구리귀신같은 놈. 기어코 오늘중으로 내 깝대기라도 벗겨가겠다는건가.

윤택영은 벌레라도 삼킨듯 오만상을 찡그리며 역스럽게 내뱉았다.

《그깟 촌놈을 만나선 뭘 해.》

그러자 서변호사가 초조한 빛을 드러내며 몇걸음 더 다가서더니 슬며시 귀띔하는것이였다.

《최씨가 넌지시 하는 말이 각하께서 한가지 조건만 만족시켜주신다면 새 협상안을 고려해볼 용의가 있다 하오이다.》

순간 윤택영의 눈빛이 홱 달라졌다. 최가가 했다는 소리가 대추나무에 연 걸리듯 그의 귀에 탁 걸려들었던것이다.

윤택영은 눈이 퀭해서 서변호사를 쳐다보다가 중얼거렸다.

《조건이라구? 무슨 조건인데?…》

서변호사가 소리를 낮춰 대답했다.

《그에 대해선 꼭 후작각하를 뵈옵고 말씀드리겠다 했소이다.》

서리맞은 풀잎처럼 처져있던 윤택영의 코수염이 꿈지럭거렸다.

대체 최가가 무슨 조건을 내대겠다는걸가?

하기야 아무 조건인들 상관있나. 빚만 탕감해주겠다면야 최가네 집 말뚝에라도 절을 할 판인데.

상당한 몫의 채권을 가지고있는데다 협상안을 앞장에서 반대하고있는 최가가 정말로 마음을 돌려준다면 다른 빚군들한테도 영향을 미칠수 있으련만…

윤택영은 앙가슴을 부풀리며 욕심스레 깊은숨을 들이긋고는 흉중에서 맴도는 불안과 죄의식을 몰숨과 함께 씻은듯이 날려버렸다. 그리고는 거드름스레 헛기침을 툐으며 일어났다.

《으험, 최 아무개를 만나보세.》

5

《황제어새라니요?》

한순간에 피가 멎어버린듯 윤씨의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다. 녀인은 돌처럼 굳어진 입술을 가까스로 놀려 말했다.

《고종황제께 비밀옥새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저는 지금껏 들어본적이 없사옵니다. 더우기 그런 옥새를 제가 건사하고있다니 아버님, 그건 허무한 소문이옵니다.》

처마로 들이붓던 소나기가 지나갔는지 락수물 떨어지는 소리만이 소란스러웠다. 어수선산란한 그 소리사이로 절망을 쏟아놓는듯 한 윤택영의 한숨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바람이 다 빠져버린 풍선처럼 후주른하고 주눅이 든 모습으로 딸앞에 앉아있었다.

부어오른듯 한 눈거죽속에 움푹 꺼져들어간 두눈은 애원에 차있었고 괴롭게 이그러진 이마는 긴장으로 팽팽해있었다.

고통스러운 침묵이 방안을 바위처럼 지지누르고있었다. 한참만에 윤택영이 기여들어가는 소리로 입을 열었다.

《대비전하, 고종황제의 옛 신하로서, 더구나 전하의 아비된 몸으로 이런 불충불의한 청을 올리게 됨이 죽기보다 더 괴롭나이다. 하오나 백척간두에 올라있는 이 아비의 사정을 헤아려주사이다. 정말로 대비전하께옵서 황제어새를 간수하고계신다면 이 아비의 운명은 전하의 손에 쥐여져있는것이나 다름없사오이다. 대비전하, 부디 하량해주사이다.》

윤택영의 하소연은 간절했다. 딸더러 고종황제가 맡긴 옥새를

자기한테 넘겨달라는것이였다.

전날 그가 은밀히 최박만과 따로 만났을 때였다.

아닌밤중에 홍두깨 내밀듯 최가의 입에서 왕청같은 소리가 튀여나오는것이 아닌가.

《소인의 요구조건이랑게 딴게 아니올시다. 듣자니 황제어새라고 그전에 덕수궁 리태왕전하께옵서 사용하시던 옥새럴 대비전하께옵서 간수하셨닥 하기에 그걸 소인헌테 양도하도록 해주십사 하능깁니다.》

윤택영은 어안이 벙벙해지고말았다.

평소에 호사스러운 생활에만 눈이 어두워 골치아픈 정사에 관심이 없었던 그로서는 고종황제에게 황제어새라는 옥새가 있었다는 소리도 듣느니 처음이였거니와 고종의 옥새를 윤대비가 가지고있다는 말도 뚱딴지같은 소리로밖에 들리지 않았던것이다.

대관절 이 촌놈이 그런 생뚱같은 소리는 어디서 주어들었는가?

윤택영이 덩둘해서 갈피를 못 잡고있는데 카랑카랑 울리는 최가의 방정맞은 목소리가 잇달아 들려왔다.

《그러닝게 소인이 드리자는 말씀인즉 인제는 골동이나 진배없는 그 물건얼 소인으게 넘겨주시문 후작각하께서 제시하신 협상안얼 다시한번 생각해볼수도 있다능깁니다. 뭐 싫으면 마시능기고.》

최가의 살찐 얼굴은 턱없이 거만스러워보였다. 항아리처럼 배가 불룩한 그자의 고리눈에서 빈정거리는듯 한 빛을 알아보는 순간 윤택영은 목덜미가 뻣뻣해왔다.

그렇지만 내색할수가 없었다. 빚진 종이라는 소리가 달리 생겼으랴.

수렁에 빠져 허우적대는 윤택영에게 있어서 그 시각 무엇보다 긴절한것은 최박만이 던진 한오래기의 지푸래기였다.

그러니 황제어새인지 뭔지 하는 옥새만 넘겨주면 부채를 탕감해줄수도 있다는 소리가 아닌가.

무슨 감투끈인지 통 알수가 없었다. 어찌되여 이 수전노가 수십만원의 채권과 맞바꾸겠다고 할만치 이전 임금의 옥새에 그토록 욕심을 부리는걸가? 제 말마따나 옥새를 골동으로 팔아먹자는건가?

굴뚝같이 시커먼 최가의 속을 가늠해보려고 잠시 끙끙대던 윤택영은 이내 머리를 흔들고말았다.

까짓것, 이런들 어떻고 저런들 어떠랴. 숨통을 조이는 빚올가미에서 벗어날수만 있다면야 고종황제의 옥새가 아니라 그보다 더한것이라도 군말없이 꺼내다줘야 할 처지인데.

그는 최박만이 내민 지푸래기를 덥석 부여잡으며 반승낙을 하지 않을수 없었다.

그러나 막상 돌아서서 생각해보니 난감하기 그지없었다.

최가의 요구를 들어주자면 딸을 움직여야 하는데 성정이 올곧은 윤대비를 어떻게 설득한단 말인가. 《합병》때 일본인들이 칼을 겨누고있는 살벌한 속에서도 옥새를 치마폭에 감추고 끝까지 버티였던 윤대비가 아닌가.

그럴진대 아무리 나라가 망해버리고 군주가 사라진 오늘이라 할지라도 옛 황실의 가보이며 선황의 손때가 묻은 옥새를 대비가 선뜻 내놓을리는 만무한것이였다.

하건만 벼랑끝에 몰린 윤택영으로서는 다른 길이 없었다. 이 기회마저 놓치면 또다시 기약없는 류랑의 길에 나설수밖에 없는 막막한 신세이기에 그는 자식의 효심을 붙잡고 늘어져서라도 수

렁에서 헤여나야 한다는 황급한 심산으로 이렇게 말을 꺼낸것이였다.

윤씨는 짓타는 눈길로 아버지를 바라보며 안타까이 말했다.

《아버님, 송구하오나 저에겐 어찌할 도리가 없사옵니다.》

그러는 녀인의 눈앞에 고종황제가 숨을 거두기 몇달전에 있은 일이 되살아왔다.

그날 문안차로 덕수궁을 찾았던 윤씨는 우연한 기회에 고종황제와 단 둘이 있게 되였다.

늘 곁에서 맴돌던 상궁들도 내관들도 잠시 자리를 비운 쉽지 않은 그 순간 불쑥 고종이 소매속에서 무엇인가 꺼내여 윤씨에게 내미는것이 아닌가. 얼결에 받아보니 누런 비단보에 싼 자그마한 함이였다.

《중전께서만 아시고 잘 간수해주시기 바라오.》

무겁게 당부하는 고종의 두눈에 그때껏 윤씨가 본적이 없는 절절한 빛이 흐르고있었다.

윤씨는 심상치 않은 예감에 가슴을 두근거리며 촉급히 그 물건을 품속에 간수했다. 돌아와서 남몰래 함을 열어보던 녀인은 그만 소스라치지 않을수 없었다.

천만뜻밖에도 《황제어새》라고 새겨진 옥새가 그안에 들어있었던것이다.

윤씨의 심장이 세차게 활랑거렸다.

국권을 잃은 뒤 고종황제의 모든 옥새는 왜인들에게 빼앗긴것으로만 알고있었는데 여직 이런 옥새가 남아있다니. 어인 까닭에 태황제는 위험을 무릅쓰고 숨겨온 옥새를 돌연 아들이 아닌 며느리에게 내맡긴것일가?

총독부의 눈과 귀가 가시처럼 곳곳마다에 돋혀있는 궁중의

한복판에서 아녀자의 여린 몸으로 맡아안기에는 너무도 중하고 위험천만한 옥새를 바라보며 윤씨는 가슴이 떨려나는것을 어쩔 수 없었다.

그때까지만도 윤씨는 자기의 비밀옥새를 며느리에게 맡긴 고종황제의 속내를 미처 읽지 못했었다.

《합병》과 함께 일본에 의해 태황제로부터 《리태왕》으로 굴러떨어진 고종은 덕수궁에 갇혀 섬오랑캐들의 기념품같은 존재로 고적한 말년을 보내고있었다.

하는 일이라야 하루의 대부분을 예순나이에 본 고명딸의 재롱을 보며 즐거워하거나 일본으로 건너간 막내아들 리은을 그리워하는것이 전부였고 죽어서 명성황후와 함께 묻히게 될 홍릉의 공사정형을 이따금 살펴보는것이 고작이였다.

하지만 허무하게 흘러가는듯 한 나날속에서도 고종황제는 어느 한시도 원쑤 일본을 잊은적이 없었다.

안해를 참혹하게 살해하고 자신을 황위에서 몰아내고 나라까지 빼앗아간 왜놈들에 대한 원한이 골수에 사무쳐있었기에 고종은 겉으로는 대세에 순응하는척 하면서도 내심으로는 일본에 대한 저항을 그치지 않았다.

일본에 있어서 그러한 고종은 배속에 든 벌레처럼 께름하기 그지없는 존재였다. 지금은 뿔빠진 암소꼴이 되여 기가 죽어있지만 의뭉한 고종이 돌아앉아서 헤그밀사사건과 같은 엉뚱한 일을 또 꾸미지 않는다고 어찌 장담한단 말인가.

왜놈들은 이중삼중으로 감시망을 강화하는 한편 고종을 철저히 통제하고 정치적으로 완전히 거세하기 위해 갖은 악랄한 술책을 다 부렸다.

이등박문이 부모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류학》의 명목으로

대한제국의 마지막 황태자였던 리은을 일본으로 끌고 간 주되는 목적도 고종이 딴꿈을 못 꾸게 인질로 삼기 위해서였고 데라우찌가 옥좌에 오른 순종을 그때까지 거처하고있던 덕수궁으로부터 창덕궁으로 옮기게 하고 고종은 그대로 덕수궁에 눌러있게 한것도 순종에게 미치는 고종의 영향을 차단하려는 속심에서였다.

어디 그뿐인가. 제1차 세계대전후 열리는 빠리강화회의에 고종이 다시금 밀사를 보내려는 기미를 보이자 총독부기관지에 1차 대전의 와중에 전복된 도이췰란드며 로씨야황제의 비참한 말로를 집중적으로 보도하게 함으로써 고종에게 저들의 뜻을 따르지 않으면 그런 운명이 차례진다는 독기어린 경고와 협박을 들이대기도 하였었다.

고종황제의 불안과 초조는 날이 갈수록 더해만 갔다.

권력도 돈도 신하도 모두 잃어버린 그에게 있어서 어제날의 군주였음을 말해주는 유일한 증표는 오직 황제어새뿐이였다.

비단 어제날의 권위만을 말해주는것이였던가.

아니, 아직도 고종은 희망을 버리지 않고있었다. 언젠가는 큰 나라들이 구원의 손길을 뻗쳐줄지도 모른다는, 식어버린 재무지속에서 불꽃이 다시 일듯 그 언젠가는 무너진 사직을 다시 일으키기 위해 자신의 옥새가 필요하리라는 한가닥의 가냘픈 희망을 버리지 못하고있었거늘 실로 고종에게 있어서 황제어새는 비통한 현실에 대한 쓰라린 위안이였고 꿈속에서도 바라마지 않는 그날에 대한 애절처절한 희망이 아니였던가.

하기에 고종은 일제의 사나운 감시속에서도 비밀옥새만은 한사코 숨겨온것이였고 왜놈들의 살기띤 압박이 각일각 조여들수록 황제어새의 운명을 걱정하지 않을수 없었다.

아무래도 옥새를 자신이 계속 가지고있기는 힘들것 같았다. 그러니 누구한테 맡긴단 말인가.

순리로 보면 살아있는 세 아들중 첫째이며 옥좌를 물려받았던 순종에게 맡기는게 당연하겠지만 순종은 너무 유약해서 마음이 놓이지 않았다. 그래도 호기와 강단은 둘째인 의왕이 제 형보다 얼싸했지만 망명시도가 있은 이후로 총독부가 눈을 부릅뜨고 감시하는 대상이니 어림도 없었고 막내 영왕(리은의 봉호)은 왜국에 건너가있는 몸이니 더 생각해볼나위도 없었다.

우황든 소 앓듯 속을 태우는 고종황제의 마음은 자꾸만 맏며느리인 윤씨에게로 향하는것이였다.

간흉과 방탕으로 오명이 자자한 친정켠과는 달리 지조가 대쪽같고 품성이 결곡하여 왕조의 마지막국모였다고 이르기에 손색이 없는 윤씨였다.

나라가 왜놈들에게 통채로 삼켜지던 그날, 순종은 물론이고 고종자신까지도 속절없이 비탄의 눈물만 흘리고있던 절망의 그 시각 사직을 지켜보려고 마지막순간까지 옥새를 부둥켜안고 몸부림친 윤씨의 소행을 고종황제는 잊을수가 없었다. 생각하면 할수록 눈물겹도록 고맙고 자식들보다도 더 믿음이 가는 며느리였다.

하여 고심에 고심을 거듭하던 고종은 마침내 자기의 비밀옥새를 윤씨에게 맡기기로 결심하고 오래동안 기회를 보아왔던것이다.

그러한 사연을 다는 몰랐어도 옥새때문에 흘린 피눈물이 가슴속에 응혈로 맺혀있기에 윤씨는 황제어새를 천금보다 더 무겁게 맡아안았고 고종황제의 당부대로 자기만이 아는 곳에 깊숙이 간수하였다.

총독부의 눈초리는 검질기고도 매서웠다. 때로는 창살에 와 걸리는 바람소리에도 몸을 떨었고 때로는 경술년의 그날처럼 옥새

를 뺏기우는 악몽에 가위눌려 온밤 허덕이기도 하였다.

그럴 때면 윤씨의 눈앞에 옥새를 맡기던 고종황제의 눈빛이 떠올랐다. 망국의 한이 서린 절통한 눈빛이였다. 복국의 날을 학수고대하던 처량한 눈빛이였다.

그 눈빛이 떠오를 때마다 지하에 가서도 눈을 감지 못했을 시아버지의 통한이 가슴에 사무쳐와 윤씨는 마음을 도스르군 하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였다.

근래에 들어와 음으로양으로 고종황제가 남긴 옥새에 눈을 밝히는 인간들이 부쩍 많아졌던것이다.

윤씨를 찾아와 황제어새의 행방을 캐묻는 총독부와 리왕직의 관리들도 있었고 지나가는 말가운데 슬며시 동정을 떠보는 친지들과 궁인들도 있었다. 알지 못할 그림자들이 윤씨의 주위에서 불안스레 어슬렁거렸고 지어 그가 방을 비운 사이에 여기저기에 손을 댄 흔적이 나타나기도 하였다.

그러더니 오늘은 또 이렇게 곤궁에 빠진 아버지까지 황제어새를 넘겨달라고 찾아온것이다.

허나 윤씨는 불효자식이라는 말을 들을지언정 아버지의 하소연에 귀를 기울일수 없었다.

그게 어떤 옥새인가. 고종황제가 운명을 앞두고 맡긴, 시아버지의 마지막부탁이 담긴 500여년 왕조의 최후의 옥새가 아닌가.

도리머리를 흔드는 윤씨의 얼굴에 찬바람이 일었다.

윤택영은 온몸이 무너져내리는것만 같았다. 간신히 부여잡았던 한오래기의 지푸래기마저 종내 끊어지고마는가. 눈앞이 새까매졌다.

하면서도 딸에게 옥새가 있는게 분명하다는것을 직감으로 확

인한 윤택영은 우물에 든 고기마냥 두눈을 갈팡거리며 어푸러지듯 달라붙었다.

《대비전하, 전하께옵서까지도 그렇게 외면하시오면 또다시 이 아비는 천리타국으로 쫓겨갈밖에 별도리가 없사오이다.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전하를 뵈옵겠나이까. 선조의 사당과 혈육지신들이 있는 고국땅을 떠나 남의 문간에 몸을 기대고 소매동냥으로 살아갈 일을 생각하면…》

윤택영은 그만에야 입귀를 삐죽거리다가 끝내 말끝을 흐트리고말았다.

그러는 아버지를 바라보는 윤씨의 눈가에도 눈물이 핑그르르 돌았다. 불과 몇달전에 남편을 잃었는데 아버지와도 또 생리별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니 설음이 북받치는것을 어쩔수 없었다.

야속하기 그지없었다. 어쩌면 아버지는 딸자식의 마음을 이다지도 지지리 괴롭히는가.

딸이 중전이 된 뒤로 내전에 들어오면 노상 《중전마마, 불충한 아비의 빚을 갚아주시옵소서.》 하는 말부터 입버릇처럼 외우군 하던 아버지였다. 중국으로 도피한 이후에도 아버지는 얼마나 그칠새없이 인편을 띄워 돈이 부족하다고, 총독부에 도움을 청해달라고 하소연을 토하군 하였던가.

그런 일을 겪을 때마다 윤씨는 낯이 뜨거워 남편을 쳐다볼수 없었고 손아래 황실사람들앞에서 얼굴을 들수가 없었다.

하건만 이렇든저렇든 아버지는 아버지였기에 윤씨는 중국에서 내전이 터졌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아버지의 안위부터 걱정했고 아버지의 도피생활이 길어질수록 깊어만 가는 근심속에 늘 속을 졸여야 했다.

속을 태우는이가 단지 아버지뿐이였다면 그나마 다행으로 여

겼을지도 모른다.

억이 막히게도 윤씨의 피붙이들중에는 또 한명의 방탕아가 있었으니 바로 오빠인 윤홍섭이였다.

투기에 손을 댔다가 거덜이 나는 바람에 가뜩이나 엄청난 집안의 빚더미를 더 걷잡을수 없이 불궈놓은 윤홍섭은 아버지와 함께 베이징으로 도주한 후 얼마 안 있어 대학공부를 한다며 미국으로 건너갔다. 빚독촉에 몰려 도망한 신세에 무슨 돈이 있어 학비를 감당하랴. 그렇다고 명문대가의 귀공자로 고이 자란 그가 고학살이를 하겠다고 할리는 만무했다.

결국 윤홍섭이 택한 방도라는게 걸핏하면 창덕궁의 누이동생에게 학비를 대달라고 전보를 날리는것이였다.

아버지는 빚을 갚아달라고 죽는소리를 하고 오빠는 학비를 대달라고 아이 보채듯 하니 망국의 슬픔에 가정사의 번뇌까지 겹쳐 윤씨의 얼굴에는 어느 하루도 그늘이 가셔질 날이 없었다.

그런가 하면 경술국치때 윤씨의 품에서 옥새를 빼앗아간 큰아버지 윤덕영은 또 어떠한가.

아버지와 오빠가 방탕과 채무문제로 윤씨를 끈덕지게 괴롭혔다면 《합병》후 왜인들로부터 자작의 작위를 얻고 리왕직의 요직에 앉아있으면서 옛 황실의 동정을 감시하여 총독부에 보고하군한 윤덕영은 조선사람들한테 《제명에 죽지 못할 놈!》이라는 욕을 먹을 정도로 친일에 광분하여 윤씨의 가슴속에 더욱 큰 치욕의 상처를 남겨놓고있었다.

윤덕영이 그런 욕을 들을만한 까닭이 있었다.

조선을 강점한 일제가 특별히 중시한 일들가운데 하나는 봉건조선의 마지막군주였던 순종으로 하여금 일본으로 직접 건너가 저들의 《천황》을 《알현》하도록 하는것이였다.

그것은 단순한 의례행사가 아니라 조선황실이 일본황실에 완전히 굴복하고 조선민족이 일본민족앞에 무릎을 꿇었음을 내외에 선언하는 상징적인 행사였다.

그러나 《합병》을 계기로 험악해진 조선백성들의 반일감정과 고종이며 순종의 반감때문에 거사를 차일피일 미루어오던 데라우찌는 총독의 자리를 하세가와에게 넘겨주는 자리에서 순종의 도꾜행을 중대과제의 하나로 인계하였다.

데라우찌가 못해낸 일을 반드시 실현하리라 결심한 하세가와는 은밀히 준비를 갖추게 하는 한편 리완용을 불러 고종과 순종을 설득하라고 지시하였다.

리완용은 헛물만 켜고말았다. 고종도 순종도 이런저런 구실을 들어 도꾜행을 거부해나섰던것이다. 그러자 하세가와는 이번에는 《합병》당시에 수완을 발휘한바 있는 윤덕영에게 일을 맡겼다.

리왕직의 찬시장(시종장)으로 있던 윤덕영은 순종을 움직이려면 반드시 고종부터 움직여야 한다는것을 잘 알고있었다. 그는 고종을 만나 단도직입으로 들이댔다.

《년로하신 리태왕전하를 괴롭히는 일이라 송구하오나 왕가의 백년안태를 위해 참으시고 친히 동경에 가셔서 <천황>의 문안을 여쭙는게 옳다고 생각하옵니다. 그러시지 않는 경우 어떤 화가 들이닥칠지 알수 없사오니 전하의 깊은 사려를 바라옵니다.》

로골적인 협박에 고종황제는 자신은 늙어서 세상일에 관계가 없는 몸인데 무슨 소리를 하느냐고 단마디로 뿌리쳐버렸다.

하지만 윤덕영이 누군가.

그날부터 그는 자리를 뜨지 않고 고종앞에서 같은 말만 반복했다. 밤이 깊어도 덕수궁을 떠나지 않은채 고종이 누우면 별실에서 쉬였고 고종이 눈을 뜨면 기다렸다는듯이 들어가 도꾜로

갈것을 강요했다.

임금과 신하간의 례의도 옛정도 아랑곳않는 검질기고 파렴치한 그 태도앞에 궁인들은 경악을 금치 못했다.

그렇게 한주일이 지나갔음에도 고종황제는 고집을 굽히지 않았다.

사대를 외교의 근간으로 삼아온 조선봉건왕조 500여년동안에도 임금이 직접 큰 나라들에 찾아간적은 없었다. 하물며 사직을 무너뜨리고 강토를 집어삼킨 섬나라 오랑캐왕에게 어찌 제발로 찾아가 머리를 조아린단 말인가. 천부당만부당한 소리였다.

40여년간이나 임금노릇을 한 고종황제가 70고개를 바라보는 늙은 몸을 끌고 스스로 도꾜에 찾아가기를 바라는것은 오이넝쿨에 가지 열리기를 기대하는것이나 같다는것을 윤덕영도 모르는 바 아니였다.

그의 속심은 다른데 있었다. 고종을 궁지에 몰아넣어 제입으로 《나는 년로하여 갈수 없으니 창덕궁에서 대신 동경에 가도록 하라.》는 분부를 내리도록 하자는것이였다.

헌데 고종은 자신이 도꾜에 가는것을 단호히 잘라맬뿐더러 순종의 도꾜행도 일언반구 입에 올리지 않고있었다.

윤덕영은 하세가와를 비롯한 왜놈들과 짜고 고종황제에게 더욱더 핍박을 가하기 시작했다.

덕수궁의 집기들을 정리한다는 핑게를 대고 궁내의 창고들을 가택수색이라도 하듯 일일이 뒤지며 들볶아댔는가 하면 물품을 보관하는 궁녀를 파면해 궁궐밖으로 내쫓았다. 그 궁녀는 고종이 늘그막에 총애하던 녀인이였는데 조그마한 결점을 트집잡아 그런 처분을 내린것이였다.

고종은 화가 꼭두까지 치밀어 노발대발하였지만 윤덕영은 본척

만척하며 보다 악랄한 술책을 부렸다.

이전에 명성황후가 살해된 뒤 고종황제의 계비를 맞아들이기 위해 많은 량반집처녀들을 물색한적이 있었는데 그중 김씨라는 녀인이 뽑혀 약혼까지 성립됐건만 무슨 리유에서인지 궁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때껏 허구한 세월을 독수공방하고있었다.

전후사연이 흐리마리한 애매한 풍문을 꼬투리로 잡아쥔 윤덕영은 그 사실을 하세가와에게 알렸다.

내심 더없이 좋은 기회라고 쾌재를 올린 하세가와는 한번 약혼한 녀자를 버리는것은 륜리에 어긋나니 마땅히 덕수궁에서 받아들여야 한다고 붙는 불에 기름을 끼얹었다.

윤덕영은 자못 의분에 넘쳐 고종황제에게 간했다.

《임금의 말은 땀과 같아 한번 나가면 들어올수 없는것이옵니다. 김씨는 전하께옵서 반드시 은총을 내리실것으로 믿고 이십년 세월이 지나도록 독수공방해오고있사옵니다. 하세가와총독도 이 일을 알고있어 전하를 패덕하게 보지 않을가 심히 우려되옵니다. 그 녀인을 죽이고 살리는것은 오로지 전하의 마음에 달렸사오니 바라옵건대 은총을 내려주시옵소서.》

새벽 봉창 두들기는것 같은 소리에 어안이 벙벙해진 고종황제는 당시 신하들이 계비감을 물색하다가 생긴 일인가본데 자기는 여적 들어본적이 없다고, 이제 와서 그런 일을 운운하는것은 불충의 극이라고 밀어버렸다.

허나 윤덕영은 그 말을 들은체도 않고 매일 새벽 2시가 넘도록 고종의 눈앞에 까딱않고 뻗치고 서서 김씨를 받아들이라는 말만 외우며 극심한 정신적인 고통과 육체적인 피로를 안기군 하였다.

그래도 고종이 마음을 돌리려 하지 않자 나중에는 혼례복을 입힌 김씨녀인을 대한문안으로 데리고 들어와 70이 가까와오는

옛 임금에게 추호의 애정도 없는 결혼을 강요하기까지 하였으니 실로 그 악랄함과 랭혹함, 집요함에 혀를 차지 않는 사람이 없을 지경이였다.

오죽했으면 고종 본인도 윤덕영을 가리켜 500여년 왕조사에 보지 못한 간흉이라고 원성을 터뜨렸겠는가.

마침내 하세가와와 윤덕영의 끈질긴 모략에 손을 든 고종황제는 《창덕궁에 뜻을 전하고 대신 가게 하라.》는 분부를 내렸고 아버지의 분부라면 거역할 엄두조차 못 내는 순종은 순순히 도꾜로 건너가 왜왕을 《알현》할수밖에 없었던것이다.

불쌍하게 된것은 총독부와 윤덕영이 고종을 압박하는 희생물로 써먹은 김씨녀인이였다.

궁안에 들어갔건만 고종황제의 부름을 한번도 받아보지 못한 그 녀인은 그후 덕수궁에서 떨어진 별당의 비좁은 방에서 궁녀생활을 하다가 고종이 세상을 떠나고나서야 비로소 고인앞에서 일장통곡을 하였다고 한다.

왜인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라면 그렇듯 수단을 가리지 않는 큰아버지의 철면피한 추문들이 들려올 때마다 윤씨는 참기 어려운 수치감에 온몸을 떨군 하였다.

국모라 자처하던 몸으로 사직을 지켜내지 못한것만도 대대손손 머리를 쳐들수 없는 죄인데 어쩌면 일가붙이들은 하나같이 친일과 방탕으로 치욕에 치욕만을 덧쌓는것인가.

아버지나 큰아버지나 다 옛 황실의 인척들이고 조정의 국록을 누구보다도 많이 타자시던 원로중신들이 아니였던가. 나라를 말아먹은 죄책감을 제일 뼈저리게 통감해야 마땅할 그들이 오히려 귀밑머리가 허연 이날까지도 사리와 탐욕에 눈이 어두워 시골백성들도 침을 뱉는 추태만 일삼고있으니 혈육된 윤씨로서는 늘 쥐

구멍을 찾는 심정이였다.

윤씨는 죄많은 집안어른들을 대신하여 무릎을 꿇고 빌고싶었다.

망국의 원한품고 숨진 이 땅의 수많은 영령들앞에서, 망국노의 설음을 매일 매 시각 씹고있는 2천만동포들앞에서 윤씨가문이 지은 죄악을 고하고 석고대죄하고싶었다. 한몸이 티끌로 사라져버리는 날까지 낮에 밤을 이어 속죄하고싶었고 시궁창에 처박힌 가문의 오욕을 다문 얼마라도 씻고싶었다.

하거늘 아무리 혈육의 정이 끈지다한들 고종황제의 애절한 당부가 담긴 마지막옥새를, 짓밟힌 나라의 마지막존엄을 어찌 방탕한 아버지의 빚값으로 내줄수 있으랴.

윤씨는 애걸하듯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길을 강잉히 피하며 힘겨우면서도 결연한 어조로 대답했다.

《아버님, 재삼 말씀드리옵건대 저는 그런 옥새에 대해 아는 바 없사오니 더이상 저에게 옥새이야기를 꺼내지 말아주사이다.》

윤택영은 구들이 꺼지게 한숨만 몰아쉬다가 마지못해 일어섰다.

아버지를 바래고난 윤씨는 암울한 공허가 떠도는 방 한가운데 못박힌듯 서있었다. 가슴이 거문고줄처럼 떨려왔다. 해쓱하게 질린 녀인의 얼굴에 세파에 시달리는 고달픔이 무겁게 실려있는데 허공을 더듬는 두눈에는 우물처럼 깊은 슬픔이 고여있었다.

한동안 그렇게 망연히 서있기만 하던 윤씨는 가슴속에서 소용돌이치는 번민을 가실길 없어 뒤뜰로 나갔다.

뒤뜰에 나서니 언제 소낙비가 지나갔던가싶게 해맑은 대기가 추녀우에서 굼실거리고있었다.

머리우로 떠가는 흰 구름송이들은 세월도 잊고 풍상도 모르는듯 한가롭기만 하다. 한여름의 해살이 비물에 씻긴 기와지붕이며

운치롭게 둘러진 담장에, 비탈을 따라 길게 다듬은 돌들로 쌓은 여러 계단의 꽃밭우에 알알이 부서져 딩굴고있었다.

(우리는 이리도 초라하고 비참한데 어쩌면 산천은 저렇듯 아름다울가!)

윤씨는 속으로 이렇게 탄식하며 자기가 들어있는 락선재의 고적하면서도 단아한 자태를 덧없는 눈길로 둘러보았다.

창덕궁안의 동쪽에 외따로 자리잡은 락선재는 본래 국상을 당한 왕후들이 소복차림으로 은거하던 집이였는데 순종이 세상을 하직하자 윤씨도 대조전으로부터 이곳의 안채로 옮겨온것이다.

윤씨는 잠시나마 마음의 평온을 얻고싶어 조용히 뒤뜰안을 거닐기 시작했다. 하건만 가슴을 무겁게 짓누르는 불안과 비애, 외로움의 그림자는 좀처럼 가셔질줄 몰랐다.

비운의 녀인이였다. 어린 나이에 동궁계비로 들어가 인츰 중전이 되기는 했어도 허물어지는 왕조의 마지막 안주인이였던 그의 인생길에는 기쁨보다는 설음이, 절망이 더 많았다.

문득 남편의 모습이 떠오른다. 늘쌍 어드멘가 허공중을 방황하는듯 하던 텅 빈 그 눈빛이…

누구와 다투는것을 질색했고 구경을 해도 씨름 같은것은 반기지 않던 남편이였다. 허약하여 슬하에 자식도 두지 못한채 쓸쓸히 가버린 순종이였다.

한 집안의 가장노릇도 하기 딱한 그렇듯 무맥한 심신으로 기울어질대로 기울어진 나라의 군주노릇을 하자니 얼마나 고달팠으랴.

이 땅을 타고앉은 일본은 삼천리를 뒤흔드는 반일기세를 무마하고 옛 황족들을 회유할 목적으로 조선사람들의 고혈을 짜낸 금액가운데서 해마다 어느 정도씩 몰락한 황실에 지출하는 등

《우대조치》를 베푸는 시늉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상 그것은 옛 황실의 모든 재산을 철저히 장악한 일본이 어제날의 황족들을 저들의 식객으로 전락시키고 《보호》라는 미명밑에 총독부의 철통같은 감시와 통제를 받게 한데 불과한것이였다.

일제의 강제《합병》으로 명색뿐이였던 옥좌에서마저 밀려난 순종은 력사의 그늘속에서 허망하고 무의미한 삶을 이어갔다.

불안과 시름에 시달리느라 밤을 지새우던 고종황제와 달리 깨여나고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물론 목욕이며 산보시간에 이르기까지 1분도 어김이 없었던 순종에게 있어서 하는 일이 있었다면 총독부가 벌려놓는 잡다한 관례행사에 장식품처럼 불리워나가거나 온종일 신문을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내는것뿐이였다.

마치 누군가에 의해 태엽이 감겨져 단조롭고 무미건조한 동작만을 속절없이 반복하는 인형 한가지였다.

그런 속에서도 순종이 유일하게 관심을 돌린 일은 매일 아침저녁으로 고종에게 문안전화를 하고 한달에 한번은 덕수궁으로 찾아가 아버지와 식사를 같이하는것이였다.

고종이 불귀의 객이 된 후에도 순종은 때때로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군 하였다. 그럴 때면 내시가 릉을 지키는 관리에게 전화를 걸어 《덕진풍(전화기)을 혼백에 대라.》고 말했다. 상복으로 갈아입은 순종이 엎드려 절을 하면 내시는 전화기를 순종의 입가까이에 가져갔다. 그러면 순종은 전화기에 대고 넉두리를 섞어가며 곡을 하는것이였다.

아버지의 혼백을 찾아 구슬피 울려가던 남편의 그 곡성이 또다시 윤씨의 귀가에 메아리로 울려왔다.

그것은 비탄과 절망에 찬 곡성이였다. 설음조차 터놓을데 없는

망국의 군주가 구천을 향해 터치는 외로운 호곡소리였다.

사직을 뺏기고도 목숨을 부지해가는 구차한 인생이였건만 왜놈들에 대한 원한이 얼마나 피멍으로 맺혔으면 순종은 숨을 거두는 마지막시각 신하에게 통한의 유언을 남겼으랴.

지난날 자신이 《합병》을 《인준》한것은 이웃강도가 역신의 무리와 더불어 자신을 유폐하고 협박하여 제멋대로 선포한것이라고, 구차히 살며 죽지 못한 자신은 종사의 죄인이 되고 2천만 앞에 죄인이 되였다고.

윤씨의 눈에서 물기가 떨었다. 날카로운 고통이 윤씨의 온몸으로 줄달음쳤다.

비단 남편뿐이였던가. 쏟아진 둥지엔 성한 알이 없다고 고종황제의 일가모두가 무겁고도 수치스러운 망국의 오욕을 걸머지고 체념과 굴욕의 세월을 살아가고있지 않는가.

일본에 항거하여 한때 망명까지 시도했던 의왕도 지금은 수많은 첩실을 거느리고 풍류에 빠져 좌절과 타락의 나날을 보내고 있었고 철부지때 이등박문에게 끌려 일본으로 건너간 영왕도 잠시 귀국했을 때 조선말이 서툴러 고종과 통역을 두고 대화했을 만치 철저한 일본인으로 길들여지고있었다.

영왕이 일본황족의 녀자와 결혼한다는 소식이 들려오자 원쑤국의 황족녀자를 어찌 며느리로 삼겠느냐며 짐이 생존해있는 한 이 혼사는 성립될수 없다고 펄펄 뛰던 고종황제의 모습을 윤씨는 지금도 잊을수가 없었다.

하지만 허리 부러진 호랑이신세인 옛 황제가 아버지의 권한인들 어찌 변변히 행사할수 있으랴.

영왕을 일본녀자와 정략결혼시켜 조선봉건왕조의 혈통을 혼혈화하고 저들의 식민지통치의 《감화력》을 내외에 널리 광고할

야심밑에 총독부는 이미 10년전에 영왕과 약혼한 조선처녀에게서 약혼반지를 뺏아오게 하였는가 하면 지어 나흘뒤로 다가와있는 영왕의 혼례식을 예정대로 치르려고 고종황제의 사망소식까지 숨기려고 획책하였다.

그처럼 검질긴 총독부의 책동으로 종시 영왕은 일본황족의 녀자를 안해로 맞았건만 과연 그 《덕택》에 망국노의 처지가 달라지기라도 하였던가.

언젠가 일본황족회의에 참석했던 영왕이 죄송하지만 황족이 아닌분은 나가달라는 궁내청관리의 말을 듣고 얼굴이 하얗게 질려 비틀거리며 나왔다는 이야기가 윤씨의 뇌리에 아프게 떠올랐다.

《합병》후 일본에 의해 《왕세자》로 책봉되고 일본황족가문의 사위로 들어갔으니 마땅히 자신은 일본황족의 한 성원이라고 생각한 영왕이였으나 실제로 일본황실에 있어서 《리태왕》이니, 《리왕》이니, 《왕세자》니 하는 조선의 왕족들은 귀찮은 식객들이였고 저들의 위엄을 뽐내는 치레거리에 지나지 않았던것이다.

하기에 고종황제가 금지옥엽처럼 애지중지하던 고명딸 덕혜옹주도 영왕처럼 어린 나이에 《류학》의 명목으로 일본에 끌려갔건만 그곳에서 일본아이들로부터 따돌림을 당하며 신경쇠약증에 시달리고있다지 않는가.

고종황제의 온 가족이 그렇게 망국노의 굴레를 쓴채 인생의 진창길을 이리저리 끌려다니고있었다. 그리고 그들속에 바로 윤씨 자신도 있었다.

어디선가 산새 한마리가 피를 토하듯 울음을 터뜨린다. 발밑에서는 땅벌레가 어둑충충한 곳으로 느린 걸음을 옮겨가는데 머리우에서는 세월의 더께가 앉은 락선재의 암막새를 타고 아직도

기스락물이 눈물인양 떨어져내리고있었다.

처연히 그 정경들을 둘러보는 윤씨의 눈길뒤에는 끝없는 어둠이 있었다.

어렵고 비참한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왕조의 마지막국모로서의 존엄만은 잃지 않으려고 혼신의 힘을 다해 모지름쳐온 윤씨였다.

허나 망국이 불러온 현실은 너무나도 쓰라리고 가혹한것이였다.

왕조의 위엄이 서렸던 궁궐들은 사정없이 헐려나가고 옛 황실은 여지없이 무너지고있었다. 총독부의 승인이 없이는 궁문밖을 단 한걸음도 나설수 없었고 대부분의 옛 황족들이 바람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초불마냥 왜인들에게 굽신거리고있었다.

죽고싶도록 수치스러웠다. 나라를 망쳐먹었다는 죄악감으로 하여, 구접스레 원쑤가 던져주는 밥덩이를 주어먹으며 산다는 굴욕감으로 하여 조상들과 백성들앞에서, 이 땅의 산천앞에서 도저히 머리를 쳐들수가 없었다.

가끔 윤씨는 저세상에 먼저 간 남편이 부럽게 생각되군 하였다.

저세상사람이 되였으니 이제는 해가 바뀔 때마다 치욕을 삼키며 왜왕에게 신년하례전보를 바치는노릇을 하지 않아도 되는것이고 왜왕의 생일때마다 《축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총독관저로 찾아가지 않아도 되는것이다. 부모들을 해친 왜놈들의 살기찬 마수가 언제 자기에게 뻗칠지 몰라 전전긍긍하지 않아도 되는것이고 왜놈들의 강박에 못이겨 종묘앞에 더 큰죄를 지게 될가봐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것이다.

자기도 그처럼 고뇌에 찬 이승을 하직하고싶은, 하다못해 깊은 산속의 승방에 들어가 마음을 텅 비우고 살아가고싶은 충동

에 때없이 한숨이 나가군 하는 윤씨였다.

(아, 영영 우리는 이렇듯 그칠줄 모르는 모멸과 치욕속에 살아가야만 하는가?)

캄캄하고 고통스러운 앞날을 그려보는 윤씨의 눈가에 소리없이 눈물이 흘러내리고있었다. …

그뒤에도 윤택영은 문돌쩌귀에 불이 일도록 락선재를 드나들며 아비를 살려달라고 련일 딸에게 애걸복걸하였다.

흡사 그 모양은 수렁에 빠져 단말마의 몸부림을 치는 짐승을 방불케 하였다.

매일같이 진드기처럼 달라붙어 성화를 먹이는 아버지의 끈덕진 간청에 기진할대로 기진한 윤씨는 종내 어느날 깊숙이 간수해오던 황제어새를 내여주고야말았다.

– 끝 –

장편소설 풍운의 옥새 (제1부)

저 자 장 수 봉
편 집 정 성 남
장 정 리 성 일
교 정 림 향
낸 곳 평 양 출 판 사
인쇄소 평양인쇄공장
인 쇄 주체108(2019)년 12월 28일
발 행 주체108(2019)년 12월 31일

ㄱ－1462ㄷ

ⓒ Pyongyang Publishing House
DPR Korea
ISBN 978-9946-31-113-5